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2021.05.14(금) 13시
전주 라마다호텔 1층 세고비아홀

주최 :  전라북도  장수군

주관 : 후백제학회

후원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후백제학회



학술대회 세부일정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토론자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사회 :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2:30~13:00	학술대회 등록			
13:00~13:15	국민의례			
	개회사	후백제학회장	송화섭	
	환영사	장수군수	장영수	
	축 사	도의원 · 군의원 등 내빈		
13:15~13:20	장내 정리			
13:20~13:50	기조강연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반파국(伴跛國)으로 밝혀지기까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13:50~14:20	조사보고	장수 삼고리 고분군 조사현황 및 성과	방민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14:20~15:00	발표1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임혜환 (전북대학교)
15:00~15:20	휴 식			
15:20~16:00	발표2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박성배 (순천대학교박물관)	조성원 (부경대학교박물관)
16:00~16:40	발표3	장수 삼고리 고분군 진흥(振興)	이현석 (장수군청)	김재홍 (국민대학교)
16:40~17:00	장내 정리 및 휴식			
17:00~17:10	총평	발표 및 토론 총평	곽장근(군산대학교)	

| 목 차 |

기조강연	3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伴跋國으로 밝혀지기까지 발표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사보고	35	장수 삼고리 고분군 조사현황 및 성과 발표 : 방민아(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제발표 1	59	장수군 가야고분군의 현황과 가치 발표 :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 : 임혜환(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주제발표 2	81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발표 :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토론 : 조성원(부경대학교박물관)
주제발표 3	107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振興) 발표 : 이현석(장수군청) 토론 : 김재홍(국민대학교)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기조강연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伴跋國으로 밝혀지기까지

발표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가야의 범위
- III. 정설의 峻嶺을 뛰어넘어 도달한 반파국=장수 지역 가야
- IV. 장수 지역 가야의 위상
- V. 맺음말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伴跛國으로 밝혀지기까지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I. 머리말

「다음 어학사전」에서 長水는 “전라북도 동부 소백산맥 서쪽 사면의 산간 지대에 있는 군. 쌀, 보리 외에 잎담배, 고랭지 채소, 과수 재배와 축산업이 활발하다. 석회석, 장석, 활석 등의 지하자원이 생산되고,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지역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명승지로 논개사당 따위가 있다. 면적은 533.64제곱킬로미터이다”고 적혀 있다.

백과사전도 아닌 국어사전에 수록된 장수에 대한 소개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행정단위로서 장수의 기본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어학사전 ‘長水’에서 주제어를 찾는다면 ‘산간 지대’·‘고랭지’·‘지하자원’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오지라면 흔히들 ‘무진장’을 언급한다. 무진장은 무주·진안·장수를 일컫는 속칭이었다. 이곳은 전라북도 東端 산악에 입지한 高地帶 환경으로 인해 오지의 대명사로 불리었다. 그러나 무진장은 한반도 남부에서 공간상으로는 중심권역, 즉 북판에 가깝다. 생각하기에 따라 오지가 중심일 수도 있다.

무진장 가운데 장수는 국문 표기상 빈도수가 높은 ‘長壽’나 ‘將帥’와 同音이다. 단어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소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長水라는 지명이 숨意하고 있는 바를 헤아리게 한다. 장수군에는 금강의 발원지인 뜯봉샘이 장수읍 수분리에 소재하였다. 장수군에는 섬진강도 흘러간다. 大河의 발원지이자 貫流하는 고을이 장수군인 것이다. 백제 때는 장수군 長溪面 일대를 伯海郡이라고 하였다. 강의 최종 목적지가 바다이므로 의미 없는 지명은 아닌 것이다. 「양직공도」의 ‘叛波’는 장수 지역 가야를 가리킨다고 한다¹⁾. 그렇다면 ‘波’ 역시 ‘水’나 ‘海’와 더욱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장수군은 육십령을 비롯한 동서 교통로와 관련된 지역이다. 그러니 소백산맥 동서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즉 소백산맥 동서의 중요한 물류와 인적 통로에 소재한 것이다. 이렇듯 장수 지역은 물류의 소통 수단인 大河와 고개를 끼고 있는 要地에 입지하였다. 그럼에도 행정 구역 전라북도가 주는 역사적 이미지로 인해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간 것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오랜 기

1) 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47~82쪽.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전북연구원, 2020), 35~75쪽.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전북연구원, 2020), 1~33쪽.

간 동안 가야 고분이 소재한 것을 홀시했고, 또 그 가능성마저 간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표조사를 넘어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힘입은 문헌적인 검증을 통해 실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밀하게 배치된 봉화망의 존재였다. 현재 110여 곳이 확인된 봉화대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일본서기』에서 6세기 초에 반파국이 조성한 ‘烽候’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봉화망의 조성 주체는 반파국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봉화망의 종점은 장수로 밝혀졌기에 반파국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에 발표한 가야사 연구 동향 논문에서는 “반파는 종래 성주에 비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즈음은 고령 가라국으로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³⁾”고 단언했다. 최근은커녕 근자의 연구 성과마저 전혀 반영하지 않은 피상적인 동향 분석에 불과하였다. 그랬기에 못내 아쉽게 여겨지는 바이지만, 2021년에 그의 입장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낙관해 본다.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의 성공적인 만남을 통해 장수 지역이 반파국의 소재지로 밝혀졌다. 사실 고분과는 달리 전문가들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적이 삼국시대 봉화대였다. 그것도 봉화대 1~2개소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의미가 붙는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烽火網을 이루었기에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가능해졌다. 또 이에 힘입어 문헌적인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러면 장수군은 한국의 고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체로 존재하였을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장수는 지금의 행정 구역이 주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가야의 일원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가야사로서 장수 지역이 지닌 역사적 비중과 역할을 집중·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적인 가야의 범위와 실제 규모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봉화망이 암시하는 단일 정치체로서의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어떻게 불렀는지? 물론 ‘任那國의 別種’ 속에 반파국이 속한다는 사실은⁴⁾ 마한제국에서 어떤 시점에, 속칭 가야로 운위되는 공간에 포함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또 이곳은 史書에서 慕韓으로 일컫는 限界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역시 마한과 변한 사이에서, 나아가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서 완충제이자 균형자 역을 했던 새로운 정치체로서 장수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반파국은 백제와 가야의 바깥인 限界地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잊어진 ‘가야의 빅4’의 하나 반파국을 넘어서고자 했다. 이제는 재조명되어 되살아난, 백제와 대가야 사이의 또 하나의 거대한 단일 정치체 반파국의 발견에 따른 위상 부여에 목적을 두었다.

2)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봉화대와 봉화망을 발견하고 조사한 박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1~33쪽이 좋은 참고가 된다.

3) 유우창, 「가야사 연구의 동향」, 『지역과 역사』44(부경역사연구소, 2019), 171~172쪽.

4) 『釋日本紀』13, 述義9, 第17, 繼體, “哆利國・伴跛國: 兩國者 任那國之別種也”

II. 가야의 범위

1. 가야의 정치적 범위—「가락국기」의 검증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표준적이며 보편적 자료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이다. 교과서에서는 “변한을 계승한 가야는 낙동강 일대에서 금관가야와 대가야 등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세운 연맹체이다⁵⁾”고 했다. 한국고대사 개설서에서도 “변한 12국이나 가야 6국이나간에 모두 낙동강以西와 남해안의 경상도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었으므로 양자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다⁶⁾”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고고학 개설서에서도 “가야는 삼국시대 낙동강 서쪽의 영남지방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정치체의 통칭이다⁷⁾”고 했다. 모두 가야의 동쪽은 낙동강, 서북쪽은 지리산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한 현재의 영남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가야 공간 인식의 근거는 무엇일까?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이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5가야 혹은 6가야 기원이 적혀 있다.

a. 五伽耶[駕洛記]를 살펴보면 贊에 이르기를 “하나의 자주색 끈이 드리워져 여섯 개의 둥근 알이 내려왔다. 다섯 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한 개는 이 城에 있다”고 한 즉, 한 개가 首露王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각각 5伽耶의 임금이 되었다. 金官이 다섯의 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本朝史略』에서 金官까지 그 數에 넣고 昌寧을 더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阿羅[혹은 耶]伽耶[지금 咸安] · 古寧伽耶[지금 咸寧] · 大伽耶[지금 高靈] · 星山伽耶[지금 京山 혹은 碧珍] · 小伽耶[지금 固城]이다. 또 「본조사략」에는 태조 天福 5년 庚子에 5伽耶의 이름을 고쳤다고 했다. 첫째는 金官[金海府가 되었다], 둘째는 古寧[加利縣이 되었다], 셋째는 非火[지금 창녕이니, 아마 高靈의 잘못인 듯하다], 나머지 둘은 阿羅와 星山[앞에서와 같다. 星山은 혹은 碧珍이라고도 한다]伽耶이다⁸⁾.

「가락국기」와 「본조사략」에는 5가야 · 6가야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가야연맹설이 태동했다⁹⁾. 이러한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 문종대(1046~1083)에 금관주지사가 저술한 「가락국기」에서는 “동은 황산강, 서남은 창해,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가야산, 남은 나라의 끝이었다”고 했다.

5)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출판, 2015), 28쪽.

6) 이기백 · 이기동, 『한국사강좌-고대편』(일조각, 1982), 156쪽.

7)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383쪽.

8) 「三國遺事」권2 紀異, 五伽耶 條. “五伽耶 按駕洛記 贊云 垂一紫纓下六圓卵五歸各邑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餘 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當矣 而本朝史畧並數金官 而濫記昌寧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畧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 阿羅 星山[同前 星山 或作碧珍]伽耶”

9)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387쪽.

이와는 달리 加羅는 그 범위가 2개 국에 국한되었다. 『일본서기』 신공 49년 조에 보이는 다음의 ‘가라와 남가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b. …… 그리고 比白國 · 南加羅 · 喙國 · 安羅 · 多羅 · 卓淳 · 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돌아 고해진에 이르러 南蠻의 침미다레를 도륙하여 백제에 賜하였다¹⁰⁾. ……

주지하듯이 위에 적힌 가라는 고령을, 남가라는 김해를 가리킨다. 김해 세력이 남가라였음은 여러 기록에서 보인다¹¹⁾. 따라서 남가라는 가라에 상응하는 국명임을 알 수 있다. 가라는 당시 가라연맹의 맹주권을 장악한 고령의 대가야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가라는 당초 2개국에 한정되었다. 이는 고령 현에 관한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 본래 大伽倻國이다[자세한 것은 김해부의 산천 下에 보인다]. 시조 伊珍阿鼓王[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道設智王까지 대략 16세 5백 20년이다. 崔致遠의 釋利貞傳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夷毗訶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 왕 惱室朱日과 金官國 왕 惱室靑裔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首露王의 별칭이라 하였다. 그러나 駕洛國古記의 六卵說과 더불어 모두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또 釋順應傳에는 대가야국 月光太子는 正見의 10세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腦王이며, 신라에 혼처를 구하여, 夷絜 比枝輩의 딸을 맞이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세손이라 하였다. 그러나 또한 참고할 것이 못된다. 신라 진흥왕이 이곳을 멸망시켜 대가야군으로 하였고,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었다. 고려 초에는 京山府에 소속하고, 명종이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때 고쳐 현감으로 했다¹²⁾.

위에서 인용한 대가야국과 금관국 시조 설화는 최치원이 지은 승려 전기 『釋利貞傳』에 수록된 것이다. 이 기록은 적어도 11세기에 지은 『가락국기』보다 오래된 기록이었다. 여기서 양국이 공유하는 형제시조 설화는 연맹관계를 알려준다¹³⁾. 그렇다면 가라를 공유하는 연맹은 김해와 고령 2개 國에 국한된

10) 『日本書紀』권9, 神功 49년 조.

11) 『日本書紀』권17, 繼體 21년 조, 『日本書紀』권19, 欽明 2년 4월 조, 『日本書紀』권19, 欽明 2년 7월 조, 『三國史記』권41, 金庾信傳.

12) 『新增東國輿地勝覽』권29, 慶尙道 高靈縣 建置沿革, “本大伽倻國 詳見金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鼓王 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六世五百二十年 按崔致遠 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官國王惱室靑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絜比枝輩之女而生太子 則異腦王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景德王改今名 高麗初屬京山府 明宗置監務 本朝太宗朝 改爲縣監”

13)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08~109쪽.

다¹⁴⁾. 그러던 가야가 11세기에는 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삼국시대 당시에 호칭하지 않았던 나머지 4개 가야는 ‘만들어진 가야’였다.

실제 최근의 발굴 결과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에서 5세기 후반~6세기 초 비화가야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出字形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 일체는 경주 황남동 신라 귀족 여성 무덤과 판박이 구성으로 드러났다. 결국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주체는 신라임이 확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⁵⁾. 실제 묘제와 토기를 중심으로 5~6세기 문화권을 구분했을 때 창녕은 신라에 속했다¹⁶⁾. 그리고 『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의 “有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라는 국명 가운데 ‘변진’이 앞에 붙지 않은 不斯國은 진한에 속한다. ‘진한 불사국’은 창녕을 가리키고 있다¹⁷⁾. 따라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본조사략」에 적힌 6가야의 하나인 비화가야는 기실 ‘비화신라’인 셈이다. 다음은 성산가야가 소재했다는 성주 지역의 연혁이 된다.

d. 본래 신라 本彼縣이다[『三國遺事』에서는 星山伽倻는 六伽倻의 하나라고 했다. 아마도 신라가 이곳을 취하여 本彼縣을 둔 것인가? 자세히 金海府 山川下에서 보인다]. 경덕왕이 新安으로 고쳐 星山郡에 속하게 했다. 뒤에 碧珍郡으로 고쳤다. 고려 太祖가 京山府로 고쳤다¹⁸⁾.

위의 인용을 보면 성산가야가 소재한 성주가 가야에 속한 적이 없었다. 분명히 신라 본피현이었 다. 그럼에도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가락국기」에서 ‘성산가야’라고 한 기록과는 맞지 않았다. 그랬기에 『동국여지승람』 찬자는 고개를 가웃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주는 신라의 역사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도 성산가야는 적어도 5~6세기에는 신라로 지

14) 이와는 달리 安羅까지 당시 加羅로 호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30쪽). 즉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大子于老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還之”(『三國史記』권2, 나해 니사금 14년 조)와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榛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三國史記』권48, 勿稽子傳) 기사에서 전자는 加羅, 후자는 阿羅로 적혀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이 후자의 阿羅國을 柯羅國이나 加羅國의 착오로 간주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정구복 외, 『譯註三國史記』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98~799쪽). 실제 물계사전은 본기의 축약에 가까울 뿐 아니라, ‘八浦上國’으로 기재하는 등 오류가 적출되었다. 그리고 田中俊明은 『일본서기』 欽明 2년 4월 조의 성왕의 발언 가운데 “加羅에 가서 임나일본부에 모여 맹세를 하게 했다”는 구절에 보이는 加羅는 安羅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安羅日本府’를 염두에 둔 이러한 주장은 비판할 값어치도 없다. 더욱이 성왕의 동일한 발언에 安羅와 加羅가 나란히 등장하는데, 어떻게 兩者가 동일한 세력을 가리킬 수 있을까?

15) 허윤희,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 『조선일보』 2020.10.29).

16)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57쪽.

17)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294쪽, 402쪽.

1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慶尙道 星州牧 建置沿革, “本新羅本彼縣 三國遺事以星山伽倻爲六伽倻之一 疑新羅取之 置本彼縣 詳見金海府山川下 景德王改新安 屬星山郡 後改碧珍郡 高麗太祖改京山府”

목하는 게 대세를 이룬다¹⁹⁾. 일례로 5세기 중엽~6세기 후반대에 축조된 성주 성산동 고분군을 발굴 조사한 결과 “출토된 다종다양한 土器類는 모두 낙동강 以東 양식에 속하며, 금속류도 대가야권역의 그것과 달리 신라권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도 같은 양상이다²⁰⁾”고 했다. 더욱이 「가락국기」가 아니었다면 ‘성산가야’ 개념은 생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小伽耶는 “본래 가야국인데 신라가 이곳을 빼앗아 古自郡을 두었다.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²¹⁾”고 하였다. 固城이 가야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삼국사기』와²²⁾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소가야의 原名을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의 『삼국유사』에 적힌 포상팔국의 전쟁 기사를 보도록한다.

e. 제10대 나해왕이 즉위한 17년 임진년에 保羅國 古自國[지금 固城] 史勿國[지금 泗州] 등 8國이 힘을 합쳐 침략해 와서 국경을 넘었다²³⁾.

위의 기사에 따르면 ‘古自國[지금 固城]’이 소가야의 원명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고자국의 존재는 다음에서 인용한 『일본서기』에서도 확인된다.

f.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말한다. 개별적으로는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이라고 말한다. 합해서 10國이다²⁴⁾.

g. 日本의 吉備臣, 安羅의 下早岐 大不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의 早岐, 久嗟의 早岐가 이에 백제에 나아갔다²⁵⁾.

위에서 인용된 古嵯國이 古自國을 가리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久嗟 역시 古嵯國=古自國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고성 of 소국을 당시 소가야로 일컬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함창의 가야소국은 “본래 古寧伽倻國이다[자세하게 金海府 山川下에 보인다]. 신라가 이곳을 빼앗아 古冬攪郡[古陵이

19)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57쪽.

20)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星州星山洞古墳群』(2006), 536~537쪽.

21) 『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慶尙道, 固城縣, 建置沿革, “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22) 『三國史記』권34, 地理志, 固城郡 條,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23) 『三國遺事』권5, 遯隱, 勿稽子,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等八國併力來侵過境”

24) 『日本書紀』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浪國 稔禮國 合十國]”

25) 『日本書紀』권19, 欽明 5년 11월 조, “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早岐久嗟早岐 仍赴百濟”

라고도 한대를 두었다. 경덕왕이 古寧으로 고쳤다²⁶⁾”고 했다. 그러나 古寧伽倻國의 ‘古寧’이라는 이름은 경덕왕대에 고친 이름이다. 따라서 ‘본래 古寧伽倻國이다’는 기사는 맞지 않다. 함창의 가야소국 원명은 확인이 어렵다. 게다가 함창은 묘제와 토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신라 지역에 속한다²⁷⁾.

「가락국기」에 인용된 6가야 가운데 당시 국호와 연원이 연관된 경우는 대가야(고령) 금관가야 안라가야 뿐이었다. 더욱이 연맹과 관련한 6가야는 입증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6가야’는 실체가 불분명하였다.

2. 통칭으로서 任那

「가락국기」에 적혀 있는 6가야는 어떻게 하여 생성되었을까? 이곳의 토착 세력들이 신라 말에 반 독립적인 호족들이 대두할 당시에 반신라적인 명분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²⁸⁾. 그러면 이 견을 검증해 보기로 하겠다. 「가락국기」에서는 아라가야 · 고령가야 · 대가야 · 성산가야 · 소가야였다. 여기에 주체인 금관가야가 포함됨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면 6가야가 되는 것이다. 「본조사략」에서는 금관가야 · 고령가야 · 비화가야 · 아라가야 · 성산가야였다. 그런데 「본조사략」에서는 940년(태조 23)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후삼국 통일 직후에 왕건은 5가야 이름을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름을 고쳤다고 보다는, 가야를 접미어로 하는 5가야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5가야는 김해 · 함창 · 창녕 · 함안 · 성주를 가리킨다. 그러면 5가야 가운데 김해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당초 가야였을까?

먼저 함창과 창녕 그리고 성주는 앞서 검증했듯이 신라였다. 함안만 가야에 속하였다. 그러면 신라 말~고려 초에 함창과 창녕 그리고 성주에는 가야를 표방한 호족이 등장했던가? 이 무렵 상주-함창-加恩은 친고려계 호족인 아자개 세력권이었다. 성주는 친고려 호족인 이충언의 근거지였다. 그리고 창녕과 함안에서 군림했던 호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락국기」에 적혀 있는 소가야는 고자군으로 불리었다. 이곳의 후삼국기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928년 “5월 경신에 康州 元甫 珍景 등이 古子郡으로 양곡을 운반하는데 진훤이 몰래 군대를 보내 康州를 습격하자 珍景 등이 돌아와 싸웠으나 죽은 자가 300여 인이었다. 將軍 有文이 진훤에게 항복했다²⁹⁾”는 것이다. 강주(진주)와 고자군(고성)은 친고려적인 호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가야인 고자군은 940년(태조 23)에 이름을 고친 5가야에는 속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928년에 강주와 고자군의 호족들이 후백제에 항복

26) 『新增東國輿地勝覽』권29, 慶尙道 咸昌縣 建置沿革. “本古寧伽倻國[詳見金海府山川下]新羅取之 爲古冬攢郡[一云古陵]景德王改古寧”

27)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157쪽.

28)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73쪽.

29) 『高麗史』권1, 태조 11년 5월 조. “五月 庚申 康州元甫珍景等運粮于古子郡 甄萱潛師 襲康州 珍景等還戰敗 死者三百餘人 將軍有文降于萱”

하여 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훤의 둘째 아들 양검이 후백제 멸망 때까지 강주도독으로 재임했었다. 비록 단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6가야나 5가야 등이 정치적인 의미로 선정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고려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기록 속의 가야는, 삼국시대 당시의 실체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가락국기」의 공간적 범위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존재하였는가? 일단 이 범위 안에는 가라 인 김해와 고령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임나의 범주에 속한 다음의 諸國들이 속하였다.

h-1. 「광개토왕릉비문」: 「任那加羅」³⁰⁾

h-2. 『일본서기』(성왕이 왜에 보낸 국서): 「任那諸國」³¹⁾

h-3. 『삼국사기』(强首의 자신 소개): 任那加良人³²⁾

h-4. 『일본서기』: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말한다. 개별적으로는 加羅國 … 합해서 10國이다.³³⁾”

h-5. 『通典』: “(新羅) … 遂致强盛 因襲加羅 · 任那諸國滅之³⁴⁾”

h-6. 『翰苑』: “地總任那³⁵⁾”

h-7. 『翰苑』: “지금 신라의耆老들에게 물었더니 ‘加羅와 任那是 옛적에 신라에 멸한 바 되었다. 그 故地를 지금은 아울러 나라 남쪽 700~800리에 있다’고 말한다.³⁶⁾

『한원』에는 신라의 강역과 관련해 “地總任那”라고 했다(h- 6). 즉 신라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땅은 임나를 합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가야 영역 전체를 ‘임나’로 일컬었다. 그렇지만 加羅와 任那是 별개의 정치 세력이요(h- 7), 임나 범위 안에 가라가 존재했다(h- 1).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 가야 영역으로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 안에 모두 소재한 것은 분명하다.

정리해 보면 임나라는 이름의 廣義의 정치체 범주에 2개국으로 구성된 加羅聯盟이 존재하였다. 게다가 소위 6가야를 훨씬 상회하는 소국들이 列立한 상황이었다. 「가락국기」에서 언급한 공간적 범위에서는 점재적으로 소재한 6개국도 그 공간 전체를 물리적으로는 상쇄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가락국기」에서는 가야의 서북쪽 경계를 지리산이라고 하였지만, 소백산맥 서편인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30) 李道學,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왕릉비문』(서경문화사, 2020), 35쪽.

31) 『日本書紀』권19, 欽明 15년 12월 조,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早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伯同心”

32) 『三國史記』권46, 强首傳.

33) 『日本書紀』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浪國 稔禮國 合十國]”

34) 『通典』권185, 邊防1, 新羅.

35) 『翰苑』蕃夷部, 新羅.

36) 『翰苑』蕃夷部, 新羅, “今訊新羅耆老云 加羅 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도 ‘가야’가 확인되었다³⁷⁾. 『가락국기』의 공간적 범주를 넘어선 지역까지 가야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가야’ 호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미 널리 사용되어 굳어진 개념이기에 혼동을 없애려는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3. 李瀼이 포착한 전북가야의 존재, 그리고 慕韓

현재 ‘전북가야’의 존재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그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미 실학의 祖宗格인 星湖 李瀼(1681~1763)도 기실 전북가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처음 언급하였다.

i. 신라는 처음에는 낙동강 동쪽에 있었고, 그 서쪽은 6가야의 땅인데, 변한은 그 남쪽에 있었다. 반드시 이곳은 지리산 남쪽의 여러 고을로 아마도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 여러 고을에 걸쳐 있었을 것이다. … 혹은 지금 전라도 동남쪽 여러 고을이 모두 변한의 땅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전해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신라의 서쪽은 6가야가 되고, 또 그(6가야) 서남쪽이 변한이니, 이것은 의심이 없다³⁸⁾.

성호 이익은 6가야와 변한을 구분하였다. 즉 6가야 서남쪽에 소재한 변한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한은 전라도 동남쪽에도 걸쳤다고 했다. 변한의 소재지가 전라도까지 미쳤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피력하였다. 성호가 언급한 변한은 그 후신인 임나제국에 해당한다. 이렇듯 성호가 상정한 임나제국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전북 동부와 전남 동남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도 부합하고 있다. 놀랄만한 혜안으로 보인다.

『일본서기』 주석서인 『釋日本紀』에서는 “哆利國·伴跛國：양국은 임나국의 別種이다³⁹⁾”고 하였다. 여기서 哆利國은 任那4縣인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⁴⁰⁾·가운데 上哆唎·下哆唎를 가리킨다. 이곳은 “此四縣 近連百濟” 즉 백제와 접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임나4현은 백제의 동부 지역을 가리킨다. 이곳은 섬진강 수계의 서편으로 상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사실은 임나제국의 西界가 『가락국기』에서 언급한 지리산을 넘었음을 뜻한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임나제국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慕韓의 존재가 상기된다. 모한은 왜왕 武가 유송에 책봉을 요청한 기록(j-1~3) 속에서

37) 박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1~33쪽.

38) 『星湖全集』제26권, 書, 答安百順 丙子. “新羅始有洛東江以東 其西卽六伽倻之地 而弁韓在其南 必是智異以南諸郡 恐跨居今慶尙全羅諸郡…或今全羅道東南諸郡皆弁韓之地耶 此可以傳疑”

39) 『釋日本紀』13, 述義9, 第17, 繼體. “哆利國·伴跛國：兩國者 任那國之別種也”

40) 『日本書紀』권17, 繼體 6년 조.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 娑陀 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다음과 같이 보인다.

- j-1. 426년 : 使持節都督 倭 百濟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 j-2. 451년 : 使持節都督 倭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將軍
- j-3. 478년 : 使持節都督 倭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⁴¹⁾

위의 모한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다만 일본 연구자 가운데 모한을 백제에 포함되지 않은 마한 세력이나 영산강유역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⁴²⁾.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국 왕의 작호 요청에 3회나 등장한 이래 660년 무렵 집필된 『한원』에서도 그 존재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 k. 이러한 신라는 진한 변한 24국 및 임나 가라 慕韓의 땅에 있었다⁴³⁾.

모한은 3세기 중엽을 시간적 下限으로 하는 『삼국지』 단계 이후 5세기 초 이전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모한은 가공의 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모한은 최종적으로는 신라 영역이 되었다. 신라가 점령한 지역으로 임나 가라 모한이 나란히 등장한다. 이로 볼 때 모한은 백제와 임나제국 사이에 소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전북가야를 모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가야연맹의 정치적 범위와 統攝 程度

가야의 정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4세기 이전에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5세기 이후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했다는 단일연맹체론이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김해, 후기에는 고령이 맹주였다고 못을 박았다⁴⁴⁾. 단일연맹체론이 정설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분묘의 축조 방법이나 묘곽(실)의 배치 상태와 토기 양식을 놓고 볼 때 가야에는 통일된 정치·문화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관가야·대가야·아라가야·소가야 등의 주도 아래 지역별로 독자적인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지역연맹체론이 대두하였다. 혹은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가 고대국가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⁴⁵⁾.

그러한 대가야는 고령에서 일어나 세력을 확장하여 5세기 후반 이후 전성기에는 남으로 황강 수계의

41) 『宋書』권97, 夷蠻傳, 倭國 條

42) 東潮, 「倭と榮山江流域 - 倭韓の前方後円墳をめぐって -」『朝鮮學報』179(朝鮮學會, 1996), 67~112쪽.

43) 『翰苑』蕃夷部 新羅, “此新羅有辰韓 卞韓二十四國及任那 加羅 慕韓之地也”

4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비상교육, 2015), 30쪽, 34쪽.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출판, 2015), 28쪽.

45)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383쪽.

합천과 남강 수계의 산청, 서로는 소백산맥 동쪽의 거창, 함양과 하동은 물론 그 서쪽인 금강 상류의 진안 장수, 섬진강 건너편인 임실 남원 순천 여수에 이르는 호남 동부 지역에 걸쳐 대 권역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⁴⁶⁾.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야는 단일연맹체도 아니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도 않았다. 단일연맹체였다면 연맹의 본질인 戒祀 공동체여야만 한다⁴⁷⁾. 그런데 다음의 포상팔국의 난 기사를 제시함으로써도 가라 중심의 단일연맹체설의 불가함을 목도할 수 있다.

1.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략했다. 加羅 王子가 와서 구원을 청했다⁴⁸⁾.

위의 전쟁 기사를 통해 加羅와 포상팔국은 서로 별개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加羅聯盟 안에 포상팔국이 소재한 것은 아니었다. 포상팔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古史浦國(古自國)·骨浦國·柒浦國·保羅國·史勿國 등이었다⁴⁹⁾. 이들은 경상남도 고성과 마산 칠원 사천을 포함하여 해안 포구에 소재한 교역 연합체였다⁵⁰⁾. 포상팔국은 加羅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세력이었다. 여기서 포상8국이 가라를 침공한 시점이 중요하다⁵¹⁾. 그러나 분명한 것은 古史浦國이 후대에 ‘소가야’로 불린 것 외에는 나머지 포상7국은 가야 호칭과는 관련도 없어 보인다.

물론 포상팔국의 난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4세기 중반 이후에 가라와 포상팔국의 이해 충돌은 분명하다. 이때 가라가 이해를 조정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라가 맹주가 아니었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이들은, 적어도 戒祀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반증이 다. 이 사실은 단일연맹체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대가가 중심의 단일연맹체였다면 戒祀 공동체의 ‘祀’ 즉 제사 의례와 관련한 葬墓 의례에서 동질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야 지역에서는 영산강유역이나 왜계 분묘 축조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⁵²⁾. 동질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고대국가론은 율령의 반포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영역국가에 걸맞게 고분 규제가 작동해야 한다⁵³⁾. 그러나 가야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을 상정할만한 고분의 규격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토기 명에 새겨진 ‘大王’이나 ‘下部’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文字類를 집권화의 지표로 삼기 이전에, 국호 명기도

46)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384~385쪽.

47) 삼한이 戒祀 공동체였음은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一志社, 1995), 208쪽.

48) 『三國史記』권2, 나해 기사 14년 조.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49) 『三國史記』권48, 勿稽子傳. 『三國遺事』 권5, 避隱, 勿稽子.

50) 김경림,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47(부경역사연구소, 2020), 20쪽.

51)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3세기 초반~6세기 후반까지로 설정하는 등 시간 폭이 다양하다(백승옥,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주류성, 2011), 119~120쪽.

52)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395쪽.

53) 이에 대해서는 山本孝文,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서경문화사, 2006), 68~200쪽이 참고된다.

없는 ‘大王’과 ‘下部’ 文字類가 가야토기에 새겨져 있다고 하여 가야가 대왕을 칭하거나, 도성 내의 5部 및 部체제와 관련 지을 수는 없다. ‘大王’ 類 표기는 풍납동토성의 ‘大夫’를 비롯하여 가야와 신라 토기 ‘大干’ 類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인들의 경우 部名 표시가 자주 보인다. 그럼에도 언필칭 가야, 특히 대가야인 加羅人들의 경우 部名이 표시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국적 불명의 文字類를 과신하여 가야의 사회체제를 속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자류가 대가야의 대왕 체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가야 중심의 집권화를 논하려면 신라처럼 토기 양상의 정형성부터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를 중심으로 양식적인 통일성이 강한 신라토기와는 다르다. 가야토기는 전체를 하나의 양식으로 묶을 수 없을 만큼 지역색이 강하여 사실상 몇 개의 지역 양식으로 존재하였다. 즉 고령 양식·진주·고성 양식·함안 양식으로 구분하여 대가야·소가야·아라가야의 정치적 세력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⁵⁴⁾. 신라 토기는 齊一性을 확보했지만, 가아는 분할적인 지역 양식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冠帽의 경우도 신라는 齊一性을 지녔지만, 가아는 다양성을 지녔다. 이 같은 가야 관모의 불통일성은 지역 지배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반증이었다⁵⁵⁾. 이렇듯 齊一性 없이 통일되지 않은 토기와 관모 양상은 가야의 집권화 징표는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본다.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모두 등장하는 多羅는 가라의 바로 남쪽인 함천 쌍책면을 거점으로 하였다. 이 곳의 옥전 고분군에서 520년대를 상한으로 하여 6세기 중엽까지 조성된 고분에서 신라계 묘제인 황구식 석실묘가 돌연히 등장한다. 부장품 가운데 피장자의 정체성 지표가 되는 出字形 寶冠과 把手附杯는 신라계였다⁵⁶⁾. 특히 M6호분에 부장된 出字形 寶冠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대한 것이므로, 문화 교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무렵 다라국 사회에 지대한 변화가 따랐음을 뜻하는 징표일 수 있다. 즉 다라가 근접한 가라를 제끼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신라와 정치적으로 밀착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옥전M1호분의 로만글라스는 신라의 하사품이었다⁵⁷⁾.

실제 다라는 가라 사신과 더불어 541년(欽明 2)에 임나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독자 사신을 파견했다. 다라는 544년(欽明 5)에도 가라와 나란히 사신을 회의에 보냈다. 그리고 다라는 562년에 멸망할 당시의 가라나 안라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남은 임나 10국에 속했다(f). 이렇듯 다라국은 가라와 지리적으로 접했지만 멸망할 때까지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다라는 가라에 종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백제(旁小國)와 신라(出字形 寶冠)의 입김이 함께 미치는 독자 정치체였다. 그러므로 대가야 분모 양식과 토기의 존재를 정치적 영향력과 일치시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파형 동검 문화권을 고조선의 세력권이나 영토와 결부 짓지 않은 사례와 동일하다.

54)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411쪽.

55) 咸舜燮, 「新羅와 加耶의 冠에 대한 序說」 『大加耶와 周邊諸國』(학술문화사, 2002), 146쪽.

56)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해안, 2007), 120~121쪽, 228쪽, 237~238쪽, 244쪽.

57) 신가영, 「대가야 멸망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주류성, 2018), 295~296쪽.

거듭 예를 들어 본다. 장수 삼고리 등의 가야계 高塚의 전성기가 6세기 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⁵⁸⁾. 이 사실은 장수 지역 고총과 부장품은 가야계이지만 가라 즉 대가야 정치 세력권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장수 지역이 정치적으로 대가야 영향권에 속했다면 고총의 쇠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총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장수 지역을 대가야에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장수 지역 가야계 고총은 고유의 지역성을 지녔다. 즉 봉분은 장타원형이고, 호석을 두루지 않았고, 고성 송학동 고분처럼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연접분이고,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를 조성한 후 다시 파내어 매장 시설을 마련하였고, 主石槨 주변에 다곽식 순장곽을 배치한 형태였다⁵⁹⁾. 이러한 묘제상의 특징은 대가야에 종속되지 않은 반파국 자체의 위상을 웅변해준다.

Ⅲ. 정설의 峻嶺을 뛰어넘어 도달한 반파국=장수 지역 가야

1. 반파국=대가야설 해체의 序曲과 壁

『일본서기』에서 513년~515년까지 단 3년 간에 걸쳐 등장하는 정치체가 반파국이다. 반파국이 사서에 등장하게 된 것은 기문이나 다사진과 같은 전략적 要地에 대한 장악과 관련해서 백제=왜와 갈등하였고, 심지어 신라까지 공격해서였다. 반파국은 돌연히 등장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백제=왜와 이해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분쟁의 주체가 되었을 정도로 강성하였다. 이러한 반파국의 중심 거점과 성격, 그리고 영역 반경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반파국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성주, 전라북도 남원 등 여러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반파국을 대가야 고령과 等値시켜 보는 견해가 거의 정설이다. 백과사전류를 클릭해 보면 “대가야(大伽倻) 또는 반파국(伴跛國)은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지역에 있던 6가야 중 하나다(위키백과)” · “왜국 조정에 파견하여 반파국(伴跛國 : 현재 경상북도 고령)이 백제의 기문국(己汶國 : 현재 전라북도 남원·임실)을 약탈·점령하였다면서 이를 돌려주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반파국 : 경상북도 고령군 지역에 있었던 가야제국 중 하나. 흔히 삼국유사의 표현인 대가야로 알려져 있으며 ……(나무위키)”라고 단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설처럼 행세하는 반파국=대가야설에 대해서는 차분한 검증이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반파국=변진 반로국의 일치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자의 일치 여부는 『삼국지』 판본상에서 반로국이 반파국의 誤刻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파국의 변진 소속,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대가야로

58) 박장근,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138(2017), 50쪽.

59)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59(2018), 35~66쪽.

의 성장도 운위하기 어렵다. 반파국이 대가야로 성장했다면, 어떤 계기로 또 어느 시점에서 ‘加羅’나 ‘대가야’를 표방했는지 납득시켜야 한다. 반파국은 513~515년에만 등장하는데 왜 이때만 반파국으로 등장하는지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반파국이 대가야의 卑稱이라면 伴波國의 ‘伴波’와 ‘양직공도’의 ‘叛波’ 표기가 차이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두 사료상의 반파가 모두 비칭인지? 아니면 ‘양직공도’만 비칭인지? 이러한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만 반파국은 대가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던가? 이와 관련해 가야사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회가 주목된다.

“대체적으로 가야사를 구명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없이 은근히 받아들이고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함께 면밀히 검토해볼 여지를 가지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외면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성을 짙게 보여 왔다(21쪽).” · “……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인 작업이었으나 대부분 건너뛴 채 오직 그럴듯하다는 막연한 느낌만을 갖고 다수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기정사실화 하다시피에 이른 것이었다(25쪽).” · “근거가 박약하고 모순되며, 논리가 대단히 허술한 주장임에도 기존 연구자들은 논쟁을 거치지 않고 합세해서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묵시적 동의를 함으로써 고착시켜 버리고 만 것이었다. …… 무조건 합심하여 방어하려함으로써 문제 제기가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만 것이 근본적 문제였다(27쪽).” · “그런 분위기를 통하여 볼 때 가야사 연구자들간에 일종의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35쪽)⁶⁰⁾.”

위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통념을 단합하여 고수하는 바람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침투할 여지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보돈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금세기에 제기된 반파국=장수 지역 가야설은 대단히 돌발적이며 충격적인 학설에 속한다. 그러면 반파국=장수설 논지에 대한 다음의 심사자 평가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伴波와 加羅, 『삼국지』 동이전 변진조에 보이는 伴路國은 서로 동일하다는 통설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伴波=加羅=伴路國’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식의 글만 검토 대상으로 삼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기왕에도 반파와 가라를 별개로 인식한 주장(김현구, 「백제의 가야진출에 관한 일고찰」 『동양사학연구』 70, 2000; 백승욱, 「기문·대사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가라국과 백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대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사료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주를 다는 등 수정·보완한 다음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0) 주보돈,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전망』(주류성, 2018), 35쪽.

위의 글은 어떤 심사자의 심사 총평 전문이다. 심사자는 ‘伴跋=加羅=伴路國’라는 통설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에 선 연구자들이 많은데, 왜 김태식만 거론하여 비판했냐면서 김현구와 백승옥을 특정하여 친절하게 출전까지 밝혀주었다. 이후 해당 논문은 머리말의 연구사 검토에서 김현구와 백승옥을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계제 7년·8년·9년 조라는 한정된 시기에 기문 관련 영유권 분쟁이라는 특정한 사안에만 등장하는 伴跋가 과연 계제 23년 조에 등장하는 加羅와 동일한지 여부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기존의 半路國=伴跋=叛波=星州라는 주장에서, 伴跋=加羅이므로, 半路國도 高靈이라는 주장이 거의 정설로 자리잡았다(각주: 이를 집대성하여 체계화시킨 김태식의 연구 성과는 “반파국=가라국=대가야는 동일한 국가이다[金泰植,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378쪽]”는 데서도 최근까지 다시금 확인된다). 그러나 비약과 억측이 많은 관계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 분명하지만, “한국의 가야사 연구자들도 대부분 이를 계승하고 있다(각주: 金鉉球, 『百濟의 加耶進出에 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70, 2000, 121쪽)”는 현실이다.

김현구는 伴跋=加羅說의 盲點을 비판하면서, 반파 위치의 열쇠격인 帶沙와 己汶을 낙동강유역으로 비정하는 신설을 제기했다(각주: 金鉉球, 같은 논문, 115~137쪽). 이 설에는 傾聽할만한 점도 있지만, 반파를 성주=本彼로 비정하는 바람에 舊說로 회귀한 느낌을 주었다. 대가야=반파국설에 대해서는 백승옥도 의문을 제기했다(각주: 白承玉, 『加耶各國史研究』, 해안, 2003, 123~127쪽). 그러면서 이후 백승옥은 김현구의 주장을 비판했지만(각주: 白承玉, 『己汶·帶沙의 位置 比定과 6세기 前半代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07, 217~219쪽) 그 역시 반파를 성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힘입어 반파를 남원과 인접한 함양·운봉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각주: 全榮來, 『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75쪽). 이후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대한 축적된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반파를 남원이나 장수로 각각 지목하였다(각주: 대표적인 최근의 연구 성과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 2017 ;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 2018). 그러나 伴跋=加羅說을 부정하는 이러한 논의는 존재감이 없는 說로 묻히고 말았다⁶¹⁾.

논문에서 반파국=반로국=대가야설은 그야말로 ‘집대성하여 체계화시킨 김태식의 연구 성과’였기에 집중 거론한 것이다. 이에 반해 김현구나 백승옥은 반파국=성주설 논자들이었다. 이 설은 현재 거의 주목받지 못한 ‘舊說’에 속한다. 해당 논문의 초점은 학계의 거의 정설인 반파국=반로국=대가야설에 대한 검증이었다. 그럼에도 “(김현구와 백승옥의 논문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치명적은 문제 ……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사실상의 ‘사형 구형’을 할 사안이던가? 심사자의 지적대로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김현구와 백승옥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논지상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작 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반파국=장수설에 대

61) 이도학,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호서사학회, 2019), 49~51쪽.

해서는 단 한 곳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자설과 반대되는 논지를 반박하지 못한 결정적 증좌였다. 그랬기에 논지와 직접 관련 없는 주장으로 트집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고도 남는다. 어쨌든 그의 심사 평가는 학계 현실에 대한 후보론의 진단과 결부되어 볼 때 杞憂가 아니라 현실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본 논문은 다른 두 분 심사자들의 우호적인 평가로 인해 곧바로 ‘수정 후 게재’되었다.

2. 반파국=성주=고령설의 기초적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이 鼎立하기 전까지 술한 小國들이 산재하였다. 주지하듯이 삼한 가운데 마한제국과 진한제국이 백제와 신라로 각각 통합되었다. 그런데 변한제국만 여전히 소국들이 列立한 상황이었다. 변한제국 간의 優劣이 드러난 6세기 초였다. 이때 3년 간에 걸친 백제·왜·신라를 상대한 전쟁 속에서 未聞의 국가가 돌연히 등장하였다. 그리고는 문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함께 보이는 반파국이었다.

반파국의 소재지를 성주나 고령으로 지목한 견해가 오랜 동안 통설로 좌정하였다. 그러나 문헌적인 검증을 통해 반파국=성주·고령설의 부당성을 먼저 알리고자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 조에는 변한과 진한 소국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伴跋國과 연결 짓는 대상이 半路國이었다. 半路國의 존재는 다음에 인용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 조에서 ‘弁辰半路國’이 확인된다.

m-1.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呂倍

m-2. 已柢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

m-3.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위의 인용에서 m-1에 적혀 있는 ‘弁辰亦十二國’의 ‘弁辰’은 변한을 가리킨다. 그리고 m-2에 적혀 있는 소국들은 중복된 馬延國과 軍彌國을 빼면 24개 국이다. m-3에서 ‘弁·辰韓合二十四國’라고 하였듯이 m-2에는 변한과 진한의 소국들이 섞여 있다. 여기서 ‘弁辰△△國’의 경우는 변한에 속한 소국을 가리킨다. 반면 소속 표시 없이 적혀 있는 소국은 진한을 가리키고 있다. 가령 “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에 보이는 사로국은 진한의 사로국이요 곧 신라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弁辰半路國은 변한의 반로국인 것이다.

그런데 伴波國의 기원을 변진 소국인 半路國에서 찾았다. 즉 半路國을 伴波國의 誤記로 간주한 것이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첫째 『삼국지』나 『후한서』의 諸 板本은 물론이고, 弁辰諸國을 全寫한 후대 사서 어디에도 伴波國은 확인된 바 없다. 모두 半路國으로만 적혀 있다. 半路가 伴波의 오기라면 『삼국지』 여러 판본에서도 伴波와 근사한 국명이 보여야 한다. 판본상으로나마 최소한 半路國이 아닐 가능성이 엿보여야 하는 것이다. 가령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의 東明 설화에 등장하는 ‘橐離之國’의 ‘橐’字만 해도 판본에 따라 ‘豪’·‘高’·‘索’·‘膏’·‘橐’ 등으로 나오고 있다⁶³⁾. 총 6字의 異記가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삼국지』의 畧한 판본들은 한결같이 半路國에서 벗어나지 않았다⁶⁴⁾. 따라서 半路國은 伴波國의 誤刻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伴波와의 관련도 희박해졌다⁶⁵⁾. 오히려 반로국을 포상 팔국의 하나인 保羅國(發羅?)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있었다⁶⁶⁾.

둘째 『한원』의 弁辰 관련 조목 主文에서 “國苞資路”라고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의 ‘苞’는 ‘밀동’이나 ‘뿌리’의 뜻이 적합하다. 『詩經』에서 “한 그루터기에 난 세 개의 싹 苞有三蘖”이라는 용례가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國은 資·路를 뿌리로 한다”고 해석된다. 변진제국의 古資彌凍國·甘路國·戶路國 등을 염두에 두고, ‘資’와 ‘路’는 변진제국의 대표 國名을 가리킨다는 뜻이다⁶⁷⁾. 그렇다면 半路國이 伴波國의 오기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셋째, 『삼국지』의 고령 지역 정치 세력의 원 표기가 伴波國 혹은 叛波國이었다면 납득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한다. 통설처럼 ‘반파’가 멸칭 국호라면 고령 세력의 자칭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삼한제국 가운데 유독 고령 세력에게만 악의적인 표기를 적용했는지 해명이 필요해진다. 내륙의 고령 세력이 중국 군현과 특별히 접촉하여 악연을 맺었을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이 무렵 고령 세력은 『삼국지』에서 두각을 나타낼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⁶⁸⁾.

반파는 삼국시대 장수군의 행정지명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논거가 제시되었다⁶⁹⁾. 반파국과 대가야가 서로 별개의 세력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62)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295쪽, 402쪽.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46쪽.

63)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伍』(上海古籍出版社, 2012), 2220~2221쪽.

6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증세사연구소, 『中國正史東夷傳校勘』(2018), 41쪽.

65) 李道學, 『伴波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90(2019), 55~56쪽.

66) 유우창, 「가야사 연구의 동향」 『지역과 역사』44(부경역사연구소, 2019), 166쪽.

67) 湯淺幸孫 校釋, 『翰苑校釋』(國書刊行會, 1983), 97쪽.

68) 田中俊明은 반파국의 소재지를 고령군 성산면으로 비정했다. 그는 “본래 고령군 성산면에 남아 있던 ‘本彼’라는 고명이 고려시대에 해당 지역의 중심이었던 성주군 성주읍의 고명인 것처럼 오해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45쪽)”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순전히 자의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권34, 地理1, 新羅, 星山郡 條)”라고 하였듯이, 本彼縣에 연원을 둔 경산부는 지금의 성주군 성주읍이다. 게다가 지금의 성산면은 1906년에 고령군에 편입되었고, 성산면 지명은 1914년에 생겨났다. 그러니 성산면 지명의 연원이 경덕왕대 星山郡까지 소급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 뿐 아니라 2020년 12월 14일 오전에 성산면사무소의 담당 직원 손정훈에게 문의했더니 성산면에는 ‘본피’ 지명은 없다고 했다. 田中俊明의 허위 기술이 드러난 것이다.

69) 李道學, 『伴波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90(2019)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이도학,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전북문화살롱』22(전북문화살롱, 2020).

즉 고령의 반파국이 5세기 후반에는 ‘대가야’를 표방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그 이전에 반파국이 존재한 근거가 없다. 479년에 가라는 南齊의 책봉국이었기에 백제 ‘旁小國’인 叛波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반파국은 ‘임나국의 別種(『석일본기』)’이었기에 本種인 가라국과는 무관하다. 가라와 반파국이 동일한 국가라면 『일본서기』상 훈독이 동일해야 한다. 加羅는 훈독이 ‘가라カラ’이지만, 반파는 ‘하해ハヘ’였다. 따라서 양자는 상이한 별개의 국가로 드러난다. 반면 장수군 일원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伯海의 『전운옥편』 음인 ‘파해’는, 반파 음가인 ‘하해’와 연결되고, ‘하해’에 탁음을 붙이면 ‘바ヘ’ 즉 ‘파해’가 된다. 이렇듯 반파국은 『삼국사기』에서 지금의 장수군 장계면의 백제 때 행정지명인 ‘백해’와 연결된다⁷⁰⁾.

3. 烽候를 통해 본 伴波國의 범위와 중심

반파와 가라를 동일한 세력으로 일치시킨 견해가 거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꼼꼼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반파가 加羅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關鍵을 제기해 본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다음 기사에 보이는 ‘烽候’의 소재지였다.

n. 3월에 伴波가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⁷¹⁾.

위의 기사에 보이는 문구 가운데 봉화를 올리는 곳인 ‘烽候’의 존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봉화 기록은 허황옥 도래 기록 속에 등장한다⁷²⁾. 물론 이 기록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삼국시대에 봉화가 존재한 사실이다. 6세기대 한씨미녀와 고구려 안장왕과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王逢縣과 達乙省縣 지명 유래가 말해주고 있다. 즉 『삼국사기』에서 “達乙省縣：漢氏美女가 高山 마루에서 烽火를 피워 安臧王을 맞이한 곳인 까닭에, 뒤에 高峰이라 이름했다⁷³⁾”고 하여 봉화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신라 진평왕대(재위. 579~632)에도 “왜군이 왔다. 횃불을 사르라 변방의 무리여⁷⁴⁾”라며 봉화로 지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등장한다. 그리고 김유신의 星浮山 전설에 횃불이 보인다⁷⁵⁾. 이러한 기록들을 놓고 볼 때 삼국시대 봉화의 존재는 확인이 된다.

70)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호남고고학회, 2020), 55~65쪽.

71) 『日本書紀』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波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經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駭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72) 『三國遺事』권2, 紀異, 駕洛國記. “忽自海之西南隅掛緋帆張茜旗而指乎北 留天等先舉火於島上”

73) 『三國史記』권37, 雜志, 地理4, 한신주, 달을성현 조. “達乙省縣 漢氏美女 於高山頭點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峰”

74) 『三國遺事』권5, 感通, 融天師 慧星歌－眞平王代.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敷耶”

75) 『三國遺事』권1, 紀異, 太宗春秋公. “京城有一人謀求官命其子作高炬夜登此山舉之……”

그런데 烽候 곧 봉화대는 고령을 비롯한 加羅 일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⁷⁶⁾. 반면 전라북도 장수를 비롯한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110여 개소가 배치되었다⁷⁷⁾. 특히 120여 기의 가야계 古塚이 밀집된 진안고원의 장수권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었고, 또 그곳을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동부 지역 봉수의 설립 주체는 장수 지역 가야와의 관련성 뿐 아니라 독자성을 대변해준다. 이 사실은 왜에 대비하여 봉화대를 축조한 적도 있는 伴跋가 고령의 加羅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이다⁷⁸⁾.

현재까지 드러난 110여 곳에 이르는 봉화망은 동으로 함양과 연결되는 육십령과 치재 이남, 서로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남으로는 임실을 넘어 순창 방면과 백두대간 운봉 이남 구례, 북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과 논산 이남 및 익산 동쪽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봉화는 放射狀을 띄지만 종착지가 있게 마련이다. 봉화의 종착지는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봉화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봉화의 운영은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被侵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⁷⁹⁾. 물론 加羅의 거점인 고령에도 망산성(망산 봉수) · 의봉산성(이부로산 봉수) · 봉화산성(말응덕산 봉수) · 미송산성(미송산 봉수) 안에서 봉수지가 확인되었다⁸⁰⁾. 그런데 이러한 봉수지는 모두 조선시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론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전라북도 지역 봉화망은 단일한 정치 세력에 속했음을 반증한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확인된 110여 곳의 봉화대는 단일 정치체의 성립을 뜻하는 징표였다. 이러한 정치체의 등장은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o. 임나국에서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 · 中巴汶 · 下巴汶입니다. 지방이 3백 리인데,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臣은 장군에게 영을 내려 이곳을

76) 반파=장수설의 중요 근거가 되는 ‘置烽候邸閣’ 등의 기사는 중국 고전 등에 의해 윤색되었을 수 있으므로, “置烽候邸閣”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광개토왕릉비문」에도 중국 고전에 의해 가탁된 글귀들이 상당히 보인다. 문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 『일본서기』에서도 由緒를 간직한 高雅한 문장으로 꾸며진 사례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潤色이 팩트, 즉 사실 자체를 창작했느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접근하는 게 좋을 듯하다. 윤색의 사전적 의미는 “1.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되다 2. 어떤 사실을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과장과 미화가 덧 붙여지지만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置烽候邸閣’ 기사 역시 꾸며져 품격 있게 치장한 글귀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烽候’가 설치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이도학, 「백승옥, 반파국 위치 재론 : 토론문」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국립중앙박물관, 2019), 187~188쪽).

77)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59(2018), 90~107쪽.

78)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2011), 95쪽.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41(2012), 82~84쪽.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57(2017), 17쪽.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59(2018), 104쪽.

79)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韓國古代史研究』63(2011), 95쪽.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41(2012), 82~84쪽.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57(2017), 17쪽.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59(2018), 104쪽.

80) 정동락,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 현황」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4), 179쪽.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部가 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천황이 크게 기뻐했다⁸¹⁾.

위의 巴文은 『續日本後紀』에 따라 ‘己文’으로 바로 잡고 있다⁸²⁾. 869년에 저술된 『속일본후기』의 837년 해당 조목에는 ‘三己汶’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p. 己未 …… 右京人 左京亮 從5位上 吉田宿禰書主, 越中介 從5位下 吉田宿禰高世 등에게 興世朝臣의 성을 내려 주었다. 시조 鹽乘津은 倭人이었는데, 후에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鹽乘津의 8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의 아우 少尙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잇달아 우리 조정에 왔다. 대대로 의술을 전수하였고 아울러 문예에 통달하였다. 자손은 奈良京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의 성을 주었다⁸³⁾.

三己汶은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을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양직공도』에도 백제 곶의 소국 가운데 ‘상기문’이 보인다. 따라서 기문이라는 지역을 3곳으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원』에서 『괄지지』를 인용한 백제의 江에 대한 다음 서술이 유의된다.

q-1. 웅진하의 근원은 나라 東界에서 나와 서남으로 흐르다가, 나라 북쪽으로 백리를 지나,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넓은 곳은 300보이며, 그 물은 지극히 맑다.

q-2.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다. 근원은 그 나라 남쪽의 산[南山]에서 나와 동남으로 흘러 大海에 들어간다. 강 안의 水族들은 중국과 동일하다⁸⁴⁾.

사비성 도읍기 백제 영역에 소재한 2곳의 大水를 언급했다. 당시 백제 영역에서 대수는 금강과 영산강, 그리고 섬진강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영산강은 수계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을 수 없다. 반면 q-1의 웅진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의 금강을 가리킨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다시금 전라북도를 지나 서해로 들어가는 수계를 비교적 정

81)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諡孝昭] 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 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 卽爲貴國之部也 天皇大悅 敕群卿 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 彦國菴命孫鹽垂津彦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

82) 朝鮮總督府, 『朝鮮史(日本史料)』(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5쪽.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吉川弘文館, 1982), 29쪽.

83) 『續日本後紀』권6, 仁明天皇 承化 4년 6월 己未 條. “己未 ……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84) 『翰苑』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 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확하게 묘사했다. 基汶河의 수계도 정확하게 묘사되었으리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이러한 기문하의 발원지인 南山의 후보로는 지리산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한원』백제 項에서 “또 나라 남쪽 경계에 霧五山이 있다”고 한 무오산이 지리산일 것이다⁸⁵⁾. 게다가 강의 흐름을 볼 때 기문하는 섬진강으로 지목된다⁸⁶⁾. 따라서 남산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장수 관내의 팔공산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섬진강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상기문 중기문 하기문의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상기문은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월산리 청계리 등의 中古塚 고분이 소재한 운봉고원 일원이 적합하다⁸⁷⁾.

4 막대한 제철산지와 高塚 그리고 봉화의 종점

고대국가의 잠재적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製鐵 산업의 흥륭 여부였다. 제철의 사전적 의미는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을 뽑아냄’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제철 관련 단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자. 반드시 제철 수요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富를 축적한 세력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鐵은 소금과 더불어 교역품으로서 구매 가치가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빈번한 내왕과 관련해 시장의 개설과 확장, 그리고 외지로부터의 공단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인구 집중, 운송 수단인 수로와 육로의 개척이 수반된다.

흔히들 가야하면 ‘철의 왕국’으로 운위한다. 여기서 ‘철의 왕국 가야’는 3세기 후반에 쓰여진 『삼국지』 魏書 동이전 韓條에 보이는 구절에 근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삼국지』 魏書 동이전 한 조에 기록된 “國出鐵 韓 濊 倭 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라는 기사를 변진 즉 변한과 결부 지었다.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중국정사 조선전』에서도 이와 같이 간주했다. 그러한 관계로 모든 교과서에서는 鐵의 왕국=변한=가야라는 등식을 설정하였다. 삼국에 치여 가뜩이나 존재감이 약하던 가야를 띄울 수 있는 소재로서는 이 만한 사료가 없었다. 이 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관계로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삼국지』 魏書 동이전 한 조의 製鐵 관련 기사는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진한에 해당되었다. 실제 중국의 후속 문헌들인 『후한서』나 『通典』 등에 따르면 모두 진한과 관련 지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역시 진한과 결부 지어 해석했다. 이 점은 20세기 연구자들의 인식에 앞서 존중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간과하고 말았다. 이와 엮어진 중요한 사실은 3세기 중반 이전 시기의 대규모 鐵場이 김해 일대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울산의 달천 철장 사용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엽 이전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이므로 『삼국지』의 서술 下限과도 부

85) 이도학, 『백제사비성시대연구』(일지사, 2010), 246쪽.

8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126쪽.

87)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2011), 99쪽. 전상학,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가야심포지움』(전북연구원, 2020. 10.16), 74~78쪽.

합한다. 게다가 이곳은 유통에 유리한 良港을 끼고 있다. 그리고 중국 郡縣이나 倭와 관계된 유물도 출토되었다. 이 사실은 달천철광의 鐵을 馬韓 濊 倭 뿐 아니라 낙랑군이나 대방군에 수출한 사실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따라서 거의 고정관념화된 ‘鐵의 王國 加耶’ 論은 차분하게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금관가야 즉 구야국은 철의 활발한 소비처였기에 須奈羅 素奈羅 金官 金海 등과 같은 이름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김해 지역에서 외래 유물의 밀집도가 높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삼국지』에 적혀 있듯이 김해 구야국은 우수한 寄港地였다. 대외교역의 중심지가 김해라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도 이는 배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해 지역은 철 유통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울산 鐵場에서는 중국과 일본 유물이 출토되었다. 良港을 끼고 있는 울산에서는 鐵 교역이 직접 이루어졌다. 반면 김해 철장에서는 대외교역 관련 유물이 보이지 않았다. 鐵產地에서 외래유물이 출토된 울산과는 이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었다. 요컨대 ‘國出鐵’은 外來人들의 產地 접근과 直輸入 사실을 가리키는 증좌였다. 김해를 통한 鐵 교역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直交易의 명백한 증거가 울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문헌 검증 결과 ‘國出鐵’은 김해 보다는 울산을 가리키는 지표로서 훨씬 유효하였다⁸⁸⁾.

이렇듯 가야의 중심인 김해나 고령은 ‘철의 왕국’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은 다른 지역의 막대한 철광에 의존하거나 탐을 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 산지이자 철의 왕국으로 제철유적이 무리지어 있다. 우리나라의 단일지역에서 그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⁸⁹⁾. 그리고 장계분지에서도 막대한 제철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철 제품에 대한 운송로 확보이다. 장수 지역은 금강과 섬진강 및 인접한 만경강 수계와 육십령이라는 육상 東西 교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철산업을 기반으로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되었다. 장수 동춘리 가야계 고층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을 보호한 鞭子가 출토되어, 장수 일원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당시에 철의 테크노밸리였음이 입증되었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 일대는 한마디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왕국이자 110여 개소의 봉화대로 상징되는 봉화왕국이었다. 장수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10여 개소의 봉화대는 줄곧 백제와 등을 맞댄 장수 세력이 그 생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했던 가야계 문화유산의 백미이다. 더욱이 장수군 제철유적을 사방에서 감시하듯이 배치되어, 당시에 봉화대가 장수 지역 제철유적의 방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⁰⁾. 최근에는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호암 봉화대에서 배수로까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자연 암반을 계단 형태로 다듬어 만든 登烽 시설도 드러났다.

88) 이도학,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가야 · 신라 · 백제의 鐵』(학연문화사, 2019), 67~68쪽.

89) 郭長根,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52(2013), 229쪽, 239쪽.

90) 이상의 서술은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57(2017), 22쪽.

반파가 국가 생존 차원에서 봉화를 운영하였을 때 그 대상은 자국을 위협하는 백제였다. 그런데 왜의 위협에 직면하자⁹¹⁾ 반파는 ‘烽候와 邸閣’을 침공로인 대사강 즉 섬진강의 중류 이남까지 확대시킨 의미로 해석된다. 차후에 조사가 확대된다면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반파가 국가 방어체계로서 봉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한다. 반파가 한 때 운봉고원의 남원이 포함된 기문을 점령한⁹²⁾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실제 남원 봉화산 남원 시루봉 남원 덕치리 봉화대는⁹³⁾ 이곳이 장수의 반파국에 속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봉화망은 동으로 함양과 연결되는 육십령과 치재 이남, 서로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 남으로는 임실을 넘어 순창 방면과 백두대간 운봉 이남 구례, 북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과 논산 이남 및 전라북도 완주와 익산 동쪽까지 미치고 있다⁹⁴⁾. 반파 영역 범위의 윤곽을 살필 수 있다.

모두 8갈래의 봉화로의 최종 정착지는 장수의 장계분지였다. 이곳이 장수 지역의 정치 거점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곳을 『일본서기』에서 봉후를 설치하고 백제와 왜에 대적했던 반파국으로 비정할 수 있는 不可易의 결정적 근거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단 1개소의 가야 봉화대도 확인된 바 없었다⁹⁵⁾. 그럼에도 伴跛=加羅說에 따라 봉화 축조의 주체를 대가야로 단정하여왔다. 그렇다면 烽火路가 高靈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⁹⁶⁾. 아울러 반파국은 격돌한 바 있었던 신라와도 영역을 접해야 했다⁹⁷⁾. 게다가 문헌 검토를 통해서도 장수 지역이 반파국 소재지로 밝혀졌다⁹⁸⁾.

실제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에는 추정 왕궁터와 더불어, 왕릉으로 추정되는 삼봉리 1호분에서는 수장층을 상징하는 환두대도의 부장을 상징할 수 있었다⁹⁹⁾. 추정 왕릉군인 삼봉리 고분군 외에 장수군 일원에는 240여 기의 중대형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하였다¹⁰⁰⁾.

91) 『日本書紀』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跛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經麻且奚・

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駭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92) 『日本書紀』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93)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6쪽.

94)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59(2018), 91쪽.

95)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28쪽.

96) 高靈 일대 산성 조사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성급한 주장을 거론하지만, 이곳은 전라북도 동부 지역보다 산성 조사가 진척된 곳이다. 그리고 가야 봉수에서 무기와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인 邸閣 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邸閣은 봉수 곁에 조성된 게 아니라 산성 안에 소재하였다.

97)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19~20쪽.

98) 李道學,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90(2019), 75~77쪽.

99)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24쪽.

100)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3쪽.

IV. 장수 지역 가야의 위상

장수 지역은 금강 수계의 발원지이고 섬진강 수계가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장수에는 동서 교통의 요지인 육십령이 소재하였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사이에 소재한 고개였다. 즉 “要害가 한 곳이니, 六十峴이다[縣의 동쪽에서 경상도 安陰으로 가는 指路이다]”¹⁰¹⁾고 알려졌다. 그리고 “六十峴: 縣의 북쪽 40리, 경상도 安陰縣의 경계에 있다. 신라 시대로부터 要害地로서 행인이 이곳에 이르면 늘 도적에게 약탈을 당하므로 반드시 60명이 되어야만 지나가고는 하였다. 이것이 이름이 되었다”¹⁰²⁾고 하였다. 장수 지역의 육상과 수상 교통로는 대외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런데 강대한 제철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반파국은 마한의 일원이었다. 장수 노곡리 수장층의 묘제인 분구묘는 마한에 연원을 두었다. 그러한 반파국은 백제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백제는 369년에 고해진(장진)에서부터 침미다례(해남)를 屠戮하고, 谷那(곡성)를 장악하며 휩쓸고 있었다.¹⁰³⁾ 장수읍 노하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토기 편년인 4세기 말경은 이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 때 반파국은 임나제국의 힘을 빌어 막고자 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加羅(대가야)를 軸으로 한 임나의 문화가 밀려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반파국을 다리국과 더불어 ‘임나국의 별종’이라고 했다. 임나 세력권의 변두리에 소재한 데다가 늦게 합류했기에 생겨난 인식이었다. 장수읍 노하리 고분군에서 4세기 말경에 가야토기가 처음 등장한다.¹⁰⁴⁾ 반파국과 임나와의 교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반파국은,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하여 6세기 초기에는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 장수 지역 정치체와 시점상으로도 부합한다.

막대한 제철자산을 배경으로 성장한 반파국은 장계리 8호분에 부장된 단야구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소형 단야구는 상징성을 지닌 부장용으로 보인다. 즉 권력의 세습을 뜻하는 징표로 해석되는 단야구를 통해 반파국 王者 권력의 안정성을 읽을 수 있다.

반파국의 강성은 기문에 대한 지배와 관련해 백제와 대결하는 국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때 반파국은 ‘珍寶’를 왜에 보냈다.¹⁰⁵⁾ 반파국은 왜를 자국편으로 당기기 위해 진귀한 문물을 보낸 것이다. 이 때 반파국은 백제의 물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낸 게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장수 삼고리 고분(삼고리 2-1석곽)에서 다색옥이 출토된 사실이 주목된다. 다색옥은 함평 신덕고분과 영

101) 『世宗實錄』권151, 지리지, 전라도 남원 도호부, 장수현. “要害一 六十峴[自縣東指慶尙道 安陰]”

102) 『新增東國輿地勝覽』권39, 장수현, 산천 조.

103)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一志社, 1995), 187쪽, 248-249쪽.

104) 광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23쪽.

105) 『日本書紀』권17, 繼體 7년 조,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跋既殿 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滯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遣戢支 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암 내동고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¹⁰⁶⁾ 그리고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백제와 신라 및 소가야 토기와 마찬가지로 토기가 부장되었다.¹⁰⁷⁾ 이러한 외국 문물의 집합은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의 산물로 보인다. 남원 월산리 고분에서는 중국제 청자 계수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에서는 중국 남조의 銅鏡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가야고분에서 제작한 복발형 투구와 역자형 철촉이 일본열도에서 상당수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반파국의 ‘珍寶’가 왜로 보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파국이 확보한 ‘珍寶’의 공급처로 백제를 지목하기는 어렵다. 양국은 경쟁과 대립 관계였을 뿐 아니라, 자국이 확보한 물품의 변별력과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상호 연관성은 희박하다. 반파국이 백제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왜로 보낸다면, 과연 기존의 백제 물품을 압도할 수 있는 ‘珍寶’일 수는 없다. 대가야의 지산동 고분에서도 오키나와 이남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광조개로 제작한 국자가 출토된 바 있다. 그렇다고 이와 동일한 남방산 국자 등이 백제에서 출토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동부 지역 출토 外産 물품들은 반파국이나 임나제국의 역량과 결부지어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¹⁰⁸⁾

6세기 초반에 반파국은 세력을 넓혀 확보하고자 한 다사진 즉 하동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백제-왜-신라-안라의 세력에 포위되었다. 이를 틈타 加羅가 반파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라 역시 백제의 東進을 막지 못하였다. 결국 반파국은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521년 이전에 백제에 종속되었고, 이후 백제 영역이 되어 소멸되었다.

V. 맺음말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가야계 묘제와 가야토기의 출토를 통해 가야라는 정치체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락국기」이래의 고정 통념에서 벗어나 소백산맥 서편에서 가야 문화가 진입했음을 알려주었다. 백제가 369년에 전라남도 남부 해안 지역에 정치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산간지대에 속한 장수 일원은 그 영향에서 일정 기간 비껴나 있었다. 반면에 장수 지역의 반파국은 제철을 배경으로 융창해 갔다. 그리고 철을 매개로 한 교역에 열을 올릴 수 있었다. 이와 맞물려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세력들이 육십령을 이용해 밀려들어왔다.

백제의 동진에 대비한 자구책 일환으로 장수 세력은 대가야와 손을 잡았다. 대가야 역시 백제로 인해 막대한 제철 산지의 이득을 잃는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장수 세력은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 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 다색 유리구슬의 존재가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제철을 기반으로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 장수 세력의 범위는 지금까지 110곳 이상 확인된 봉화대가 입증해준다. 봉화

106)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 장수군, 『장수 삼고리 고분군-1~3호분』(2020), 280쪽.

107)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 장수군, 『장수 삼고리 고분군-1~3호분』(2020), 285쪽.

108)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2020), 65~66쪽.

라는 통신 수단은 신속하게 연락하여 대응할 시간을 갖추자는 데 있었다. 외침에 대한 전국적인 경보망의 구축을 뜻하는 것이다. 인접한 대가야나 백제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통신 시설을 구축한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왜의 신라 침공이 단순히 식량 약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철 자원의 확보라는 전략 자원에 대한 욕구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수 지역을 종점으로 한 봉화망의 구축은 제철 산지의 보호라는 측면과 동시에 조밀하게 짜여진 영역 범위를 반증해 준다. 이러한 영역 범위는 『신찬성씨록』에서 언급했던 300리 반경과 부합하는 것이요, 가야 문화권에 속했지만 제3세력으로서 독자적인 단일한 정치체로 성장했기에 가야와 구분되는 제3세력으로서 慕韓으로 일컬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 속의 모한의 탄생인 것이다. 백제와 加羅 그리고 倭와 신라에 에워싸인 국제 환경 속에서 거대한 단일 정치체가 限界地이자 限界國 성격마저 지닌 반파국이었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宋書』 『翰苑』 『通典』 『日本書紀』 『續日本後紀』
『新撰姓氏錄』 『釋日本紀』

연구서

李瀼, 『星湖全集』

韓鎭書, 『海東繹史 續』

丁若鏞, 『我邦疆域考』

盧弼 集解, 『三國志集解 伍』(上海古籍出版社, 2012).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中國正史東夷傳校勘』(2018).

湯淺幸孫 校釋, 『翰苑校釋』(國書刊行會, 1983).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星州星山洞古墳群』(2006).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近澤書店, 1937).

金泰植, 『加耶聯盟史』(一潮閣, 1993).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朝鮮上古史』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螢雪出版社, 1987).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吉川弘文館, 1978).

山本孝文,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문화사, 2006).

왕현중 外,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출판, 2015).

이기백 이기동, 『한국사강좌-고대편』(일조각, 1982).

李道學, 『백제고대국가연구』(一志社, 1995).

이도학, 『백제사비성시대연구』(일지사, 2010).

이도학, 『가야는 철의 왕국인가? 가야 · 신라 · 백제의 鐵』(학연문화사, 2019).

李道學,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왕릉비문』(서경문화사, 2020).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박영사, 1976).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1992).

朝鮮總督府, 『朝鮮史(日本史料)』(朝鮮印刷株式會社, 1932).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해안, 2007).

(재)전북문화유산연구원 · 장수군, 『장수 삼고리 고분군-1~3호분』(2020).

정구복 外, 『譯註三國史記』4, 주석편(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吉川弘文館, 1982).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千寬宇, 『加耶史研究』(一潮閣, 1991).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사회평론, 2012).

논문

- 郭長根,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2011).
- 郭長根,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2013).
- 郭長根,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2017).
- 곽장근,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2017).
-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전북연구원, 2020).
- 김경림, 「保羅國의 형성과 변천」 『지역과 역사』 47(부경역사연구소, 2020).
- 東潮, 「倭と榮山江流域 - 倭韓の前方後円墳をめぐって -」 『朝鮮學報』 179(朝鮮學會, 1996).
- 백승옥,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주류성, 2011).
- 신가영, 「대가가 멸망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주류성, 2018).
- 유우창, 「가야사 연구의 동향」 『지역과 역사』 44(부경역사연구소, 2019).
-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2019).
- 이도학, 「백승옥, 반파국 위치 재론 : 토론문」 『전북지역 고대 정치체와 가야 학술대회』(국립중앙박물관, 2019).
-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전북연구원, 2020).
- 이도학, 「장수가야를 넘어 도달한 반파국」 『전북문화살롱』 22(전북문화살롱, 2020).
-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호남고고학회, 2020).
-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2018).
- 조명일, 「全北 東部地域 烽燧에 관한 一考察」 『湖南考古學報』 59(2018).
- 咸舜燮, 「新羅와 加耶의 冠에 대한 序說」 『大加耶와 周邊諸國』(학술문화사, 2002).
- 허윤희, 「가야 무덤이라면서… 유물은 왜 신라인가요」 「가야 무덤이라는 창녕 고분, 쏟아져 나온 건 신라 장신구」
(『조선일보』 2020.10.29).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조사보고

장수 삼고리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발표 : 방민아(전주문화유산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조사내용
- III. 조사성과

장수 삼고리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방민아(전주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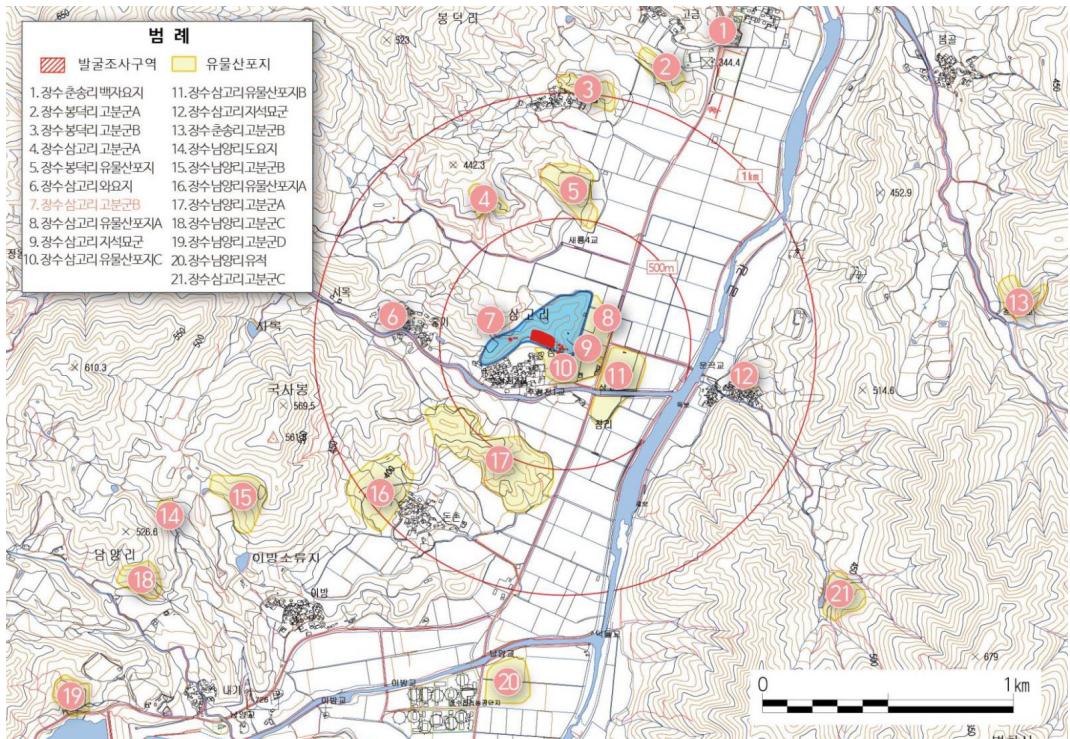
백두대간 서쪽에 위치한 장수지역은 마한시대 이래로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수분지는 백제 때 우평현이 설치된 곳¹⁾으로, 삼고리고분군에서 가야의 고분이 발굴되고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금강 상류지역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병합되기 이전까지 가야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단서가 되었다.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 75·7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삼고리 삼장마을 북쪽을 감싸고 있는 해발 380m 정도되는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 20여 기가 넘게 밀집분포하고 있다.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능선의 남쪽으로는 장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고, 구릉지대가 발달해 있다. 삼고리고분군의 서쪽으로는 금강 상류의 초기철기문화를 대표하는 장수 남양리유적이 장수천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장수분지에서 가야계 고분이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수장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수 동촌리고분군과 가장 이른시기의 수혈식 석곽묘로 편년되는 노하리고분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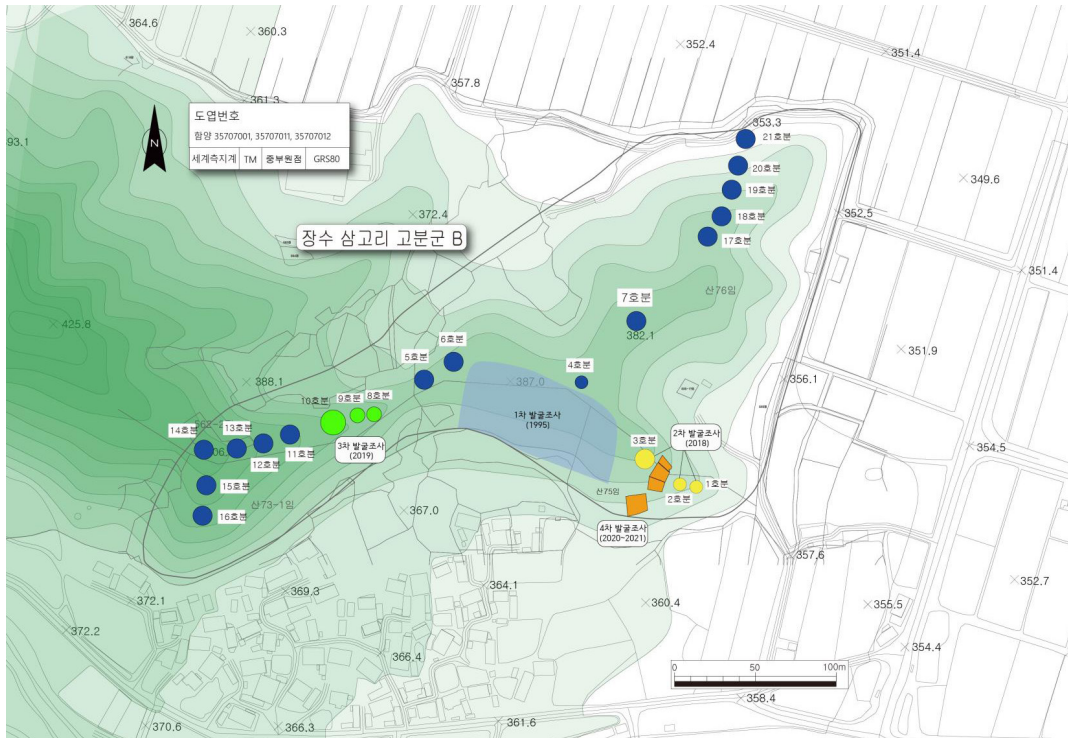


〈사진 1〉 장수분지 내 삼고리고분군 원경

1)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 때 진안읍에는 난진아현(難珍阿縣), 웅담면에는 물거현(勿居縣), 장수군 장계면에는 백이[海](伯伊[海])군, 장수읍 일원에는 우평현(雨坪縣)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 1〉 삼고리고분군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 2〉 삼고리고분군 분포도 및 현황도(1/5,000)



〈사진 2〉 삼고리고분군 전경 및 발굴조사 현황

삼고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5년 학술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는데, 수혈식석곽묘 45기를 비롯하여 토광묘 26기,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고, 다양한 기종의 가야·백제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토제품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삼고리고분군의 발굴조사 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조사내용

1. 1차 발굴조사²⁾

199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삼고리고분군의 남동쪽 능선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부를 대상으로 두 번의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석곽은 모두 천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석곽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동서로 두었는데, 주곽의 주변에 위치한 소형고분과 방추차가 출토된 5호·15호·19호와

2) 군산대학교박물관, 『長水 三顧里 古墳群』(1998).



〈사진 3〉 발굴조사 후 전경 ① 12호 ② · ③ 13호 및 13호 출토 토기류 모음 ④ 15호

삼족토기가 출토된 7호는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되게 남북으로 두었다. 석곽의 바닥시설은 1호 · 2호 · 3호 · 5호는 소형 천석을, 4호는 토기편을 전면에 깔았고, 나머지는 생토면을 다듬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장경호를 비롯하여 대부장경호, 중경호, 고배, 개배, 저평통형기대, 편구호, 삼족기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부, 철촉, 철검 등의 철기류와 교구, 화살통장식 등의 마구류, 금제이식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구와 유물들은 장수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가야세력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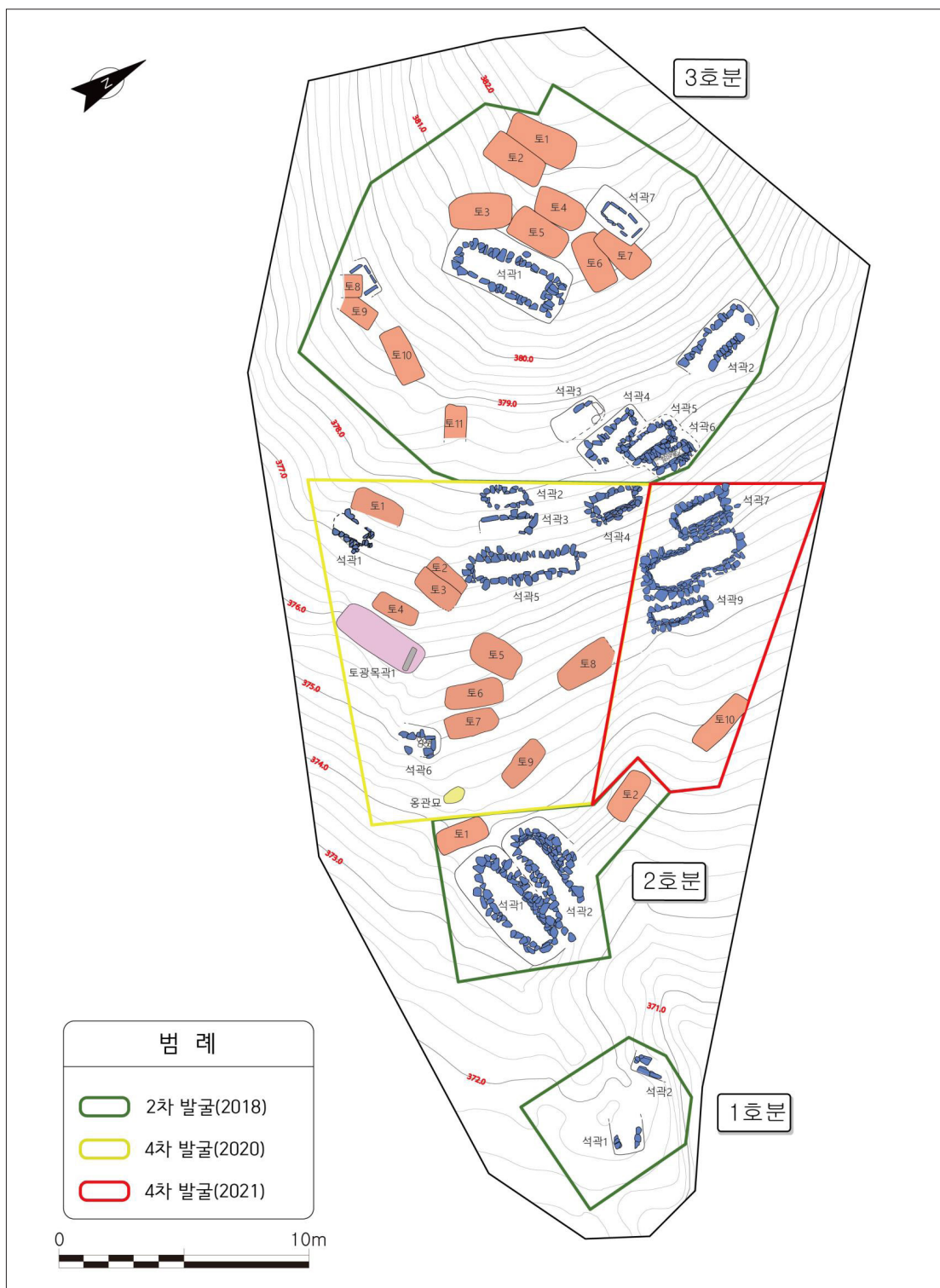
〈표 1〉 1차 발굴조사 현황

유구명	제원(cm)			장축방향	바닥 시설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호	161	42	34	동-서	천석	장경호
2호	177	51	58	동-서	천석	
3호	141	42	44	동-서	천석	발
4호	187	59	55	동-서	토기편	
5호	173	39	57	남-북	강자갈	배, 장경호, 방추차
6호	402	99	65	동-서	생토면	기대, 장경호, 단경호, 발, 철부
7호	(112)	(42)	44	남-북	생토면	삼족기
8호	264	78	63	동-서	생토면	배, 장경호, 편구호, 병형토기, 발, 방추차
9호	403	91	54	남동-북서	생토면	단경호
10호	363	96	52	북동-남서	생토면	장경호, 방추차, 철도자
11호	411	95	81	동-서	생토면	기대, 장경호, 중경호, 발, 철촉, 철도자, 철검, 철부
12호	401	89	51	동-서	생토면	개배, 기대, 정경호, 발, 철부
13호	(306)	71	92	동-서	생토면	유개고배, 고배, 광구장경호, 장경호, 단경호, 단경호, 편구호, 파수부발, 철모, 철촉, 철부, 교구, 화살통장식
14호	217	63	57	북동-남서	생토면	광구장경호, 대부장경호, 편구호, 발, 방추차, 금제이식
15호	218	66	32	남-북	생토면	개배, 광구장경호, 단경호, 방추차, 구슬, 철촉, 철검, 철부
16호	(165)	35	45	동-서	생토면	
17호	220	79	43	남동-북서	생토면	개배, 철촉, 철검, 철부
18호	405	116	41	동-서	생토면	개배, 광구장경호, 장경호
19호	137	72	32	남-북	생토면	방추차

2. 2차 발굴조사³⁾

2018년 문화재청의 긴급발굴조사비를 지원받아 삼고리고분군 중 남동쪽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1~3호분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3기의 고분에서는 수혈식석곽묘 12기, 토광묘 13기가 확인되었고, 가야계, 마한·백제계, 신라계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등의 무기류를 비롯하여 마구류, 장신구 등 183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3)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1~3호분』(2020).



〈도 3〉 2차(1~3호분) · 4차 발굴조사 현황도

1) 1호분

1호분은 능선의 가장 남동쪽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봉분의 중앙은 도굴구덩이로 인해 움푹 패여 있고 주변에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산재해 있다. 1호분의 매장시설로는 수혈식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는데, 주매장시설로 추정되는 1-1호 석곽묘는 벽석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훼손되었다. 유물은 1-2호 석곽묘에서 파수부발 1점과 배 2점이 출토되었다.

2) 2호분

2호분은 1호분의 서쪽사면 위쪽에 인접해 있으며, 지표에는 벽석이 산재해 있고, 개석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2호분의 매장시설로는 수혈식석곽묘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① 수혈식석곽묘

석곽은 2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등고선과 직교하게 장축방향을 동-서로 두고 나란히 축조되었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계 석곽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게 두고 있는 반면에, 2호분은 장축을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두었다. 석곽묘의 개석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벽석은 천석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에서는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위세품과 성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2호분은 부장유물과 무덤의 배치로 볼 때 한 봉분 내에 여성과 남성의 무덤을 함께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1호 석곽은 여성의 무덤으로 완형의 금제이식이 출토되었으며, 금제이식 주변에는 경식으로 추정되는 곡옥과 채색유리구슬들이 출토되었고, 남벽과 인접한 곳에서도 피장자의 왼팔에 착용한 팔찌로 추정되는 소옥류들이 출토되었다. 채색유리구슬은 경주 황남대총 북분, 함평 신덕고분,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출토품과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등과 유사하다. 2-2호 석곽에서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장경호와 삼죽기, 개배 등의 토기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와 마구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남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2호 석곽의 부장품인 환두도는 손잡이가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경주 황남대총 남분, 남원 두락리 4호분, 나주 정촌 1호 석실분, 연기 송원리 KM-96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2호분은 부장유물의 출토위치를 근거로 피장자의 두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2-1호 석곽은 금제이식과 경식이 동벽에 인접한 지점에서 출토되었고, 2-2호 석곽의 환두도는 손잡이가 동쪽에 놓이고 칼 끝이 서쪽을 향한 상태로 가지런히 놓여있어 피장자의 두침은 동쪽으로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토광묘

토광묘는 2-1호 석곽묘의 서쪽과 2-2호 석곽묘의 북쪽에서 각각 1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되게 남-북으로 두었다. 토광묘에서는 소형의 장경호와 개, 배, 발, 대부파수부호, 방추차, 철검, 철촉,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표 2〉 1~3호분 발굴조사 현황

구분	매장 시설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호분	1호석곽		N60°W	(102)	54	57	
	2호석곽		N70°W	(128)	40	51	파수부발1, 배2, 개1
2 호 분	1호석곽	세장방형	N90°E	380	83	103	장경호4, 병1, 방추차1, 금제이식1, 경식1, 천1, 철도자2
	2호석곽	세장방형	N89°E	(445)	103	105	장경호4, 단경호2, 개배2, 삼족기1, 유리구슬1, 환두도1, 철도자1, 철부2, 철촉19, 철검1, 철모1, 교구2, 재갈1, 미상철기1
	1호토광	장방형	N4°E	213	82	23	장경호2, 배2, 철검1, 철부1
	2호토광	장방형	N18°W	155	(47)	17	대부파수부호1, 장경호1, 개배2, 발1, 방추차1
3 호 분	1호석곽	세장방형	N57°E	354	101	78	발형기대1, 장경호2, 단경호2, 고배5, 개1, 발1, 방추차1, 철부2, 철검2, 철도자1, 철촉2, 미상철기1
	2호석곽	세장방형	N1°E	(364)	86	68	장경호2, 대부장경호1, 대부파수부호1, 배2, 동체부편2, 철부1, 철검1, 철촉1, 철도자1
	3호석곽	세장방형	N5°W	162	45	28	파수부발1
	4호석곽	세장방형	N11°W	218	54	59	장경호2, 단경호1, 개1, 배1, 철검1, 철부1, 철촉1, 철도자1
	5호석곽	장방형	N6°E	219	73	66	장경호2, 직구호1
	6호석곽	세장방형	N13°E	168	52	61	장경호1, 단경호1, 방추차1
	7호석곽	장방형	N79°E	130	48	47	철검1, 철촉3
	8호석곽	장방형	N88°W	100	(36)	52	
	1호토광	장방형	N67°E	272	122	46	장경호2, 고배1, 배1, 방추차1
	2호토광	장방형	N70°E	242	108	37	장경호2, 소호1, 배1
	3호토광	장방형	N62°E	182	102	16	장경호2, 개배1
	4호토광	장방형	N26°E	232	121	22	장경호1, 고배1, 철검1, 철촉3
	5호토광	장방형	N61°E	220	101	32	파수부완1
	6호토광	장방형	N85°W	217	104	41	장경호1, 배1, 소호1, 철부1, 철검1, 철촉2
	7호토광	장방형	N82°E	210	108	28	장경호1, 단경호1, 개1, 배1
	8호토광		N27°E	(82)	88	30	장경호2, 단경호1
	9호토광		N65°E	(150)	88	58	철도자1, 철촉1
	10호토광	장방형	N80°W	235	108	24	장경호2, 유공소호1
	11호토광	장방형	N56°W	(176)	98	28	장경호2, 소호1



〈사진 4〉 2호분 석곽묘 ① 조사 후 ② 1호 남벽 ③ 2호 서벽 ④ 2호 북벽 ⑤ 2호 부장품 토기류
 ⑥ 2호 마구류 및 무기류 출토상태 ⑦ 2호 재갈 노출상태 ⑧ 1호 금제이식 ⑨ 1호 채색유리구슬 ⑩ 2호 환두대도

3) 3호분

3호분은 1~3호 중 구릉 정상부의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분정의 해발은 380.8m이고, 봉분의 외면은 양호한 편이나 분정에는 석곽묘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봉토 또한 상당히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봉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북 길이 21.6m, 동-서 길이 15.1m, 잔존높이는 2.45m 내외이다. 3호분의 매장시설로는 주매장시설인 수혈식석곽묘를 비롯하여 8기의 석곽과 11기의 토광이 조사되었다.



〈사진 5〉 3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

① 수혈식석곽묘

석곽묘의 구조는 모두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굴광하고 마련된 반지하식이다. 벽석은 천석을 사용하여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3호분의 주석곽은 1호이며, 봉분의 가운데 등고선과 평행하게 장축을 두고 축조되었다. 2~8호 석곽묘는 주석곽의 동쪽과 남동쪽 하단부에서 확인되었다. 석곽묘 내부에서는 발형기대를 비롯하여, 장경호, 대부직구호, 고배, 단경호, 개, 배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1호 석곽에서 출토된 5점의 고배는 석곽의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2점, 3점이 조사되었는데 대각과 배신, 투창이 모두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또한 위계서열이 높은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발형기대는 실생활 용기보다 의례적인 용기로 알려져 있다. 발형기대는 1호 석곽의 북벽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당시 기대 위에

유개장경호가 얹혀 있는 상태로 놓여있었다. 기대의 형태는 배신이 크게 벌어지며, 깊이는 약간 깊고 구연단은 수평으로 외반한다. 발부는 상단과 중단에 2단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대각의 상단과 중단에는 상하일렬로 중형의 투창이 투공되어 있다. 대각에 2단 직렬로 중형의 투창이 뚫린 기대는 장수 노하리 3호 석곽, 남원 청계리고분 1호 석곽, 고령 지산동 30·73호분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사진 6〉 3-1호 석곽 발굴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② 토광묘

토광묘는 봉분의 정상부에서 7기, 남사면에서 4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것(6기)과 경사면을 따라 둔 것(5기)으로 구분된다. 토광묘에서는 소형의 장경호와 개, 배, 단경호, 유공소호, 파수부완, 방추차, 철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10호 토광에서는 장경소호와 함께 유공소호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공소호는 호남 서남해안과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장수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주석곽의 고배처럼 타지역과의 교역품으로 추정되고 문화적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사진 7〉 3-6호 · 7호 토광묘 및 출토유물

〈사진 8〉 3-10호 토광묘 및 출토유물

3. 3차 발굴조사⁴⁾

삼고리고분군 중 서쪽 능선에 자리하고 있는 8~10호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1) 8호분

8호분은 동쪽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개석으로 추정되는 대형석재 1매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매장시설로는 수혈식석곽묘 1기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8호분의 주매장시설은 천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석곽묘이며, 벽석은 천석을 세로로 세워쌓기한 동단벽 이외 세벽은 가로로 눕혀쌓기를 하였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 두었다. 석곽의 주변으로는 너비 110 · 120cm의 주구가 둘러져 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422cm, 너비 92cm, 잔존높이 62cm 내외이다. 유물은 서벽과 인접한 곳에서 유개장경호와 통형기대 2세트, 횡병 1점이 부장되었고, 서벽쪽에서는 유개장경호와 통형기대 5세트가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석곽의 중앙에서 철모, 철부, 철검, 철도자,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바닥에는 목관을 안치한 곳에만 소형 할석을 깔았으며, 동 · 서쪽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횡병은 백제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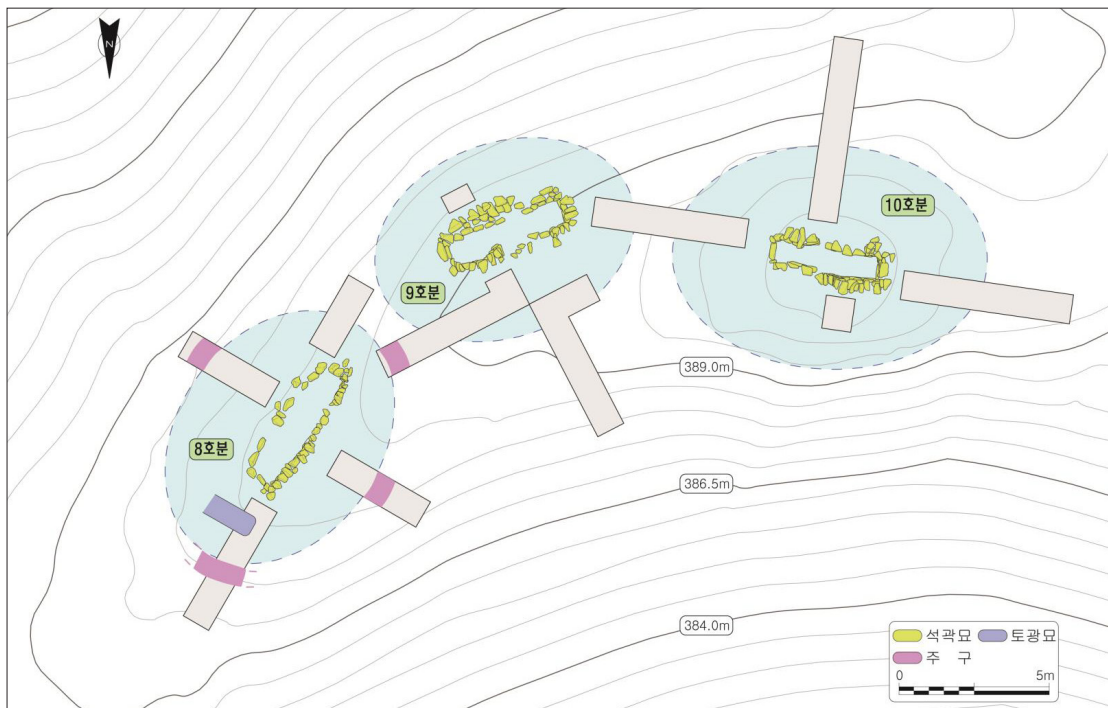
4)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19).

에서 주로 출토된 바 있는데, 서천 봉선리 3-1구역 1호분⁵⁾에서 1점, 군산 산월리 2호분⁶⁾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완주 상운리유적 라지구 4호 목곽⁷⁾과 부안 죽막동 나2구역⁸⁾에서 출토된 것이 있고 서울 몽촌토성⁹⁾에서 출토된 바 있다.

토광묘는 석곽에서 동쪽으로 120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사진 9〉 8~10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



〈도 4〉 3차 발굴조사(8~10호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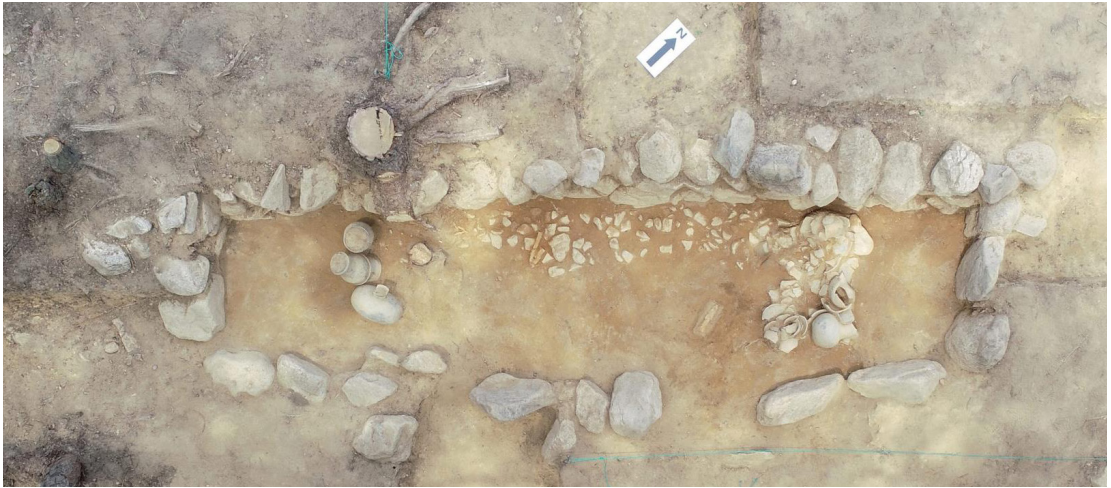
5) 忠淸南道歷史文化院, 『舒川 鳳仙里 遺蹟』(2005), 294쪽.

6)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 산월리 유적』(2004), 86~88쪽.

7) 全北大學校博物館, 『上雲里 II』(2010), 207쪽.

8) 國立全州博物館,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1994), 116~118쪽.

9)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書-I』(1998).



〈사진 10〉 8호분 조사 후 근경 및 출토유물 모음

장축방향은 석곽묘와 달리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었다. 부장유물로는 대각이 유실된 대부호 1점과 철부 1점이 확인되었다. 토광묘의 규모는 잔존길이 193cm, 너비 85cm, 잔존깊이 13cm 내외이다.

2) 9호분

9호분은 8호분의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매장시설은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석곽 1기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벽석은 천석을 이용하여 세워쌓기로 축조하였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산줄기의 경사를 따라 두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97cm, 너비 90·100cm, 잔존높이 75cm 내외이다. 유물은 무너진 북벽의 벽석사이에서 광구호, 단경호, 파수부발 등이 뚜껑과 세트로 출토되었고, 서벽과 인접한 곳에서는 은제이식 2점을 비롯하여 장경호와 단경호, 철도자·철모·철부 등의 무기류, 남벽에서는 유개장경호와 파수부직구대부완 등이 확인되었다. 동벽의 바닥에서는 장경호와 재갈·교구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3) 10호분

3기 중 능선의 가장 윗쪽에 자리하고 있다. 봉토의 중앙에서 석곽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의 장벽은 30cm 내외의 크고 작은 천석을 가로놓혀쌓기로 축조하였으나, 단벽은 50cm 내외의 천석을 가로로

세워쌓기를 하였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 두었다. 바닥은 소형 할석을 시설하였다. 규모는 길이 338cm, 너비 68cm, 잔존높이 68cm내외이며, 내부에서는 장경소호 1점과 철모 1점이 출토되었다.



〈사진 11〉 9호분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사진 12〉 10호분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4. 4차 발굴조사¹⁰⁾

4차 발굴조사 조사지역은 2호분과 3호분 사이이며,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지표상에 드러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하였는데, 수혈식석곽묘 9기와 목곽묘를 포함한 토광묘 11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도면3 참조)



〈사진 13〉 4차 발굴조사 후 항공사진 ① 2020년 ② 2021년

1) 수혈식석곽묘

석곽묘는 9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5기)과 장방형(3기)으로 구분되며, 장축방향은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두었다. 석곽묘는 천석을 사용하여 넓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6호의 바닥에는 강자갈을 깔았고, 9호 바닥에는 토기편이 촘촘히 깔려있는데, 의도적으로 바닥에 시설하여 시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8호와 9호는 두 기의 벽석이 연결해서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발형기대를 비롯하여 통형기대, 유개장경호, 파수부발, 파수부배, 발, 고배, 단경호, 병, 개배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부, 철검, 철촉 등의 철기류 그리고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1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변경(3차) 약식보고서」(2021).

〈표 3〉 4차 발굴조사 석곽묘 조사현황

구분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바닥시설	부장유물
			길이	너비	깊이		
1호	장방형	N65°E	160	71	80	생토면	파수부배1, 방추차1
2호	세장방형	N30°E	137	38	46	생토면	발1
3호	세장방형	N27°E	210	55	42	생토면	유개장경호2, 호2, 파수부발1, 철도자1
4호	장방형	N4°E	156	64	67	생토면	호1, 배1, 철촉?1
5호	세장방형	N28°E	400	50	74	생토면	장경호·기대1, 유개장경호1, 파수부완1, 발1, 병1, 고배1, 호3, 철부2, 철검2, 철촉7, 철도1, 철모1
6호		N40°E	(70)	40	48	강자갈	광구장경호1, 배1
7호	장방형	N14°E	195	66	68	생토면	장경호1, 호2, 철검1, 철촉2
8호	세장방형	N15°E	374	112	68	생토면	발형기대1, 장경호5, 개배세트2, 발1, 배1, 파수부발1, 철부1
9호	세장방형	N21°E	235	60	50	토기편	발형기대1, 통형기대1, 장경호3, 개배세트1, 고배1, 개1, 방추차1, 철검1, 철부1



〈사진 14〉 5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사진 15〉 8호 석곽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토기류 모음)

〈사진 16〉 9호 석곽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토기류 모음)

2) 토광묘

토광묘는 모두 11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1기(10호)는 토광목곽묘이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모두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두었다. 2호와 3호, 6호와 7호는 2기씩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토광묘에서는 양단벽과 인접한 곳에서 장경호와 배, 호, 방추차, 철촉, 철검, 철도자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9호 토광묘 부장품으로는 파수를 부착한 동체부 상단에 고사리문양을 장식한 파수부배를 비롯하여 배부병, 발, 배, 철촉, 철도자 등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배부병은 병의 구연부에 개배모양의 잔이 달려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주로 5~6세기대 백제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목곽묘는 4호 토광의 동쪽에서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455cm, 너비 170cm, 깊이 74cm로 대형에 속한다. 북벽과 인접한 바닥에는 길이 123cm, 너비 17cm, 깊이 12cm 규모의 굴광선이 확인되는데, 이는 목곽을 세운 흔적으로 추정된다. 부장유물은 대각에 종모양 투창이 뚫린 발형기대 위에 장경호가 얹혀진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 밖에도 대부장경호, 장방형 투창이 2단

으로 풀린 고배, 중산모자형꼭지가 달린 개, 소호, 잔 등의 토기류와 투겁창, 철부, 철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표 4〉 4차 발굴조사 토광묘 조사현황

구 분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부장유물
			길이	너비	깊이	
1호	장방형	N60°E	226	98	29	유개장경호1, 병1, 개배세트2, 방추차1
2호	장방형	N80°E	179	(60)	37	병1
3호	장방형	N11°E	194	90	22	철도자1
4호	장방형	N45°E	185	75	15	배1, 발1, 철도자1, 철촉3
5호	장방형	N69°E	220	132	58	철부1, 철검1
6호	장방형	N25°W	240	102	43	광구장경호1, 호1, 배1, 방추차1
7호	장방형	N15°E	219	101	37	호2, 배1, 방추차1
8호	장방형	N3°E	282	125	47	유개장경호1, 호1, 배2, 철부1, 철검1
9호	장방형	N12°E	216	87	46	파수부배1, 배부병, 발1, 배1, 철촉1, 철도자1
10호 (목곽)	장방형	N65°E	455	170	74	발형기대1, 장경호1, 대부장경호1, 고배2, 개5, 소호3, 잔1, 철모1, 철부2, 철검1, 철촉 등
11호	장방형	N4°W	270	94	28	장경소호1



〈사진 17〉 9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사진 18〉 10호 토광 목곽묘 조사 후 전경 및 출토유물

III. 조사성과

삼고리고분군 발굴조사는 1995년 첫 발굴조사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2018년 문화재청의 긴급발굴조사비를 지원받아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고리고분군에서는 5~6세기에 축조된 수혈식석곽묘 45기와 토광묘 26기, 옹관 1기가 조사되었고, 가야와 백제계토기를 비롯하여 철기류, 마구류, 장신구류 등 500여 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삼고리고분군에서는 전북동부지역에서 최초로 가야토기가 부장된 토광목곽묘가 조사되었다. 토광목곽묘는 장수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고, 규모는 길이 455cm, 너비 170cm 내외로 지금까지 삼고리고분군에서 조사된 토광묘 중 가장 규모가 크며, 2·3호분의 주석곽 규모와 비슷하다. 부장유물은 발형기대를 비롯하여 무개장경호, 대부장경호, 고배, 개, 소호, 철모, 철촉, 철검, 철부 등 석곽묘의 부장유물양상과 비슷하다. 특히, 대각에 종모양 투창이 뚫린 발형기대는 3호분의 주석곽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로 편년되어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되기 이전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고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와 토광묘를 통해 천천면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발전기~쇠퇴기에 이르는 고분의 변천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삼고리고분군은 육안으로 봉분이 확인되는 고총은 능선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수혈식석곽묘는 남동쪽에 입지하고 있는 3호분이고, 장수지역 가야의 발전기에 축조되었다. 3호분은 다곽식으로 주매장시설은 봉분의 중앙에 조성하고, 봉분의 동쪽 하단부에는 규모가 작은 석곽묘들을 배치하고 있다. 부장유물은 발형기대와 유개장경호, 대가야·마한·백제계 고배 등이 있다. 2~3호분 주변에서 조사된 석곽묘들도 3호분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좁은 공간에 여러 기가 밀집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며, 유개장경호를 비롯하여 발형기대와 통형기대, 개배, 고배, 장경소호 등이 부장되었다.

삼고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중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2호분과 8~10호분으로 장축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삼족기, 횡병 등의 백제 웅진기의 토기가 가야토기들과 함께 부장되었다.

장수지역의 가야(반파국)는 백제 웅진기(521~538년)에 백제에 멸망 혹은 복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¹¹⁾, 삼고리고분군에서는 이 시기에 소형의 석곽묘와 토광묘가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은 장경소호와 개, 배 등이며, 부장유물의 박장화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장수지역의 가야 수장층의 고분으로 언급되어 온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은 부장유물이 대부분 도굴을 당하여 양이 적어서 장수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세력의 생활·문화상을 조명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삼고리고분군은 이들 수장층보다 석곽의 규모도 작고, 석곽의

11) 객장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임실군·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76쪽.

축조기술이 정교하지 못해 수장층보다 낮은 계층의 고분으로 추정되지만 삼고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영산강유역이나 고령 대가야, 합천 옥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수장층의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위세품들이 부장됨으로써 장수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반파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장유물들을 통해 주변세력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는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얻었다. 삼고리고분군을 축조한 가야세력은 5세기경에 주변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사적 관계를 이루면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호분의 채색유리구슬과 환두대도가 대표적인 교류품이며, 3호분의 주매장시설인 1호 석곽에서는 대가야계의 발형기대와 연질의 장경호, 합천·마한·백제계·소가야계 등의 고배가 출토되고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바 있는 원문이 시문된 개 등이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 천천면은 서쪽으로는 백제의 접경지역인 진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동쪽으로 육십령을 넘으면 대가야가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정치적으로 볼 때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의 교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철의 생산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수군에는 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단일 지역 내에서는 밀집도가 가장 높다. 최근 장수 대적골유적 등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國立全州博物館,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1994).

군산대학교박물관, 『長水 三顧里 古墳群』 (1998).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 산월리 유적』 (2004).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成-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書-』 (1998).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2019).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1~3호분」 (202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202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변경(3차) 약식보고서」 (2021).

全北大學校博物館, 『上雲里Ⅲ』 (2010).

忠淸南道歷史文化院, 『舒川 鳳仙里 遺蹟』 (2005).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발표 1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

발표 :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 : 임혜환(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목차】

- I. 머리말
- II. 장수군의 가야고분
- III. 장수군 가야고분의 특징
- IV. 맺음말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장수군은 장수천과 장계천이 북쪽으로 흘러가며 그 주변 지역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에 위치한 월성치·육십령·짓재 등의 고개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상의 요충지를 이룬다.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장수군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장수군이 위치한 전라북도 동부지역은 영남지역에 비해 가야사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었으며, 이 지역은 종래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문헌자료의 부족과 함께 가야는 높고 험준한 백두대간의 서쪽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전라북도 동부지역은 산악지대로서 예전부터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닿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¹⁾.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군²⁾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장수 동촌리, 삼봉리고분군³⁾, 장계리고분군⁴⁾, 삼고리고분군⁵⁾ 등의 조사성과를 토대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장수군 일원은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까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후 고분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관방유적과 제철유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각도로 금강 상류지역인 장수군 일원에 존재했

1) 유 철,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 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305쪽.

2)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고리 고분군』(1998).

3)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봉리, 동촌리 고분군』(200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201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2017).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 삼봉리 고분군』(2017).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고분군 -30호분-』(201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 -16, 19호분-』(20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 -1, 24, 25호분-』(2020).

4)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백화산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2020).

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1~3호분-』(20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1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변경(3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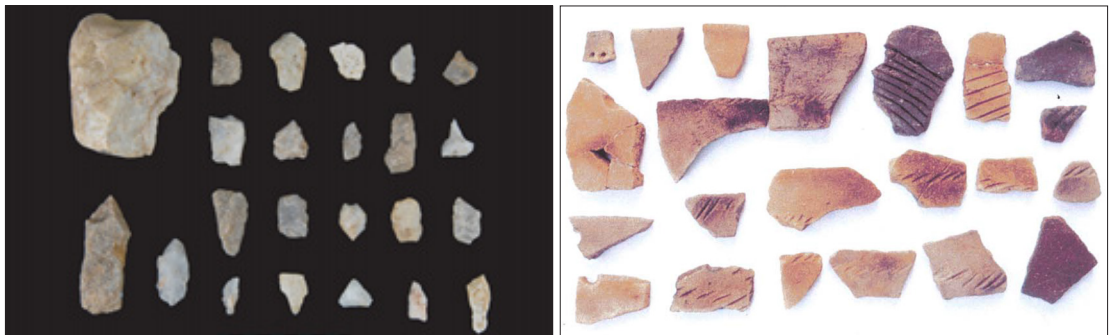
던 가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전라북도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연구된 가야고분에 대한 검토에 앞서 고고자료를 토대로 가야 이전에 장수를 살펴보았다. 이후 가야고분의 분포와 현황을 살펴보고 발굴조사된 가야고분의 봉토와 매장시설,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 서쪽에 유일한 가야세력인 장수군 일원의 존재했던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을 추론해보았다.

II. 장수군의 가야고분

1. 가야 이전의 장수군

구석기시대의 장수는 침곡리 구석기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유적은 1~2 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몸돌·돌날·슴베찌르개·찌르개·뚜르개·밀개·굵개 등 83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⁶⁾. 신석기시대는 1997년에 천천면 남양리 농지정리사업 현장에서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⁷⁾과 천천면 월곡리 월곡초등학교 북쪽과 월곡리 반월마을 입구 농지정리사업 현장에서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과 석기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⁸⁾.



〈사진 1〉 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左), 월곡리유적(右)

청동기시대는 지석묘가 20여 개소에서 140여기 정도가 확인되었으나 1990년대 농지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유실되었고, 지금은 삼봉리 지석묘⁹⁾를 비롯하여 10여기만이 남아있다. 침곡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지석묘가 발굴 조사되어, 말각장방형의 묘역을 갖춘 개석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¹⁰⁾.

6) 전북대학교박물관, 『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한국도로공사, 2007).

7) 지건길,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철기 일괄유물」, 『고고학지』2(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0).

8) 전북대학교박물관, 「장수 월곡리 장척 2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장수 월곡리유적」, 『유적조사보고서』(2001), 15~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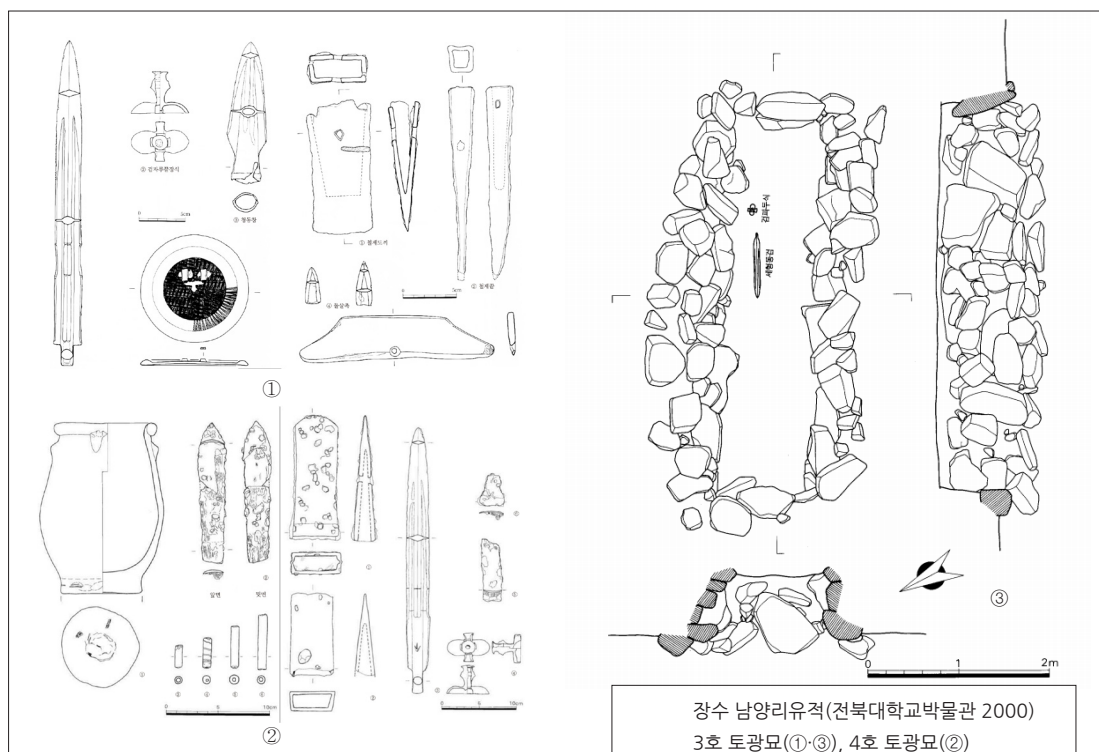
9) 전영래, 「장수 삼봉리 북방식 지석묘」, 『전북유적조사보고』제10집(전주시립박물관, 1979).

10)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침곡리유적』(한국도로공사, 2006).

원삼국시대의 장수는 마한 성립과 관련된 초기철기시대 지배자의 무덤과 마한 관련 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89년 천천면 남양리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1997년에는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세형동검·검파두식·세문경과 같은 청동유물과 철부·철사 등의 철기류, 석기류, 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3기의 무덤에서는 청동유물과 철기류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등대에 새발자국 모양의 무늬가 양각된 세형동검이 출토된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¹¹⁾. 이 유적에서는 이른바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덤과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의 철기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²⁾.



〈사진 2〉 장수 침곡리 지석묘(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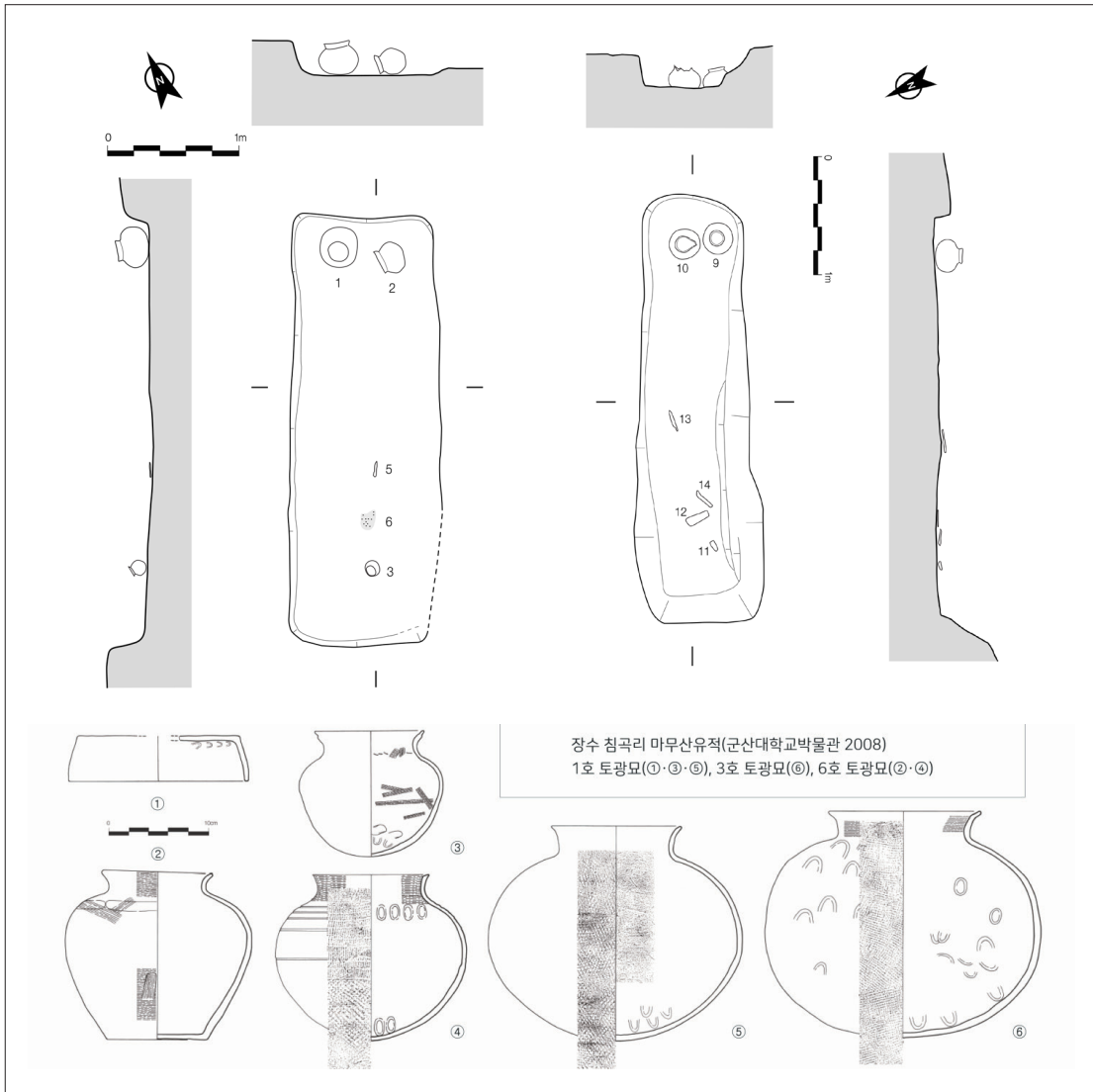
〈도면 1〉 장수 남양리유적(전북대학교박물관 2000)

11) 전북대학교박물관, 『남양리』(2000).

12) 한수영,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2015).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UNESCO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문(전라북도·장수군·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3~47쪽.

원삼국시대 마한과 관련된 주거지 6기가 침곡리에서 조사되었으며, 이중 9호는 부뚜막시설을 갖춘 취사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타래문[絡繹文]이 시문된 기대편을 통해 4세기대 영남지역의 가야와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¹³⁾. 침곡리 마무산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6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 내에서는 격자문이 타날된 원저단경호와 이중구연호·철부·철검·철도·구슬 등이 출토되었다¹⁴⁾.



〈도면 2〉 장수 침곡리 마무산유적(군산대학교박물관 2008)

13) 하승철, 2014, 「남원지역 가야 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85~108쪽, 9호 주거지 출토유물은 남강 수계의 가야토기와 유사성으로 보이며, 기대의 경우 산청 옥산리 110호분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

14) 군산대학교박물관, 『침곡리 마무산유적』(2008).

금강 상류 일대에는 마한과 친연성을 보이는 일부 집단이 존재하지만 《삼국지》의 마한 소국과 흡사한 규모의 지역연맹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4세기 중반 이후 백제와 가야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각축을 벌이는 이유도 마한 소국의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¹⁵⁾도 있다. 다만, 서부 평야지대와 달리 대규모 개발행위와 수반되는 구제발굴의 빈도와 조사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유적의 조사 예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 장수군 가야고분의 분포와 현황

장수군은 금강 수계권에 대부분 포함되며, 남쪽의 변암면과 산서면 일원은 섬진강 수계권에 해당된다. 장수군 일원에서 확인된 가야 고분군은 45개소이며, 도면 3)과 같이 분포한다. 가야계 고총은 250여기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수분지에 80여기, 장계분지에 120여기 등이 자리한다¹⁶⁾.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군은 표 1)과 같으며,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전반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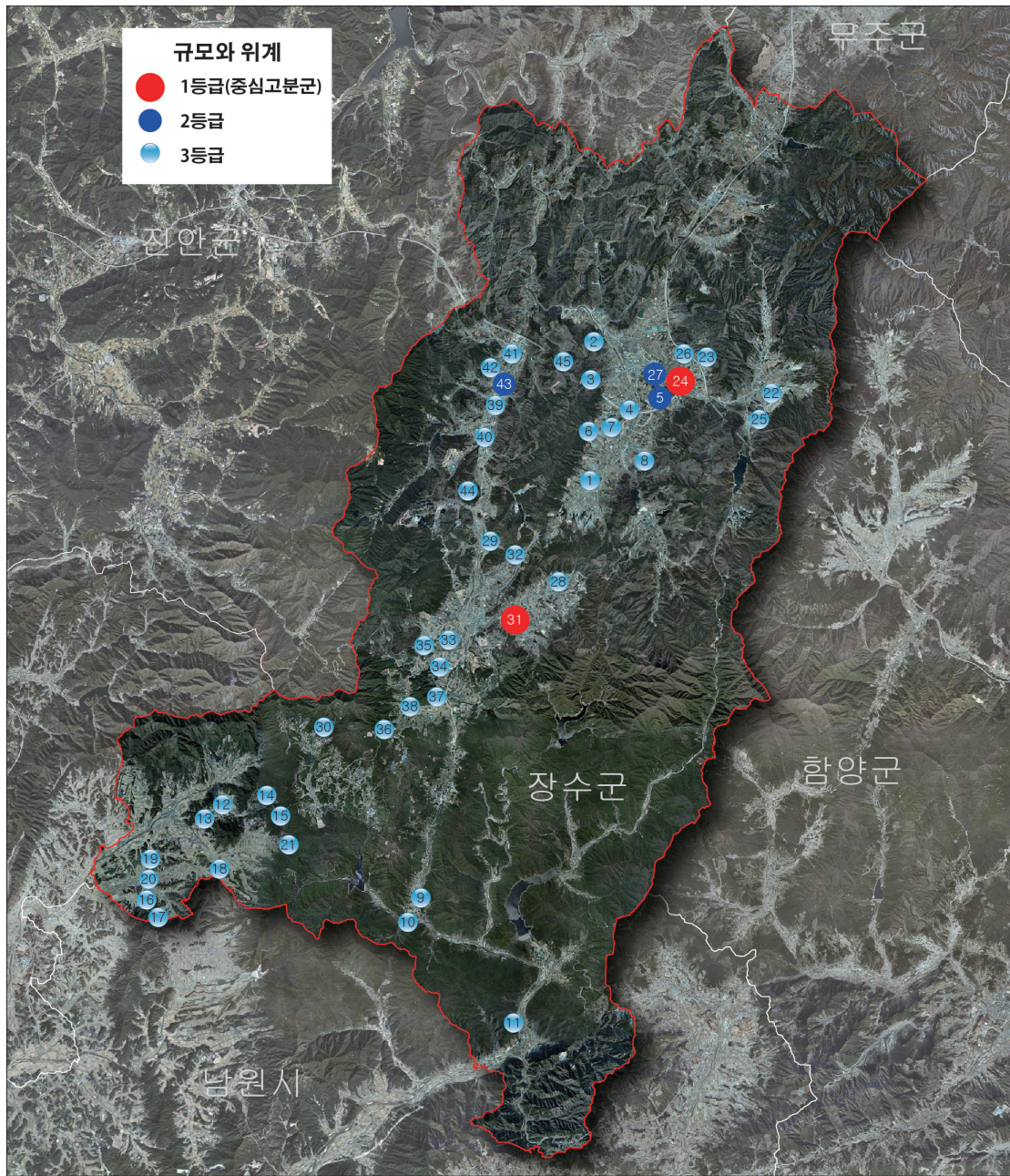
〈표 1〉 장수군 가야고분군 조사현황

	고분명	유 구	유 물	구 분
1	노하리고분군	수혈식 석곽묘	기대 · 고배 · 개배 · 파배 · 장경호 · 단경호 대부호, 철도 · 철도자 · 철검 · 철부 · 철촉 살포, 금제이식	금 강
2	동촌리고분군	고총 84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 · 고배 · 개배 · 파배 · 장경호 · 단경호 환두대도 · 마구류 · 편자 · 화살통장식 금 · 은제이식	
3	삼고리고분군	고총 7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 · 고배 · 개배 · 파배 · 장경호 · 단경호 유공광구소 호, 환두대도, 금제이식, 채색옥	
4	삼봉리고분군	고총 34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 고배, 유개장경호, 단경호, 마구류 꺾쇠, 금제이식	
5	장계리고분군	고총 63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편, 개배편, 장경호편, 단야구	
6	호덕리고분군	고총 34기 (수혈식 석곽묘)	유개장경호, 단경호, 철제무기류 금제이식	
7	봉서리고분군	수혈식 석곽묘	대부장경호	섬진강

르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삼봉리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은 봉토의 규모와 군

15) 김승옥,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마한 · 백제 그리고 가야』 제 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호남고고학회, 2019), 7~23쪽.

1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의 가야고분』(장수군, 2017).



1. 신전리고분군	10. 국포리고분군B	19. 사상리고분군A	28. 노곡리 말무덤	37. 용계리고분군B
2. 침곡리고분군A	11. 대륜리고분군A	20. 사상리고분군B	29. 노하리고분군A	38. 용계리고분군C
3. 침곡리고분군C	12. 건지리고분군A	21. 오성리고분군B	30. 대성리고분군A	39. 남양리고분군A
4. 침곡리 마무산유적	13. 건지리고분군B	22. 명덕리고분군B	31. 동촌리고분군	40. 남양리고분군E
5. 호덕리고분군	14. 마하리고분군A	23. 삼봉리고분군A	32. 선창리고분군A	41. 봉덕리고분군A
6. 화양리고분군B	15. 마하리고분군B	24. 삼봉리고분군	33. 송천리고분군A	42. 삼고리고분군A
7. 화양리고총	16. 봉서리고분군B	25. 오동리고분군	34. 송천리고분군B	43. 삼고리고분군B
8. 화음리고분군	17. 봉서리고분군C	26. 월강리고분군B	35. 송천리고분군C	44. 장판리고분군A
9. 교동리고분군A	18. 사계리고분군	27. 장계리고분군	36. 식천리고분군	45. 춘송리고분군B

〈사진 3〉 장수군 가야고분군 현황

집, 매장시설, 출토유물 등을 통해 중심고분군¹⁷⁾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변으로 중소형의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가야 고분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으로, 무덤이 자리한 지역은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다. 고총¹⁸⁾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 수계권의 동촌리고분군과 삼봉리고분군에서 이러한 입지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의 입지와 관련성을 보이는데,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인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있다¹⁹⁾.

III. 장수군 가야고분의 특징

1. 가야고분의 특징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특징은 봉토와 매장시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봉토는 구릉의 정상부를 깎아내어 기저부가 주위보다 높게 묘역을 조성하였다. 묘역 조성 시 기저부는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여 평탄하게 만든 후 2~4개의 층으로 1차 성토를 하였다. 봉토 조성 시 경사면에 따라 다른 성토방법이 나타난다. 매장시설인 석곽은 반지하식이 대부분이며, 1차 성토층과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후 축조하였으며, 묘광과 벽석 사이는 점토로 켜켜히 채워가며 충전하였다. 석곽의 상부는 구축토(갈색사질점토)와 동시에 쌓아올렸다. 2차 성토는 개석을 석재로 덮은 후 밀봉하고 봉토의 상부를 고대하게 조성하였다. 장수 삼봉리 7호분²⁰⁾과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남원 월산리 M4. 5. 6분²¹⁾의 경우 매장시설이 지상식이다. 봉토의 축조방법은 자연 경사면을 수평에 가깝게 정지하고 석곽을 축조하기 위해 생토면을 약간 굴광하여 최하단인 1단을 쌓고 2단 부터는 석곽의 축조와 동시에 봉분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마한 지배자의 무덤인 분구묘 축조기법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군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봉토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

17) 이성주,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성격」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147~189쪽. 중심고분군이란 개념은 독자적인 정치체의 최고위계 지배자 집단들을 위해 정치체적 차원의 매장례를 수행함으로써 조영된 고분군을 정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18) 김용성,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춘추각,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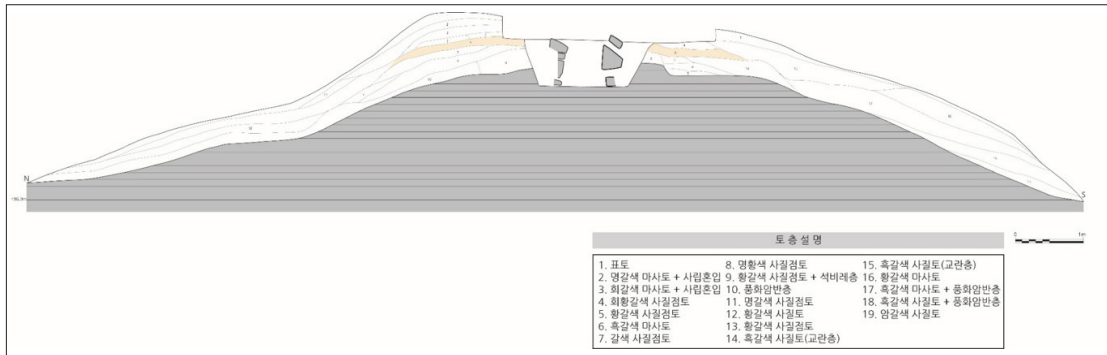
이희준, 「신라 고총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20(영남고고학회, 1997).

고총은 신라 및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수장층이 조영하였던 분묘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토의 평면형태가 원형 · 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의미한다.

19) 김세기,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학연문화사, 2003), 105~106쪽.

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2015).

21) 전북문화재연구원, 『남원 월산리고분군』(2012).



〈도면 3〉 장수 동촌리 1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다. 가야고분 중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는데, 남원 월산리. 두락리를 중심으로 함양 상백리·백천리·산청 중촌리·생초·장수 삼봉리·동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²²⁾.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에서는 봉토가 연접된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 삼봉리 6·7·8·9호분과 남원 월산리 M1~3호분은 동-서로 긴 타원형의 봉토를 맞닿게 하여 고대하게 조성한 연접분이다.

봉토 주위에 주구가 확인되는데 주구는 배수, 묘역구분, 흙 채취의 기능적인 면과 분구를 크게 하고, 신성함을 부여하는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구는 한반도 서남부지역에 마한과 관련된 묘제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에서 주구가 확인되는 것은 종래 재지세력(마한)의 묘제 전통 속에 가야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³⁾.

장수군 일원에 조사된 가야고분의 매장시설은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이다. 최근 삼고리고분군에서 목곽묘가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석곽묘와 시기차를 가지고 토광묘가 조성된 양상이 확인되었다²⁴⁾. 동일 고분군 내에서 백제 관련 매장시설[횡구식, 횡혈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지를 달리한 일정 범위의 남쪽 사면부에서 백제 고분이 밀집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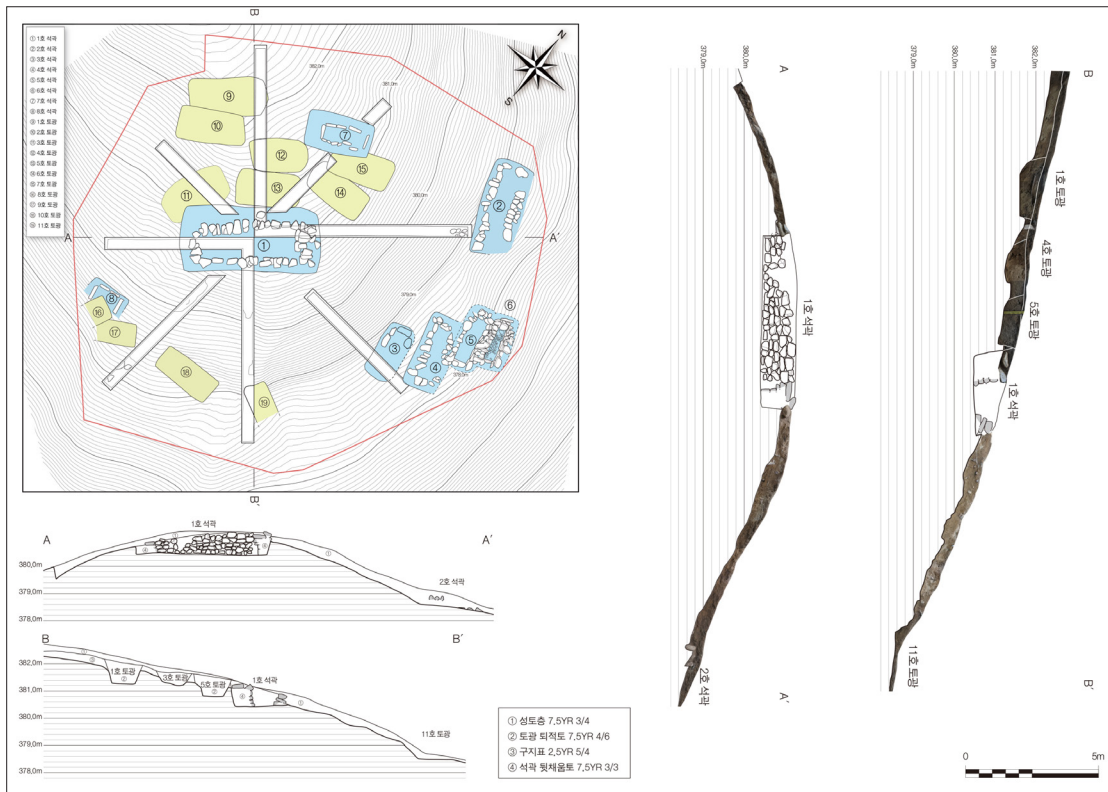
매장시설의 배치양상은 주곽을 중심으로 주변에 석곽이나 토광묘·옹관묘가 배치된 다곽식이 대부분이며, 봉토와 주변에 일부 배장이 확인된다. 운봉고원의 경우 봉토 내 매장시설의 배치는 단곽식이 대부분이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곽식이다. 32호분은 주석곽과 부곽이 '11'자 형태이나 부곽은 매장용이 아닌 부장품 매납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²⁵⁾.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매장시설 위치는 대부분 반지하식이며, 지하식은 운봉고원의 유곡리

22) 광장근,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제 24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한국고대사학회, 2011).

23)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노하리고분군』(2018).

2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

25) 전상학, 『무덤을 통해 본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 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109~133쪽.



〈도면 4〉 삼고리 3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사진 4〉 삼고리고분군 목곽묘(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와 두락리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석곽 바닥면에 목주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석곽 축조 시 붕괴를 방지하고 벽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주를 사용한 구조는 장수 삼봉리 8.9호분, 남원 두락리 32호분에서 확인되며 인접한 함양 백천리 1-3호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매장시설인 석곽묘의 평면형태는 장수·장계분지에 비해 운봉고원이 세장한 형태이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성과 함께 지역간·집단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²⁶⁾. 석곽의 규모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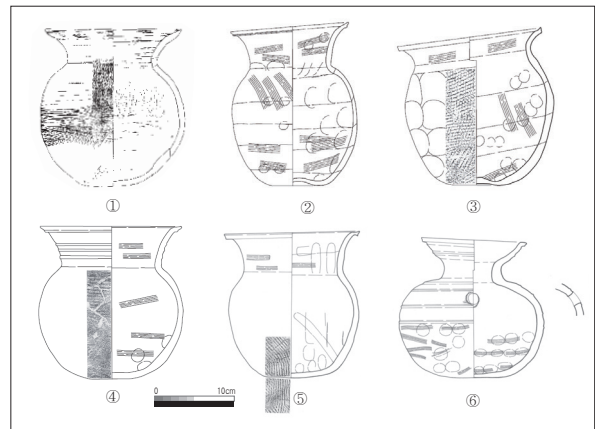
26) 전상학,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 『호남고고학보』25(호남고고학회, 2005), 101~130쪽.

피장자 위상 또는 국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 중 면적 5㎡이상의 대형 석곽은 장수 삼봉리, 동촌리 고분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가야의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주체부의 크기는 가야세력의 국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²⁷⁾.

2. 출토유물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에서는 가야 권역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위신재의 부장과 여러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동일 고분 내에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토기류는 현지생산품이 주종을 이루며, 대가야·소가야·백제·신라·마한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토기들이 공반되고 있다.

금강 수계권의 장수군 일원에는 5세기 전반에 재지(가야계)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등장한다. 장수 삼고리 출토 재지계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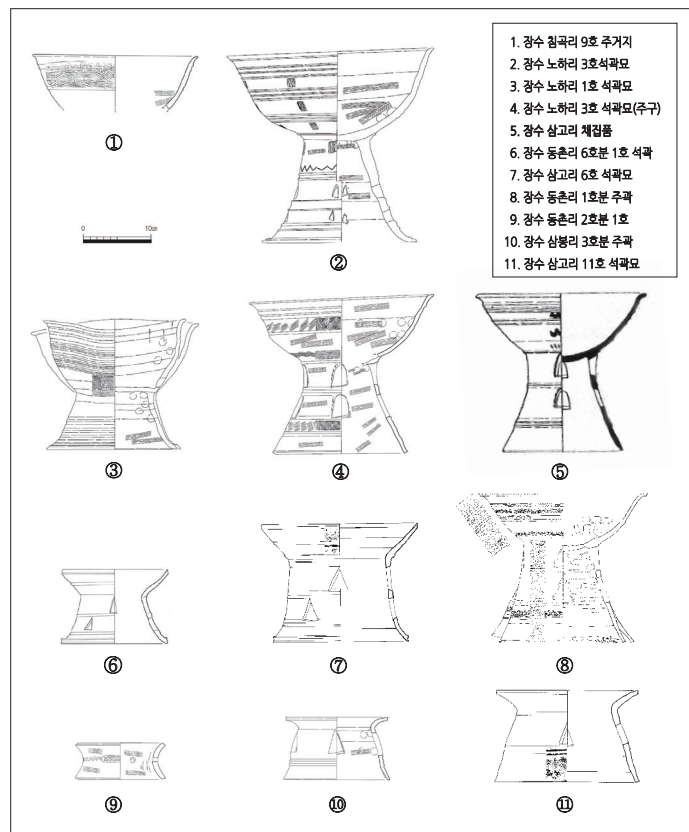
〈도면 5〉 금강 상류지역 마한·백제 광구호(전상학 2019)
[①금산 수당리, ②~⑤장수 노하리, ⑥장수 삼고리]



〈사진 5〉 장수 삼고리고분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27) 곽장근, 『백제 웅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지배』, 제13회 정점백제사 학술회의(한성백제박물관, 2018).

과 대가야양식인 고배형기대를 근거로, 그 상한이 5세기를 전후한 시기²⁸⁾부터 5세기 초엽²⁹⁾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재지계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백제토기는 6세기 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장된다. 노하리고분군 3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대·광구호·장경호·단경호·고배·철검·철도·철촉·철부·금제이식 등이 있다. 만경강유역 마한 분묘유적 출토품과 대가야에서 이른 시기의 고분인 지산동 73호분³⁰⁾·지산동 30호분³¹⁾·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석곽묘에서도 백제·마한·소가야·대가야 지역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도면 6〉 금강 상류지역 가야 기대(전상학 2019)

2018년 조사된 장수 삼고리 1~3호분에서도 토기류는 재지계·대가야양식·소가야양식·마한(영산강유역·만경강유역)·신라·백제 토기 등이 혼재된 양상이다(사진 5). 5세기 전반 이후 6세기 전반까지 여러 지역의 토기가 반입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하리고분군과 삼고리고분군에는 논산 연산지역 수혈식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고배와 기대가 확인되는데, 장수군 일원에 가야 세력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지역과의 교섭을 통해 백제 중앙과의 교류를 시도한 것³²⁾으로도 볼 수 있다.

기대의 변화상(도면 6)을 통해 장수군 일원의 가야고분에 대한 시간성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다. 장수 침곡리 9호 주거지와 노하리 3호 석곽묘 출토품은 이 지역에서 가야계 속성을 지닌 토기 중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발형기대는 장수 노하리 3호 석곽묘 주구와 삼고리 채집품은 5세기 전반

28) 박장근,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20(湖南考古學會, 2004), 91~124쪽.

29) 이희준,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제13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30) 조영현,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31)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 30호분』(1998).

32) 임혜환, 「금강 중·하류역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2019), 54~64쪽.

에 해당하는 합천 옥전 36호묘, 고령 지산동 30호분·73호분, 남원 아영면 수습품 등과 유사한 형태이다. 5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중형의 통형기대와 발형기대가 확인되며, 발형기대의 경우 동촌리 1호분 주곽 출토품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함양 백천리 1-3호분, 지산동 44호분, 옥전M3호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비교적 시기가 늦은 저평통형기대가 출토된다. 장수군 일원에는 5세기 후반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지제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여러 양식의 토기가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대가야와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교류관계를 통한 토기양식의 유통과 관련된 양상으로 이해된다³³⁾. 가야고분 내 백제토기의 부장은 6세기 전반부터 확인된다.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군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이는 금강 수계권의 장수 삼봉리·동촌리, 남강 수계권의 남원 월산리·두락리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은 규모와 출토된 위세품으로 보아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노하리고분군의 경우 철모, 명적 등 실용적 철제무기와 살포, 철부, 철검, 따비 등 농기구 위주의 철기류가 부장된다. 철모는 형태 및 세부속성에서 고령, 합천 등 대가야 철모와 다르며, 울림통이 부착된 명적은 가야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비록 수량은 적지만, 이른 시기부터 지역성을 보이는 철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지역 내에서 철제무기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³⁴⁾. 중심고분군인 장수 삼봉리·동촌리에서는 환두대도, f자형판비, 꺾쇠, 편자, 금동제 화살통장식 등의 위신재가 출토되었다. 금강 수계에서는 대가야에서 출토된 예가 없거나 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철기유물이 출토되어 일찍이 자체적인 철기 제작기술이 존재했으며, 마구 등을 근거로 대가야처럼 고도의 철기문화가 존재하였다³⁵⁾. 삼고리고분군 2호분은 남-북 13m, 동-서 10m 내외의 중형분으로 원형의 장식이 달린 금제이식과 채색옥, 오각형의 장식을 이루는 환두도가 출토되었다(사진 5). 이러한 유물들은 영산강 유역이나 고령[대가야], 합천 옥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수장층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최근 장계리 8호분에서는 망치와 모루, 집게로 구성된 단야구 세트가 출토되어 장수군 일원에 철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공



〈사진 6〉 장계리 8호분 출토(전북문화재연구원 2020)

33) 전상학,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심포지엄(국립 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33~48쪽.

34) 유영춘,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57(호남고고학회, 2017), 38~75쪽.

35) 유영춘, 앞의 책, 71~72쪽.

정을 주도했던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입증해 주었다³⁶⁾. 다라국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옥전 M3호분서 단야구가 출토되었는데, 철기생산을 장악한 국가 최고 지배자였기에 단야구를 상징물로 부장한 것이라고 한다³⁷⁾. 단야구는 농경사회 수장층 분묘에 부장된 살포에 대응하는 상징물이었다³⁸⁾.

IV. 맺음말

199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은 문화유적총람에 보고되어 있는 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처음으로 가야의 존재가 장수 삼고리고분군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³⁹⁾.

최근 고고학과 문헌에 대한 연구성과에 의해 장수군 일원에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학계에서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 장수군 일원의 가야,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세력, 진안고원의 가야, 장수가야 등으로 불렸던 장수군의 가아는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伴跛國)으로 비정⁴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반파국은 가야계 소국들 중 유일하게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즉 금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가야의 영역을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 정치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⁴¹⁾.

반파국은 봉후(冢)와 저각(창고)을 설치하여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른 가야 소국이며,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삼국시대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들의 상황이 문헌에 등장한다. 봉화는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⁴²⁾. 봉화는 주변의 급박한 상황을 중앙으로 신속히 전달해 주는 군사통신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를 운영했던 정치세력의 중심지로 연결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110여개소의 봉화는 남원, 진안, 무주, 완주, 임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되어 여러 갈래의 봉화로가 전북 가야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장수로 이어진다. 이들 봉화는 대체로 장수군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과 교통로를 감시하기 좋은 산봉우리에 위치하며, 일

36) 전북문화재연구원, 주 4)의 보고서.

37)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라국』(해안, 2007).

38)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 『호남고고학보』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45~74쪽.

39) 박장근, 「전북 장수군의 유적 현황과 보존 실태」, 『호남고고학보』2(호남고고학회, 1995).

40) 박장근, 「백제 웅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지배』제13회 정점백제사 학술회의(한성백제박물관, 2018).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90~107쪽.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역사와 담론』90(호서사학회, 2019), 47~82쪽.

41) 박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1~34쪽.

42) 박장근, 앞의 책, 27쪽.

부 고대산성과 세트를 이룬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봉화는 장수군 일원에 존재했던 정치세력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⁴³⁾. 섬진강 수계의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봉화의 운영주체는 금강 상류인 장수군 일원에 존재했던 가야로 파악되었다⁴⁴⁾.

1600년 전 장수군 일원에 존재했던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인 반파국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하여 6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존속했던 정치체로서 분묘·관방·생산유적 등에서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토유물을 통해 주변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장수군 일원에는 240여기의 중대형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백두대간 서쪽에 유일한 가야계 고총으로 재지세력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한 양상이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는 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⁴⁵⁾. 고총의 존재여부는 그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고총의 규모와 기수는 조영집단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장수군의 가야고분 축조세력인 반파국의 고총은 규모나 분포범위에 있어 백두대간 서쪽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총 중 최대를 이루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이들 고총은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축조가 이루어졌다.

장수군의 가야고분에서는 독자적인 무덤양식[묘제]이 확인되는데, 가야문화가 들어오기 전 종래 토착세력인 마한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특징적인 봉토와 매장시설 축조기법이 확인되고, 봉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면서 연접분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가야의 고총이 영남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호. 영남 가야문화의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무덤에 부장된 유물은 가야 권역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위신재의 부장, 여러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동일 고분 내에서 확인되고 있어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반파국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출토유물들을 통해 백제, 신라, 마한, 대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 등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43)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90~107쪽.

44) 전상학,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전라북도·임실군·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25~36쪽.

45) 이희준, 「신라 고총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20(영남고고학회, 1997).

참고문헌

논문

- 곽장근, 「전북 장수군의 유적 현황과 보존 실태」 『호남고고학보』2(호남고고학회, 1995).
- 곽장근,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書景文化社, 1999).
- 곽장근,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20(湖南考古學會, 2004).
- 곽장근,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제 24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한국고대사학회, 2011).
- 곽장근, 「금강 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한국상고사학회, 2011).
- 곽장근, 「백제 웅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지배』제1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한성백제박물관, 2018).
- 곽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 권주현, 『가야인의 삶과 문화』제1판(서울:예안, 2009).
- 김세기,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학연문화사, 2003).
- 김승옥,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마한, 백제 그리고 가야』제 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호남고고학회, 2019).
- 김용성,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춘추각, 1998).
-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한국상고사학회, 2011).
- 김재홍,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백제연구논총 5(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 박승규,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49(한국고고학회, 2003).
- 박승규, 「대가야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 유영춘 외, 「장수군 제철유적 지표조사」 『2014·2015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호남고고학회, 2015).
- 유영춘,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57(호남고고학회, 2017).
- 유영춘,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 유 철, 「전북지방 묘제에 대한 소고」 『호남고고학보』3(호남고고학회, 1996).
- 유 철,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 이도학, 「伴跛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90(호서사학회, 2019).
-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2(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 이성주,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성격」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 李熙濬,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慶尙北道, 1995).
- 이희준, 「신라 고층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20(영남고고학회, 1997).
- 이희준, 「대가야 토기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제13호(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임혜환, 「금강 중. 하류역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2019).
- 전상학,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 『호남고고학보』25(호남고고학회, 2005).
- 전상학,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한국상고사학회, 2011).
-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43(호남고고학회, 2013).
- 전상학,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호남고고학회, 2017).
-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 전상학, 「장수 삼고리. 삼봉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 조사성과』(국립 가야. 나주문화재단 연구소, 2018).
- 전상학,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학술심포지엄(국립 가야. 나주문화재단 연구소, 2019).
- 전상학, 「호남 동부지역 가야고분의 유형」 『마한. 백제 그리고 가야』제 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호남고고학회, 2019).
- 전상학, 「무덤을 통해 본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호남고고학회, 2020).
- 전상학,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전라북도. 임실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 전영래, 「장수 삼봉리 북방식 지석묘」 『전북유적조사보고』제10집(전주시립박물관, 1979).
-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호남고고학회, 2004).
- 조명일, 「전북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전북대학교대학원, 2009).
-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 조영제, 『옥전고분군과 다락국』(혜안, 2007).
- 조인진,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2001).
- 지건길,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 · 철기 일괄유물」 『고고학지』2(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0).
- 하승철, 「남원지역 가야 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남원시. 호남고고학회, 2014).
- 한수영,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분묘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2015).
-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UNESCO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문(전라북도. 장수군. 호남고고학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고분편-』(2009).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2019).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고리 고분군』(1998).
- 군산대학교박물관, 「삼봉리 고분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
- 군산대학교박물관, 『鎭安 五龍里 古墳群』(2001).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봉리, 동촌리 고분군』(2005).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침곡리유적』(한국도로공사, 2006).
- 군산대학교박물관, 『침곡리 마무산유적』(2008).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 30호분』(1998).
- 전북대학교박물관, 『남양리』(2000).
- 전북대학교박물관, 「장수 월곡리 장척 2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장수 월곡리유적」 『유적조사 보고서』(2001).
- 전북대학교박물관, 『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한국도로공사, 2007).
-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침령산성』(2005).
-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합미산성』(2005).
- 전북문화재연구원, 『남원 월산리고분군』(2010).
- 전북문화재연구원, 「장수 백화산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2020).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2015).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2017).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 삼봉리 고분군』(2017).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의 가야고분』(장수군, 2017).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노하리고분군』(2018).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고분군 - 30호분-』(2019).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 - 16. 19호분-』(2020).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고분군 - 1. 24. 25호분-』(2020).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호덕리고분군B』(2020).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 1~3호분-』(2020).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
- 윤덕향, 이민석, 「장수 호덕리고분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한국도로공사, 2000).
- 조영현,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고령군 대가야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 토론문

임혜환(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논고는 장수군 가야 고분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최근 장수지역 발굴 성과와 장수지역 고분이 가지는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을 도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된 만큼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질문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아래 토론문에 담고자 합니다. 아직 식견이 풍부하지 않아 다소 엉뚱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장수군에는 총 240여기에 이르는 고총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수군에 이렇게 많은 수의 고총고분이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교통의 요지’외에 다른 점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최근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삼고리 고분군과 인접한 다른 장수지역 고분군(장수 삼봉리, 동촌리, 노하리 고분 등)의 차이점 내지 특징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지역 내 고분군을 시간성이나 고분의 특징별로 묶어 소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3.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가야를 비롯하여 마한, 백제, 신라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배경과 삼고리 고분군이 가지는 위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선생님께서는 장수지역 가야고분의 특징을 1) 분구 조성 후 매장주체부를 반지하식으로 조성 2) 주구의 존재 3) 호석의 부재 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최근 임실 금성리에서 출토된 방형분 양상과 유사합니다. 임실 금성리 방형분은 매장주체부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세)장방형의 수혈식 석곽묘로 판단되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특징이 모두 확인되며, 내부에서는 백제 토기와 함께 가야계 원통형기대, 개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유구의 잔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극소수의 유물만이 출토되어 조성 주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수지역 가야고분의 특징과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임실 금성리 방형분의 조성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5. 논산 연산지역 출토 수혈식석곽묘들은 금강유역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수혈식석곽묘로 백제 지방의 토착 세력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동부지역 고분군과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전북 동부지역과 논산 연산지역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논산지역에 가야계 요소가 가미된 수혈식 석곽묘와 유물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발표 2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발표 :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토론 : 조성원(부경대학교박물관)

【목차】

- I. 머리말
- II. 유적 소개 및 유물의 출토양상
- III. 출토유물의 검토 및 상대편년
- IV. 단계별 부장유물의 특징과 그 가치
- V. 맺음말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장수지역은 진안고원에 속한 지역으로 지정학적 위치상 고대 교통로의 중심지로 문화적 접이 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¹⁾. 이 지역 초창기 연구는 백제의 영향권에 있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군이 확인되면서 가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 후 진행된 고고학적 조사에서 5-6세기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²⁾.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큰 틀에서 장수지역 고분의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고 있어, 고분군 개개의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누적된 발굴조사성과에 비해 일차적인 연구가 미진한 장수 삼고리고분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와 유물의 출토양상을 살펴보고, 출토 토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매장주체부와 유물의 구성, 기종별 검토를 통해 상대편년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고리고분군의 특징과 문화재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적소개 및 유물의 출토양상

장수지역 고분유적에 대한 조사는 지난 197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문화유적조사를 시작으로 1988년 장수군 문화재 지표조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익산-함양간 고속도로 구간 내 유적 지표조사, 2000년 장수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6년 장수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관련 지표조사 등에서 유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17년에 이르러 이 지역 고분에 대한 직접적인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위치와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였고, 기

1) 광장근, 「장수기야의 지역상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2011),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91쪽.

2)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輯』(호남고고학회, 2013), 38쪽.

조사된 고총 208기와 신규 32기를 추가 240기의 고분을 파악하였다.

삼고리고분군은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장수천과 장계천이 합수하는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삼장마을 북쪽 능선의 북사면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다. 봉토분은 주 능선에 석곽묘는 대체로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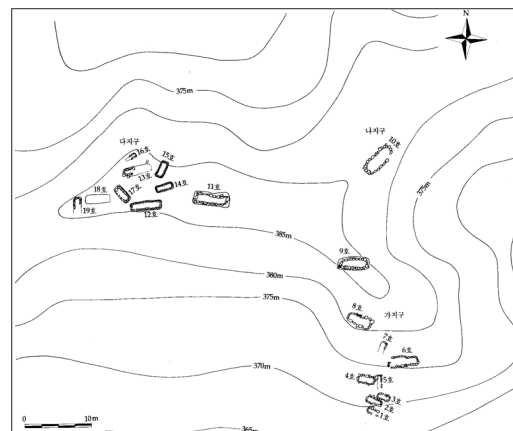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가야고분 조사였다. 이후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표1>과 같이 총 6차례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분석을 시도한 유물은 <표2>와 같이 308점을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장수 삼고리고분군B 조사현황

구분	조사연도	조사내용	조사기관	비고
지표조사	1993년	혜손된 석곽묘 확인	군산대학교 박물관	발간
발굴조사	1995년	석곽 19기	군산대학교 박물관	발간
지표조사	2017년	봉토 7기/ 총 240여기 확인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발간
발굴조사	2018년(1차)	석곽 12기, 토광 13기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발간
	2019년(2차)	석곽 3기, 토광 1기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미발간
	2020년(2차 1차추가)	석곽 6기, 토광 10기, 옹관 1기		
	2020년(2차 2차추가)	석곽 2기, 토광 1기 등		
	2021년(2차 3차추가)	석곽 3기, 토광 1기		

1995년 군산대학교박물관 조사 결과 19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고분의 봉토는 유실되었으며, 장축 방향은 주로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 방향으로 두고 있다. 주곽의 주변에 있는 소형 고분과 방축차가 출토된 5·15·19호석곽묘와 삼족토기가 출토된 7호 석곽묘는 남-북 방향으로 장축방향을 두고 있다. 석곽묘의 배치상태는 한 봉분 내에 여러기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다. 토기류는 유개 고배, 유개식 장경호, 중경호, 광구장경호, 편구호, 발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개배 등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점하고 있다. 백제토기는 삼족기 1점과 병형토기 1점 정도 확인되었다.



<도 1> 장수 삼고리고분 분포현황도(1995)

3) 삼고리 고분군은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68기이다. 본 고에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유구(석곽묘 31기, 토광묘 13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토광목곽묘는 유구의 특수성이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15호 석곽묘 전경



11호 출토유물 일괄



13호 출토유물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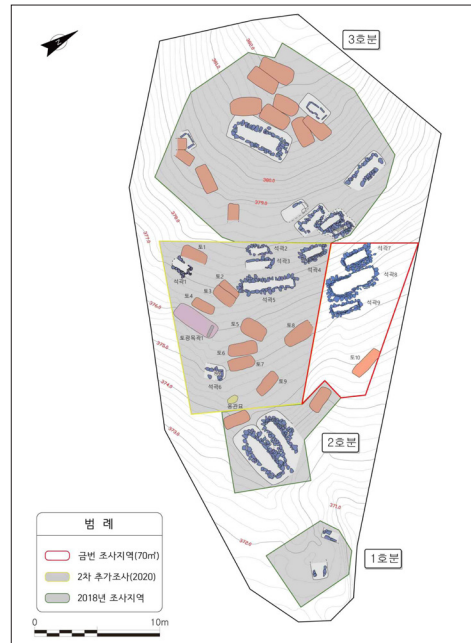


7호 석곽 출토 삼족기

〈사진 1〉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 주요 유구 및 출토유물

2018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남동쪽 사면부에 자리한 1~3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2기의 석곽묘와 13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2호분에서 2기의 석곽묘가 ‘ㄱ’자형으로 나란히 확인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출토유물은 2-1호에서 유개식 장경호, 광구장경호, 병 등의 토기류와 금제이식(대가야계)과 경식 등의 장신구류, 방추차와 철도자 등이 확인되었다. 2-2호에서 단경호, 유개식 장경호, 삼족기 등의 토기류와 오각형 환두도, 철촉, 철검 등의 무기류와 교구, 재갈 등의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3호분에서는 석곽묘 8기와 토광묘 11기가 조사되었는데 한 봉분 내에서 3-1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주변에 토광묘를 다수 배치한 형태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석곽(3-1호)에서는 토기류는 유개식 장경호, 고배, 발형기대 등 대가야계, 백제계·재지계·신라계 고배와 철촉, 철부 등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3-4호석곽묘에서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계 토기류와 철검, 철부 등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광묘에서는 광구장경호, 파수부완, 개배 등이 확인되며, 10호 토광묘에서 장경소호와 공반되어 유공소호가 출토되었다.



〈도 2〉 2018~2021년 발굴조사 현황도



2호분 조사 후 전경



2-1호 출토유물



2-2호 출토유물



3-1호 석곽 전경



3-1호 석곽묘 출토유물

〈사진 2〉 2018년 장수 삼고리고분 2·3호분 유구 및 출토유물

2019-2021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석곽묘 14기와 토광묘 13기가 조사되었다. 소형 봉토분인 8-10호분은 능선상에 위치하며, 석곽묘와 토광묘는 사면부에 자리한다. 출토유물은 8·9호분에서 유개식 장경호, 저평통형기대 등 대가야계와 횡병 등 백제계, 재갈, 교구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2020년 2차 추가조사에서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토광목곽묘에서 대가야 양식 중형투창 발형기대와 유개식 장경호, 개, 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촉 등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



〈사진 3〉 2020년 장수 삼고리고분 목곽묘(10호) 조사후 근경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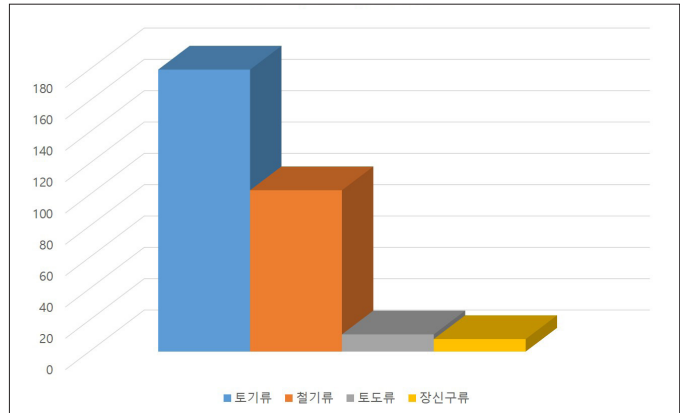
〈표 2〉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유물 현황표

유구명	토기류																	토제품											장신구		합계
	호류							기대	고배	파수부발	개	배	삼족기	병	기타	방추차	철모		철부	철촉	철검	철도자	환두도	미상	마구류	금제이식	옥·유리				
	장경호		장경소호		단경호	중경호	대부호																					소호			
	유개	무개	유개	무개																									발형	통형	
10호목곽묘					4		1		1	2		4				1		1	2	1	1									18	
1호석곽(군)		1																												1	
3호석곽(군)																2														2	
5호석곽(군)			1									1				1														3	
6호석곽(군)	4				1			3							1			1												10	
7호석곽(군)													1																	1	
8호석곽(군)	2				1								2		1	2	2													10	
9호석곽(군)					2																									2	
10호석곽(군)	1																1						1							3	
11호석곽(군)	4					1			2							1				1	5	1	1							16	
12호석곽(군)	3	1						1				1	1			1			1											9	
13호석곽(군)	4	1			1					3	1	4			1	1		1	2	7						8				34	
14호석곽(군)		1			1		1									1	1										1			6	
15호석곽(군)		2			1							1	1				1		1	4	1							3		15	
17호석곽(군)												1	1						1	2	1									6	
18호석곽(군)		3	1									2	2																	8	
1-2호석곽(전)											1	1	2																	4	
2-1호석곽(전)	1	2	1												1		1					2					1	2		11	
2-2호석곽(전)	3	1			1							2	2	1				1	2	19	1	1	1	1	1	4		1		41	
3-1호석곽(전)	1		2		2		1	1		5		1				1	1		2	2	2	1		1						23	
3-2호석곽(전)	1					2							2						1	2	1	1								10	
3-3호석곽(전)											1																			1	
3-4호석곽(전)		1			1							1	1						1	1	1	1								8	
3-5호석곽(전)		1	1													1														3	
3-6호석곽(전)			1		1												1													3	
3-7호석곽(전)																				3	1									4	
2-1호토광(전)	1		1										2						1		1									6	
2-2호토광(전)			1				1						2	2			1	1												8	
3-1호토광(전)	1	1								1			1				1													5	
3-2호토광(전)	1	1					1						1																	4	
3-3호토광(전)	2												1	1																4	
3-4호토광(전)			1							1										3	1									6	
3-5호토광(전)																1														1	
3-6호토광(전)	1						1						1						1	2	1									7	
3-7호토광(전)	1				1								1	1																4	
3-8호토광(전)	1	1			1																									3	
3-9호토광(전)																				1		1								2	
3-10호토광(전)	1		1													1														3	
3-11호토광(전)			1	1				1																						3	
합 계	25	22	14	2	18	1	6	3	2	6	12	3	22	24	2	3	15	11	3	17	52	13	9	1	2	12	2	6		308	

Ⅲ. 출토유물의 검토 및 상대편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분 출토유물 가운데 토기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분군에 대한 6차례의 조사 가운데 4차례가 최근(2019-202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보고서가 미발간된 상태이다. 발간된 자료의 부족으로 출토유물 개개의 형식학적 변천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기 발간자료와 최신 발굴성과 가운데 이 지역 최초로 확인된 목곽묘를 포함하여 주요 유물을 선정한 후 유구 사이의 상대연대를 구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은 출토유물 308점(토기류: 180점, 철기·마구류: 103점 장신구류: 8점, 기타: 11점) 가운데 토기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토된 토기들 가운데 개체 수가 안정적이고, 계통별 시기적 변천양상을 파악하기 쉬운 대가야계 토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도 3〉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재질별 현황

또한, 개체 수가 적어도 기존에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토대로 분석 대상 이외의 가야토기·백제 토기 등의 공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출토유물 검토

대가야계 토기는 삼고리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고 있으며, 대가야권역에서 출토되는 기종 대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토기류는 기종별로 기대류(발형기대·저평통형기대), 장경호류(유개식 장경호·무개식 장경호·대부장경호), 고배류(이단일렬투창고배·일단투창고배), 개, 배, 파수부완, 대부파수부호 등이다.

본 장에서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주요한 기종인 기대류, 장경호류, 고배 등을 선정하여 출토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대

기대는 상부에 토기를 엮을 수 있도록 깊은 발부와 대각으로 구성된 토기이다. 크게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로 구분된다. 발형기대의 변화양상은 발부가 깊은 것에서 얇고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구연은 노형기대의 흔적인 굴곡이 남아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은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에서 곧게 뻗어 내리는 것으로 투창은 중형·방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뀐다. 발부 문양은 복합구성(

반원문·거치문·결승문·격자문 등)에서 파상문 주체로 변화하며, 쇠퇴기에는 무문화되는 방향성을 보인다⁴⁾.

삼고리 출토 발형기대는 전)목곽묘·3-1호석곽묘와 지표채집품으로 3점이 확인되었다. 1형식은 전)목곽묘와 지표 채집품으로 발부가 깊고, 파상문과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각부 투창은 중형이며,

대각부와 발부의 비율이 1:1.6이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소성상태가 양호하고 전면에 자연유가 관찰된다. 고령 지산동 30호분과 지산동(영) 2지구 80호와 유사하며, 그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영제에 따르면 1형식의 발형기대는 전형적인 대가야 발형기대로 발전되기 전 과도기 단계의 양식으로 보인다⁵⁾. 대가야지역에서 제작되어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3-1호석곽묘 출토품의 경우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목곽묘 출토품에 비해 소성도가 낮아 자연유가 관찰되지 않고, 발부에 점열문이나 송엽문은 시문되지 않고, 파상문만 시문 된다. 발부의 형태가 깊은 편이나 외반하는 형태를 보이며, 기벽의 일부가 부풀어 올라 있다. 전)3-1호석곽묘 출토품은 목곽묘와 삼고리 채집품에 비해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을 가능성이 있다.

목곽묘 출토품은 고령 지산동75호·지산동35호, 영)지산동 2지구 80호, 경) 1·39호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으며, 전)3-1호석곽묘 출토품 고령 지산동33호출토품과 유사하다.

저평통형기대는 통형기대의 기고가 낮아지고 간략한 형태의 시대이다. 토기를 엮을 수 있는 수부의 깊이가 얕으며, 수부 아래 통부 없이 대각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저평통형기대는 군)6호석곽묘, 군)11호석곽묘와 군)12호석곽묘에서 6점이 확인되었다.

전)목곽묘·채집품→전)3-1호 석곽묘		
1형식		2형식
		
전)목곽묘	채집품	전)3-1호석곽

〈도 4〉 삼고리 출토 발형기대 변천양상

군)6호·11호석곽→군)12호석곽		
1형식		
		
군)6호석곽	군)11호석곽	군)12호석곽

〈도 5〉 삼고리 출토 저평통형기대 변천양상

4) 박천수, 『가야토기』 (진인진, 2010),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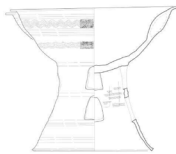
5) 조영제, 「대가야식 발형기대의 상대편년」, 『부산대 고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2010), 744쪽.

저평통형기대의 변화양상은 수부가 외반하는 것에서 수평을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대각의 구성이 3단 이상에서 2단 이하로 구획된다. 대각은 내만하는 형태에서 굴곡진 형태로 다시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투창은 방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연구성과⁶⁾에 의하면 삼고리 출토품은 대각부가 2단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각형 투창이 뚫려있다. 대각부의 단면형태가 곧게 뻗은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가장 후행하는 V형식에 해당하며, 고령 지산동45-2호·영)2지구68호·지산동44-23호, 장수 삼봉리 3호 주석과, 함양 백전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유구 간의 선후관계는 6호·11호가 12호에 비해 이른 속성들이 간취되고, 공반유물로 보아 약간 더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삼고리 출토 기대 비교분석표

발형기대		저평통형기대		비고	
1형식	2형식	1형식			
삼고리고분					* 발형기대 -1·2번 동일 형식, 발부하단 점열문시문 -3번 발부 파상문시문, 자연유x, 소성도 낮음 , 현지제작 가능성有
	1.삼-전)목곽묘		4.삼-군)6호석		
					
	2.삼-지표채집		5.삼-군)11호석		
비교자료					* 저평통형기대 -5번 대각 하단에 파상문 시문 -4번 6호석에서 3·4단으로 구분된 것도 공반
	7.지-75호	9.노-3호	11.지-44-23호	13.삼봉-3호	
					* 유적명 삼-장수 삼고리 삼봉-장수 삼봉리 노-장수 노하리 지-고령 지산동 지·영)-고령 지산동2지구
	8.지·영)-80호	10.지-33호	12.지·영)2-68호	14.지-45-2호	

2) 장경호

장경호는 크게 유개식과 무개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유개식 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길고 뚜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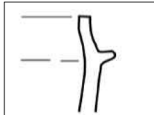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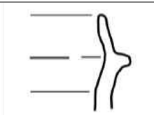


6) 최은비,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받이 턱이 있어 상부에 개를 엮을 수 형태의 호류이다. 경부는 돌대에 의해 2-5단으로 구획되며 파상문이 주로 시문 된다. 경기부에 1-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고령지역 내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다량 부장되며, 대가야토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기종 가운데 하나이다⁷⁾.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유개식 장경호는 경부를 돌대로 2단(14점) 또는 3단(25점)으로 구분한 2가지 형식만 39점이 확인된다.

본 고에서는 3단으로 구성된 장경호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삼고리고분에서는 군)68·10·11·12·13호석곽묘·전)2-1·2-2·3-1·3-2·3-5호석곽묘·2-1호토광묘 등에서 총 25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변화양상은 저부 형태가 원저에서 평저로 진행되고, 동부가 경부보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또한 뚜껑받이 턱의 돌출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동최대경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며 구연부가 내경하다가 '3'자상으로 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유개식 장경호가 출토 수량이 다른 기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한 점과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쉬워 필자의 분류안⁸⁾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 삼고리 출토 유개식 장경호 형식분류표

기고+ 경부고/동체부고의 비				구연부형태				경기부 돌대수		속성 조합	형식	해당유구 및 유물	수량	비고
...	Ⅲ1	Ⅲ2	Ⅳ	A	B	C	D	a	b					
...	-	-	-	-	-	-	-	-	-	-	-	-	-	-
...	●				●			●		Ⅲ1Ba	1	군)8호2, 전)3-1호67,	2	연질, 대가야계
...	●				●				●	Ⅲ1Bb		군)11호1	1	재지+대가야계
...		●			●			●		Ⅲ2Ba	2	전)2-2호29	1	재지+대가야계
...		●				●		●		Ⅲ2Ca		전)2-2호19	1	
...		●					●		●	Ⅲ2Db		군)6호1~4, 군)8호1, 군)10호1, 군)11호2~4, 군)12호1~4, 군)13호1~4, 전)3-2호71, 전)2-1호14, 전)2-2호20	17	대가야산, 재지+대가야계
...			●			●			●	IVCb	3	전)2-1호토40	1	대가야계
* 경부와 동체부의 높이와 비율														
Ⅲ1:경고)9.5~12.5cm·동고)11~18cm인 것, 비율: 1:1.5 ~ 1.99이하(1), Ⅲ2:경고)9.5~12.5cm·동고)11~18cm인 것 , 비율: 1:1 ~ 1.4이하(2), Ⅳ:경고)9.5cm·동고) 11cm이하, 비율: 1:0.9이하														
* 구연부 형태												* 경기부 돌대수		
												a: 경기부의 돌대가 1조 이하인 것 b: 경기부의 돌대가 2조 이상인 것		
														
														
														
A B C D														

1형식은 Ⅲ1-B의 속성을 조합한 것으로 2개체가 확인되며, 군)8호·전)3-1호석곽묘에서 소량 확

7) 박승규, 『가야토기』 『가야고분군Ⅱ』(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8) 박성배, 『호남동부지역 가야토기의 유입과 변천』(경상대학교대학원, 2016).

인된다. 경부보다 동체부의 비중이 크고, 경기부 돌대는 1조 이하로 형성하였다. 경부에 돌대를 사용하지 않고 음각선으로 2단으로 3분하고 있으며, 동체부에 격자 타날흔이 관찰된다. 현지 제작품으로 판단된다. 진안 황산리1호와 고령 지산동(경) 67호석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2형식은 총 19개체가 확인되며,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군)6호·8호·10호·11호·12호·13호석곽묘, 전)2-1호·2-2호·3-2호석곽묘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비중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한다. 동체부 형태는 편구형을 띠며, 구연부의 형태가 '3'자형으로 굴곡져 내경하는 형태로 단을 형성한다. 전형적인 대가야식으로 경부에 조임이 있고 경기부에 2조의 돌대를 형성하고 편구형의 동체부를 가지는 형태이다.

고령산 또는 대가야양식을 충실하게 구현한 현지 생산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2-1호·2-2호 출토품이 동체부의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 M2호분, 장수 동촌리 6-1호 출토품과 유사하며, 고령 지산동44·45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3형식은 IV-C-b의 속성을 조합한 것으로 전)2-1호토광묘에서 1개체만 확인된다. 경부의 비중이 크고, 동체부에서 정면하였다. 장경호 외면에 자연유가 전면에서 관찰되며, 고온으로 소성되었다.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며, 저부는 말각평저 형태가 확인된다. 고령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 입석리 지표수습품과 (경)고령 지산동21호석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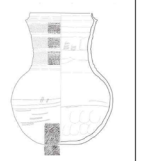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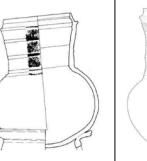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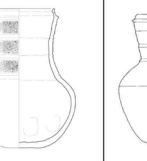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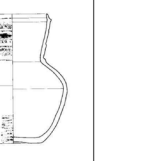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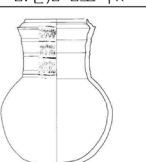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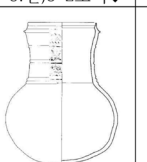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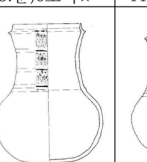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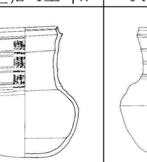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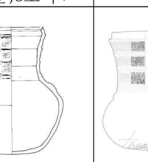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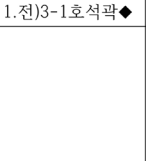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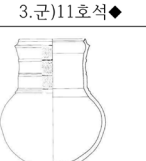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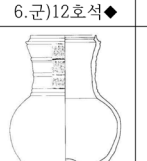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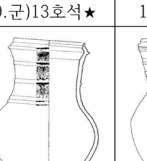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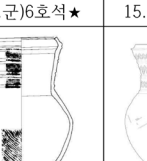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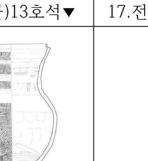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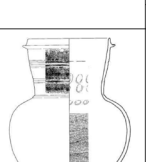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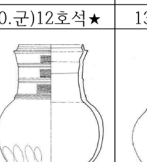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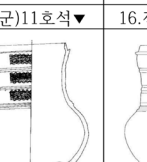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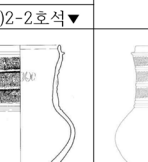
〈표 5〉 삼고리 출토 유개식 장경호의 변천양상

전)3-1호석 => 군)6호·8호·10호·11호·12호·13호석곽묘·전)3-2호·2-1호·2-2호석곽묘 ==> 전)2-1호토					
1형식	2형식				3형식
					
전)3-1호석곽	전)3-2호석곽	군)12호석곽	군)13호석곽	전)2-1호석곽	전)2-1호토

유개식 장경호 출토 요구 간의 선후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형식은 전)3-1호석곽묘가 가장 선행하고, 2형식은 군)6호·8호·10호·11호·12호·13호석곽묘·전)2-1호석·2-2호·3-2호석곽묘 출토품이다. 3형식은 동체부가 경부보다 작아지면서 점점 소형화되는 단계로 전)2-1호토광묘 출토품이 가장 후행한다.

무개식 장경호는 단경호에 비해 긴 경부를 가지는 호이다. 구연부 근처에 뚜껑받이 턱이 없어서 상부에 개를 엮을 수 없는 형태이다. 외반하는 경부를 가지며, 여러 단의 돌대로 구획하고 파상문을 주로 시문 한다.

〈표 6〉 삼고리 출토 유개식 장경호 비교분석표

삼 고 리 고 분	유개식 장경호(대가야산★, 대가야+현지제작◆, 재지+대가야양식+현지제작▼)					
	1형식	2형식				3형식
						
비 교 자 료						
						
						
비교자료						
지·경)21호석3						
삼봉-2-4호토						

삼고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무개식 장경호는 총 22점으로 군)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8호 석곽묘 · 전)2-1 · 2-2호 · 3-4호 · 3-5호 석곽묘 · 전)3-1호 · 3-2호 · 3-3호 · 3-6호 · 3-7호 · 3-8호 · 3-10호 · 3-11호 토광묘에서 총 22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완형이 아니거나, 이질적인 양식을 보이는 7점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15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물은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확인된다.

유물의 변화양상은 원저에서 평저로 동부가 경부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동최대경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며 일부 돌대가 뚜껑받이 턱처럼 강하게 형성된 양상도 확인된다⁹⁾. 무개식 장경호에서 파악되는 4가지의 속성들을 설정하여 분석한 최신의 연구성과를 바탕¹⁰⁾으로 토대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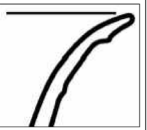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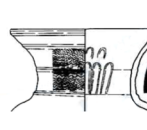

Ic형식은 1-1-1-3의 속성을 조합하는 것으로 전)3-1호 석곽묘에서 1개체만 확인된다.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고, 토기의 크기가 다른형식에 비해 대형품이다. 동체부의 높이가 높은 편으로 경기부에 돌대 없다. 연질로 소성되어 있고, 구연부에 크게 돌출된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지 제작품으

9) 조인진,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2001), 22~26쪽.

10) 최은비,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연구』(부산대학교대학원, 2016), 43~46쪽.

로 판단된다.

〈표 7〉 삼고리 출토 무개식 장경호 형식분류표

동최대경 위치		경부 형태		경고/동고		구연부 형태				속성 조합	해당유구 및 유물	수량	비고
1	2	1	2	1	2	1	2	3	4				
●		●		●				●		1113	전)3-1호49	1	연질, 대가야계, 고령x
●		●		●					●	1114	군)15호3, 전)3-1토101	2	재지+대가야계
●		●			●	●				1121	전)3-6호토116	1	재지+대가야계
●		●			●		●			1122	전)3-7호토125	1	재지+대가야계
●		●			●			●		1123	전)3-10호토133	1	재지+대가야계
	●	●		●		●			●	2114	군)18호1·2	2	재지+대가야계
	●	●			●	●				2121	군)12호석·15호2, 전)3-3호토108· 전)3-4호90·3-5호93·3-10호토131	6	대가야계
	●	●			●				●	2124	군)14호	1	대가야계
동최대경 위치										경부의 높이에 따른 동체부의 비율(경고/동고)			
1: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는 것										1: 수치가 0.75 미만인 것			
2: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는 것										2: 수치가 0.75 이상인 것			
구연부 형태										경부 형태			
													
1		2		3		4		1		2			

IVa형식은 2-1-1-2의 속성을 조합하는 것으로 전)3-6호토광묘에서 1개체만 확인된다. 앞선 형식과 경부와 동체부의 형태는 유사하며, 경부와 동체부의 비율이 거의 같다. 동최대경이 상위에서 있으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유물은 (영)고령 지산동2지구-54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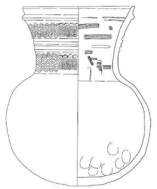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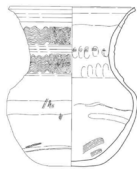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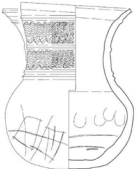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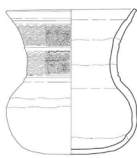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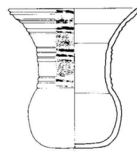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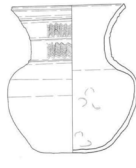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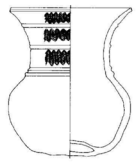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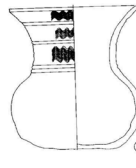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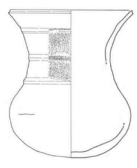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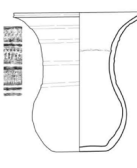
구연부의 조합상 세부 형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전)3-7호토광묘·3-10호토광묘 출토품은 재지(기종)+대가야양식(파상문)이 더해진 것으로 광구호에 가깝다. Ⅱ·Ⅲ형식은 현재까지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IVb형식은 2-1-2-1의 속성 조합을 보이는 것으로, 군)12호석·14호·15호, 전)3-3호토·3-10호토·3-4호·3-5호석광묘에서 총 7점이 출토되었다. 삼고리 고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형식이다. 경부와 동체부의 높이가 유사하거나 동체부가 작아진다.

특히 군)14호 출토품의 경우 동체부의 비율이 1.32로 동체부가 소형화된 단계로 가장 후행하는 형식이다.

무개식 장경호 출토유구 간의 선후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전)3-1호석광묘, 2단계는 전)3-6호토광묘이다. 3단계는 동체부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이른시기는 전)3-5호·3-4호석·3-3호·3-10호토·군)12호·15호석광묘가 해당하고, 군)14호석광묘가 가장 후행한다.

〈표 8〉 삼고리 출토 무개식 장경호의 변천양상 및 비교자료

전)3-1호석 => 전)3-6호토 ==> 전)3-5호·3-4호석·3-3호·3-10호토·군)12호·15호석 ==> 군)14호석					
I c	IVa	IVb-1		IVb-2	
					
전)3-1호석곽	전)3-6호토광	전)3-5호석곽	전)3-10호토광	군)12호석곽	군)14호석곽
비교자료					
					
	지·(영)2-54호	지44호-4호석	지44-9호석	순운-3호석	문)지518-5호석곽

3) 고배

고배는 배신이 깊은 것에서 점차 얇아져 평평한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은 팔자형에서 직선화되어 통형으로 변한다. 투창은 세장방형의 2단에서 1단으로 바뀌고, 쇄퇴기에는 원형으로 바뀐다. 투창은 침선으로 구획하는 것에서 돌대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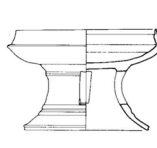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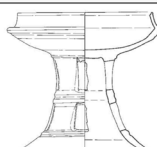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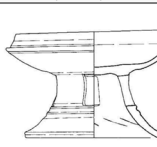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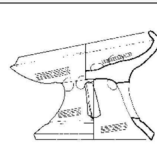
삼고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고배는 총 12점으로 마한·백제계, 대가야계, 신라계 등 다양한 계통이 확인된다. 분석대상은 대가야계 고배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형식은 이단일렬투창고배로 목곽묘와 전)3-1호석곽묘에서 총 3점이 확인되었다.

대가야에서도 비교적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곽묘 출토품은 고령 지산동 73호·30호출토품과 전)3-1호석곽묘 출토품은 고령 지산동 33호석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2형식은 일단장방형투창고배로 군)13호석곽묘에서 3점이 확인되었다. 고령 지산동44호분, 경)49호석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3형식은 쇄퇴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현지 생산품으로 판단된다. 장수 삼봉리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표 9〉 삼고리 출토 고배의 변천양상 및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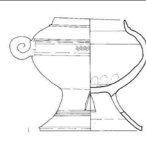
목곽묘 => 전)3-1호석 ==> 전)3-4호토광		
1형식	2형식	3형식
		
전)삼3-1호석	군)삼13호	전)삼3-4호토
비교자료		
		
지73호분	지(경)49호	전)삼봉30호

4) 대부파수부호

대부파수부호는 파수부호에 대각이 부착된 형태로 동체부의 단면 원형에 橋狀 또는 고사리형의 파수가 부착된다. 동체부에 돌대가 돌아가며, 문양대에 파상문이 시문 된다. 투창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이 뚫린다.

유적에서 확인된 대부파수부호는 총 2점으로 전)2-2호 3-2호석곽묘에서 2점만 출토되었다. 1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고, 고사리형 파수가 부착된다. 동체부에 2조의 돌대가 확인되며, 대각부에 사각형 투창이 뚫린다. 지산동(영)2지구 3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2형식은 동최대경이 중위에 오며 대각부에 삼각형 투창이 뚫린다. 고령지역 출토 대부파수부호 형식 가운데 가장 많이 출토된다. (영)고령 지산동 2지구 2호 · 지산동45-3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표 10〉 대부파수부호 변천 및 비교자료

전)2-2호석 1형식	전)3-2호석 2형식
	
전)2-2호석곽	전)3-2호석곽
비교자료	
	
지2(영)2호석	지45-3호석

2. 상대편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고리 출토 대가야토기의 부장양상을 분석하여 각각의 편년서열을 검토하였다. 최신 조사성고가 반영되지 않아 세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주요 유물의 변천양상과 공반양상을 통해 〈표11〉과 같은 상대편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고리고분군의 개략적인 시기는 4단계로 설정된다. 1단계는 대가야토기가 유입되는 단계이다. 매장주체부는 목곽묘로 확인되며, 대가야토기와 소량의 신라토기가 공반된다. 고령 지산동 75호 · 지산동35호, (영)지산동2지구80호 석곽묘와 비교할 수 있다.

2단계는 대가야토기가 우위를 점하고 신라토기와 마한 · 백제계 유물 등의 다양한 계통의 유물들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석곽묘로 확인되며, (전)3-1호석곽묘가 해당된다. 대가야토기와 소량의 신라토기와 및 마한토기가 공반한다. 고령 지산동33호와 비교할 수 있다.

3단계는 대가야 · 소가야 · 백제 · 마한 · 신라토기 등이 혼재되어 부장된 양상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가 석곽묘(군6 · 8 · 10~16 · 15호, 전2-1 · 2-2 · 3-2 · 3-4 · 3-5호석곽묘 등)와 토광묘(전)3-3 · 3-6 · 3-10 등)로 석곽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대가야계토기와 소량의 백제 · 신라토기가 공반되는 단계로 고령 지산동44호 · 지산동45호, (영)지산동 2지구 2호 석곽묘와 비교할 수 있다¹¹⁾. 특히 대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거의 모든 기종이 확인된다. 유개식 장경호의 경우 대가야산과 대가야양식+현지제작, 재지양식+대가야양식의 장경호가 혼재되어 출현한다. 늦은 시기

11) 3단계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고에서는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추후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표 11〉 삼고리 고분 상대편년표

유구명	유물		기대		장경호								고배			대부 파수부호		병	삼족배	단계 구분 비교자료
	발형		저평통 1	유개식			무개식				1	2	3	1	2					
	1	2		1	2	3	I c	IVa	IVb-1	IVb-2										
전)목곽묘	●											●						지산동73·30호,영)2-80호		
전)3-1호석		●		●		●						●						지산동33호		
군)10호석					●													지산동 영)2-2호, 지산동 44호분, 지산동 45호분		
군)11호석			●		●															
군)6호석			●		●															
군)12호석			●		●				●											
군)13호석					●								●							
전)2-2호석					●										●		●			
전)3-2호석					●											●				
전)2-1호석					●												●			
군)8호석					●												●			
전)3-6호토								●												
군)15호석										●										
전)3-5호석										●										
전)3-4호석										●										
전)3-10호토										●										
전)3-3호토										●										
전)2-1호토					●													양전동석곽, 지산동 518호분 5호		
군)14호석											●									
전)3-4호토													●							
군)7호석																	●			

로 갈수록 유개식 장경호 대신 광구장경호가 부장되는 양상이다.

4단계는 대가야계 · 백제 · 마한토기 등이 소량 부장되며, 철기 또한 빈출하는 양상이다. 매장주체 부는 토광묘(전2-1 · 3-4호 등)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이 남-북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 518-5호석곽묘 단계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삼고리고분군의 대략적인 상대편년을 구해보았다. 그와 대비되는 대가야지역 주요 고분의 편년은 아래의 〈표 12〉과 같다.

〈표 12〉 대가야지역 주요 고분 편년표

연대	우지남 (1987)	定森秀夫 (1987)	이희준 (1995)	박천수 (1998)	이한상 (2000)	김두철 (2001)	박승규 (2010)	역사사건
5C 1/4	지35		지35	지35				400년 고구려군 남정
5C 2/4	지33		지32~34	지30 지32~34		옥23	지35 지30	433년 나제동맹
5C 3/4	지32 연결석곽	지32~35			지44-6 지45-1·2	지35	지32 지34	475년 웅진천도
5C 4/4	지34	지44	지44	지44	지44-11	지32 월M1-A	지44	479년 대가야 남제 견사
6C 1/4	지44 지45	지45 지39	지45	지45	지44-32	지44	지45	513-529년 기문·대사사건
6C 2/4					지45-2 지45	지45		538년 사비천도
6C 3/4	주산 갑, 을, 병	주산						562년 대가야멸망

IV. 단계별 부장유물의 특징과 그 가치

1. 단계별 부장유물의 특징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삼고리 출토유물의 기종별 검토를 바탕으로 토기의 변천양상과 그 상대연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 성과(곽장근, 조인진, 전상학, 유영춘, 박성배)와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부장유물의 특징과 유적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1단계는 대가야토기 유입기로 재지계(마한)와 가야·신라계통의 유물이 출토된다. 마한계통의 소호와 함께 대가야의 발형기대·고배·잔 등이 확인되며, 간헐적으로 신라계통의 장경호가 철모, 철촉 등의 철기류와 함께 동반되고 있다.

특히 출토유물 가운데 대가야토기가 우위를 점하며, 가야지역에서도 비교적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중형투창 발형기대와 이단일렬투창고배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유물은 제작기법과 양상으로 보아 고령지역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는 발전기로 유입된 대가야토기의 영향을 받아 재지에서 토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매장주체부가 석곽묘로 변화하고 여전히 대가야토기가 우위를 점한다. 출토유물 가운데 고배에서 대가야·백제·신라계통의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확인되며, 유개식 장경호가 등장한다. 일부 가야토기(발형기대)를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분상 발전기에 해당한다. 매장주체부는 석곽묘로 대가야토기와 소량의 신라토기와 마한·백제 토기가 동반한다.

출토토기 가운데 유개식 장경호와 중형의 개, 무개식 장경소호가 연질소성된 점이 특이하다. 유물에서 확인된 제작기법들은 대가야양식이 보이고 있으며,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8호 토광묘¹²⁾ 출토 유개식 장경호의 경우 적갈색으로 소성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의례용 토기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들 유물 그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형 개는 가야지역에서 일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진주 무촌리유적 보고서 고찰¹³⁾에서 처음 등장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형 개는 합천지역 중형 개와 아라가야 중형 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유적의 출토품은 합천지역의 합천 문림리유적¹⁴⁾ 출토품 유사하며, 장경호 또한 이 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들

〈표 13〉 합천지역 형 중형 개 주요 현황

	
전)3-1호석	합천 문림리 9호
	
산정 중촌 3호	함양 백천리 1호

12)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 05).

13) 경남고고학연구소, 『III. 고찰』 『진주 무촌 IV-삼국시대(2)』(2005), 209쪽.

14)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합천 문림리유적』(2015), 187-188쪽.

이 있어 삼고리 세력과 합천·함양지역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3단계¹⁵⁾는 성행기로 대가야(고령양식)·소가야(진주·고성양식)·백제·마한·신라토기 등이 혼재되어 부장된 양상이 확인된다.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대가야계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장경호·중경호·편구호·장경소호·대부파수부호·일단장 방형투창 고배, 파수부 완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된다. 백제토기가 등장하며, 소가야와 신라계통의 토기가 소수 확인되었다. 전 단계에 비해 다양한 계통과 기종이 출토되고,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위신재가 등장한다.

대가야계 토기의 양상은 대가야산으로 유입된 것과 대가야양식을 충실히 모방한 현지 제작품, 재지+대가야양식이 결합된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재지의 제작집단에 의해 대가야토기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⁶⁾ 아울러 고령지역 이외에 합천, 산청, 함양 등지의 가야토기들과 유사한 유물이 서로 확인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토기와 함께 부장된 철기류(마구·환두대도·철촉·철모 등)·유리(채색옥)·금제이식 등 장신구류가 대가야계통 토기류의 부장 비중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4단계는 쇠퇴기로 재지계(마한)·대가야·백제계통의 유물이 확인된다. 이 단계는 대가야계통의 기종이 단순화되고 유개식 장경호와 기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무개식 장경호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한계통은 광구장경호와 함께 대가야계통의 유개식 장경소호·무개식장경호 파수부완 등의 토기가 출토된다. 전반적으로 철부·철촉·철검 등의 철기류가 전 단계에 비해 빈출되는 양상이다. 백제계통 토기만 부장되는 유구와 소수의 유물만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무덤의 장축방향이 남-북으로 전향이 이루어진다.

〈표 14〉 삼고리 출토 무기류 및 장신구류



2. 장수 삼고리고분군과 그 가치

국가사적 또는 지방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고분군과 다른 삼고리고분군의 특징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기록·무형의 자료수집과 분석 등과 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학술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그 특징을 가려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15) 3단계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고에서는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추후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6)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湖南考古學報』 第57輯, 34쪽.

현재까지 유적에서 진행된 학술발굴조사 등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삼고리고분군의 특징과 그 가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삼고리고분군의 역사성이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던 곳으로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산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1995년 군산대학교 박물관¹⁷⁾에 의해 삼고리고분이 발굴조사되었고, 그 결과 전북지역 최초로 가야 고분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이후 진안고원에 자리한 장수군 일원에 가야와 관련된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즉, 삼고리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종래에 전북지역을 마한 또는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던 것을 '가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가야계 소국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상기문'·'장수가야'로 비정하고 있다¹⁹⁾.

둘째, 삼고리고분군의 희소성이다. 일반적인 고분의 변화과정을 목곽묘 → 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고리고분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고총의 주요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수혈식석곽묘로 목곽묘와 석실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출토유물은 대가야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재지계 백제 신라계 토기 공반되어 지역적 시기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019-2020년 삼고리고분군 2차 추가 발굴조사²⁰⁾에서 장수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가야계 목곽묘(10호)가 확인되었다. 목곽묘에서는 횡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대가야유물이 주를 이룬다. 유물은 소수의 신라토기와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유물 가운데 발형기대와 이단일렬투창고배는 제작 기법과 소성상태 등으로 보아 고령지역에서 생산되어 이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목곽묘의 발견은 그간 미지수로 남아 있던 장수지역 목곽묘 단계의 고분 문화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보고서가 간행된다면 가야사 연구에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삼고리고분군의 특수성이다. 장수지역은 240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그 핵심 묘제가 수혈식석곽묘로 밝혀졌다. 삼고리고분군은 목곽묘 단계에서 시작하여 수혈식석곽묘로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 토광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발전과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장수지역에서만 보여지

17) 광장근, 『長水 三顧里 古墳群』(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18)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43輯』(2013), 38쪽.

19) 광장근, 「장수가야의 지역상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2011),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91~115쪽. 전상학, 「장수가야의 지역상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2011),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117~140쪽.

2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05).

는 양상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그 동안 백제문화권으로 인식되었던 장수지역에 가야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최초로 알리는데 그 의미가 크다.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성과를 통해 전북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목곽묘 단계가 확인된 유적으로 그 희소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연구는 물론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와 교류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고대 사회상을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1995년 처음 조사된 이후 장수지역을 대표하는 가야유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장수지역에서 입지한 동촌리와 삼봉리고분군과 더불어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5~6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체가 성장하였음이 밝혀졌다.

가야 소국의 하나로 파악하거나 ‘장수가야’로 비정한 연구 개진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성화되어 고분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삼고리고분군 출토 부장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 가운데 보고서가 간행된 유구를 중심으로 부장유물의 특징과 그 가치를 파악하였다. 고분 출토유물은 크게 재지계, 대가야계, 백제계, 신라계로 구분되어 진다. 대가야계 토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적의 상대편년과 특징 그리고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를 가늠해보았다.

목곽묘 단계에서 비교적 이른시기에 해당되는 발형기대와 고배 등이 확인되어 장수지역 가야문화의 시작점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혈식석곽묘 단계에서는 유입된 대가야토기를 재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충실히 모방한 토기류를 생산하고, 가야지역의 중심지(고령)와 주변지역(함양·산청·합천)과 교류를 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토광묘 단계에서는 백제화된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과 박장을 하는 부장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가야지역 고분의 발전과정과 달리 6세기대에 다시 석곽묘 이전에 재지 집단이 사용한 토광묘 단계로 회귀하는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는 전북지역 최초의 가야고분 조사라는 역사성과 함께 이전의 백제권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가야세력이 존재했음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최근의 조사성과를 통해 전북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목곽묘 단계가 확인되어 이 지역 가야문화의 시작점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문화재로서 그 희소성과 특수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유적으로 고대 사회상을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논문

- 곽장근, 『湖南 東部 地域의 石槨墓 研究』(전북대학교 대학원, 1999).
- 조인진,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2001).
- 朴升奎,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東義大學校 大學院, 2010).
- 최은비,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연구』(부산대학교대학원, 2016).
- 박성배, 『호남동부지역 가야토기의 유입과 변천』(경상대학교 대학원, 2016).
- 전상학,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43輯』(호남고고학회, 2013).
- 전상학,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湖南考古學報』 第57輯(호남고고학회, 2017).
- 전상학, 「장수가야의 지역상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2011),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곽장근, 「장수가야의 지역상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2011),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朴升奎,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大加耶의 遺蹟과 遺物』(대가야박물관, 2003).
- 朴升奎, 「가야토기」 『가야고분군 II』(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 朴天秀, 「大加耶郡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9輯(韓國考古學會, 1998).
- 朴天秀,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진인진, 2010).
- 조영제, 「대가야식 발형기대의 상대편년」 『부산대고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2010).

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봉리고분군』(2000).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봉리 고분군 동촌리 고분군』(200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 고분군-1호분-』(201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 고분군-16·19호분-』(2020).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 고분군-30호분-』(2019).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 고분군-1·14·25호분-』(2020).
-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삼고리고분군』(200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고분군 1호분-』(201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 1~3호분-』(2020).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19.0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0.05).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변경(3차)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2021.03).
- 啓明大學校博物館, 『高靈 池山洞高墳群 32~35號墳』(198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대가야 역사관 신축부지내 고령 지산동 고분군』(2000).
- 財)大東文化財研究院, 『高靈 池山洞 第73~75號墳』(2012).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 30號墳』(1998).
高靈郡,『大伽倻古墳 發掘調査報告書-44 45號墳-』(1979).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Ⅰ』(2004).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Ⅱ』(2006).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Ⅲ』(2006).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Ⅳ』(2006).
財)嶺南文化財研究院,『高靈 池山洞古墳群Ⅴ』(2006).
釜山大學校博物館,『咸陽 白川里 1號墳』(1987).
경남고고학연구소,『진주 무촌Ⅳ-삼국시대(2)』(2005).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합천 문림리유적』(2015).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토론문

조성원(부경대학교박물관)

전북 동부지역, 특히 장수일대의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곽장근 선생님과 전상학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련의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백제의 영향권으로 인식되고있던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삼고리 고분군·삼봉리 고분군·동촌리 고분군 등과 같은 가야 색채가 농후한 장수 지역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이 지역의 가야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처럼 삼고리 고분군은 장수 일대의 삼국시대 역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가야 문화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월산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원 아영 지역의 가야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회는 전북 동북지역의 이른바 '장수가야'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그 중심에 있는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을 분석한 박성배 선생님의 발표문은 큰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는 가야의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계 유물을 면밀하게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토론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자인한다. 그래서 발표문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대체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토론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서서, 토론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매함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지도를 받고자 한다.

1. 장수지역 생산 가야토기와 토착토기에 대하여

발표문에서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와 '대가야산' 토기를 언급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토기를 '式·産·系'로 구분하였는데, 식은 흔히 말하는 큰 틀에서의 양식, 산은 같은 양식권 내 특정 지역에서의 생산품, 계는 타 양식을 모방한 생산품으로 보았다. 토론자의 잣대로 말씀드리는 점은 죄송하지만, 발표문에서 언급된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는 대가야식 내의 '장수산'인지, 아니면 '장수가야식'인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한다. 만약 대가야식 장수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령산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생산기술이나 형태)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아가 토착 요소가 삼고리 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정도의 분포권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삼고리 고분군 출토 신라토기

발표문에 따르면 삼고리 고분군의 가장 이른 단계인 I 단계부터 '신라토기'가 대가야토기와 공반

되고 있다. 본 발표의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질문일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라토기’는 어떠한 기종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현재까지 대가야 토기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연구자 간의 연대차이는 있지만, 고분 간의 상대연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령 왜빈동 12호→왜빈동 1호) (대동문)지산동 73·75호→(계명대)지산동35호→지산동(영남문)30호·(계명대)32호→(경북대)지산동44호→(경북대)지산동45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서 신라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공반되는 유구는 지산동 32호분의 이단교호투창고배 정도가 아닐까 한다. 물론 이 토기를 신라양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쨌든 대가야 지역-고령-에서 신라양식토기는 본 발표문의 삼고리 고분군 Ⅱ~Ⅲ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Ⅰ단계에 등장하는 신라토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3. ‘장수가야’의 토기문화는 대가야양식인가

첫 번째 질문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발표문을 보면 ‘장수가야’는 대가야양식토기문화를 기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가야양식토기가 성립되는 시점 - 왜빈동 1호 또는(대동문)지산동 75호 단계-에서 장수와 고령 사이에 존재하는(산청)함양과 거창지역의 토기문화를 살펴보면, 대가야양식토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 전후로 추정되는 함양 신관리 유적의 토기가마 출토품을 보면 대가야양식토기보다는 아라가야양식토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창의 경우도 송정리 유적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가야양식토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대가야양식토기가 고령지역에서 형성되는 시점과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유통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확산된다는 점, 둘째 이후 대가야양식토기문화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과도기적 시기를 거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삼고리 고분군을 위시한 ‘장수가야’의 토기문화를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대가야양식토기가 들어오기에 앞서 토착적인 요소를 가진 토기문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둘째는 삼고리 고분군의 Ⅰ단계가(대동문)지산동 73·75호와 동 단계라고 한다면, 함양과 거창을 뛰어 넘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지역에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대가야토기의 유통이 기존 견해보다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셋째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야양식토기문화가 ‘장수가야’에 유입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4.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장수가야’의 역사적 변천은 어떠한가

삼고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문화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발표문의 내용에서는 대가야양식토기가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다른 양식토기문화의 유입을 통해 본 ‘장수가야’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토기 외에 각종 철기류도 어느 정도 출토되고 있는데, 철기류를 통해 볼 때도 대가야문화와 동일한지 아니면 별도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발표 3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振興)

발표 : 이현석(장수군청)

토론 : 김재홍(국민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는말
- II. 장수지역 가야 고분군 현황(보존과 활용중심)
- III. 국내 주요 가야 고분군의 진흥 사례
- IV.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 방안
- V. 나가는 말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振興)¹⁾

이현석(장수군청)

I. 들어가는 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가 남긴 문화유산은 잘 간수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지키고 보살피는 것 즉, 보존과 보호라는 단어를 앞세워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왔다. 최근 들어서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그해 12월 8일 제정된 문화유산 현장이 23년 만인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었다.



문화유산현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역사와 슬픔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함께 무형의 문화유산은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잃고 잊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간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대로 돌릴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손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현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

20년 만의 개정

문화유산현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cpn 문화재TV
2020년 12월 8일

〈그림 1〉 문화유산 현장 (개정 전 · 후)

개정된 문화유산 현장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이 보존과 보호 위주에서 활용방안까지 모색되는 등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수(保守)적인 문화유산의 고정화된 시각에서 살펴볼 때 활용방안이 모색된다는 것 자체도

1) 멀쩡 일어난(법적 제도적으로 문화재는 진흥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매우 중요한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 있는 활용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현재 불특정 지역 특히 지정된 문화유산의 경우 그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켜야 할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수십 페이지가 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그 틀에 맞는 관리지침을 세우는 것이 문화유산의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성립될지는 모르지만 해당 문화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던지 진정성은 쇠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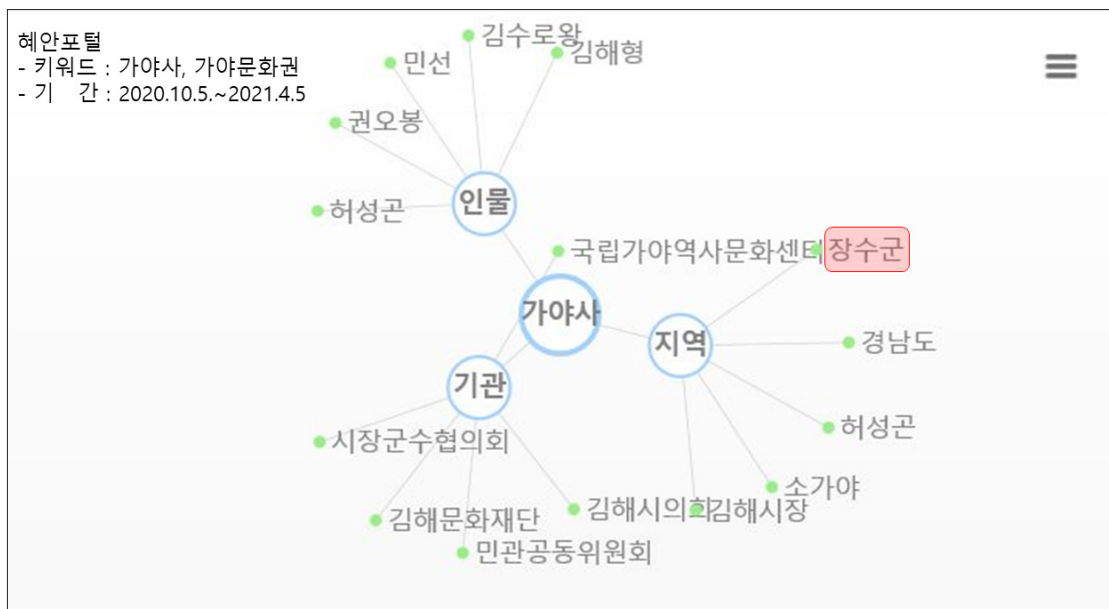
그 문화유산의 규모와 범위, 입지와 자연환경, 일반현황,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호구역 설정 등 유적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적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살펴보는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고분의 특성인 봉분을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범위와 규모를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충분한 것들이다.

삼고리 고분군 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삼고리 고분군은 장수지역에서 가야를 알린 최초의 유적으로 고대사회 백제의 변방으로 인식되던 장수지역을 가야로 전환시켜준 획기적인 고고자료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가미된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존과 활용에서 탈피한 “진흥”(어떠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말)이란 단어를 통해 과감히 삼고리 고분군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그림 2〉 빅데이터 분석자료

그나마 최근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유산의 진흥을 한층 더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장수지역에서 가야는 그 브랜드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지만 가야 문화권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아직 검증작업이 부족하다는 점잖은 표현으로 장수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반대급부로 장수에서 가야 문화유산은 소위 “핫이슈”가 되어 과관심 랭킹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야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45개 시·군 중 가야와 관련된 “관심어”에 장수군은 항상 상위에 링크되는 분석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유사사례와 우수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장수지역에 자리한 가야 고분군 현황과 삼고리 고분군의 조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타 지역의 가야 고분군 보존과 활용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삼고리 고분군에 대한 진흥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장수지역 가야고분 현황 (보존과 활용을 중심)

장수지역에 언제부터 가야문화권이 자리했는지에 대한 문헌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며 기록상 처음으로 장수지역이 언급된 것은 『삼국사기』를 통해서이다.

삼국사기에는 장수지역에 백해(이)군과, 우평현이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문헌기록이 없다 보니 장수지역의 역사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장수지역에 45개소²⁾에 걸쳐 240기의 가야관련 고분군이 자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인 동촌리 고분군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삼봉리 고분군, 장계리 고분군, 호덕리 고분군과 조성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되는 노하리 고분군 등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삼고리 고분군 등이 이에 포함되어있다.

장수지역에 자리한 가야 고분군은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으로 고분군 지역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 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다³⁾. 이러한 묘제의 입지적 특징은 피장자의 신분이 죽어서도 유지하게 된다는 내세 사상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을 지나는 지역민에게는 경이로움을 외부인에게는 위압감을 들게 만드는 역할 즉 지역의 수호신

2)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의 가야고분』(장수군, 2018), 13쪽.

3)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59(호남고고학회, 2018), 46쪽.

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고분군을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는 봉분의 위상에 자연스레 주눅이 든다.

이들 가야 고분군에 대한 학술연구, 유적정비, 활용 등 모든 단계가 시작점으로 영남지방의 가야 고분군과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며 장수군은 향후 철저한 계획하에 가야 고분군에 대한 진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에서 확인되는 가야고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근 운봉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계 고분은 지금의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해당하지만 천오백 년 전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고대사회의 경계를 나누는 자연 척도인 백두대간으로 나뉘는 장수지역과 운봉지역의 가야 고분군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다른 문화를 꽃피웠다는 근거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증거 중 하나이다.

장수군에서 가야고분 발굴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95년 삼고리 고분의 긴급 발굴조사였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다양한 토기들이 확인되었으며 가야를 상징하는 밀집 파상문이 시문된 목이 긴 항아리와 그릇받침 등이 출토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야 고분군 발굴조사는 진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 동촌리 고분군과 삼봉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



〈사진 1〉 동촌리 고분군 조감도

이들 가야 고분군 발굴조사는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된 조사로 장수군의 예산지원이 없었다.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야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비롯한 학술연구는 진척이 없었다. 이 당시 장수군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있었다면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금 일찍 가야고분군에 대한 국가사적을 지정한 후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⁴⁾ 추진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장수군 최초의 국가사적인(제552호, 2019.10.01.) 동춘리 고분군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고분군의 기수가 84기로 장수읍에 자리하고 있다. 주산인 마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정상부를 따라 위치한다. 백두대간을 경계로 서쪽에 자리한 고분군으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에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며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야문화권 최초로 편자와 말뼈가 함께 출토되었고 편자의 의미를 담아 편자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수장층의 묘제라 입증될만한 환두대도, 금제이식, 은제 이식, 성시구 등 가치 있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동춘리 고분군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 유적으로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의 교류사 등 시대상을 잘 반영해 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유적은 2019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였고 국도비(총예산의 85%) 확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다. 문화재 구역의 군유 지화 추진을 통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2021년에 유적의 시안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목제거, 탐방로 개설 등의 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계 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삼봉리 고분군이다. 삼봉리 고분군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2013.11.15.)로 주산인 백화산 동쪽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일월에 장계리 고분군, 호덕리 고분군이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총 124기(삼봉리 41기)의 고분군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6기의 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동춘리 고분군과 더불어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대표할 만한 가야고분으로 입증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무궁수(일본명 : 도꾸라세이지)가 천막을 세워놓고 발굴작업과 유사한 도굴 행위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진행된 도굴과 훼손으로 많은 양의 유물이 훼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적의 역사성을 입증할만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4) 김해 대성동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7개 유산으로 2022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2〉 삼봉리 고분군 근경



〈사진 3〉 단야구 3종세트

이 유적은 국가사적에 도전했지만 사적 지정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사적에 재도전할 필요성이 높은 유적이다. 이를 위해 발굴조사 추진뿐만 아니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대전-통영 간,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적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유

적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산 소나무인 “니끼다” 제거작업과 탐방로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삼봉리 유적의 입구에 자리한 민묘가 이전되면서 이곳의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삼봉리 고분군에 인접하여 조성된 장계리 고분군은 삼봉리 고분군과 같이 백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 장계리고분군 발굴조사⁵⁾에서 가야문화권 최초로 단야구 3종 세트(쇠망치, 쇠집게, 모루)가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단야구는 사용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장수군일월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유적의 조성시기를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전북문화재연구원, 「백화산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장수군, 2020).

다음으로 노하리 고분군이다. 이 유적은 장수읍에 자리한 봉황산(해발:863m) 자락의 왕대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노하리 고분군이 자리한 곳은 지명적 측면에서도 주산이 보통 명칭에 쓰이지 않는 봉황이 쓰이고 마을 이름이 왕대로 범상치 않은 동네임을 알 수 있다.



〈사진 4〉 노하리 고분군 근경

이 유적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우연히 들은 당시 장수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밭에서 출토된 가야토기를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유적 훼손의 심각성을 인정받아 100%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굴조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발굴에서는 주구(도랑)가 돌아가는 석곽묘(3호분)가 확인되었으며 마한계, 백제계라 알려진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명적(효시, 소리 나는 화살)이 출토되어 학계에 관심을 받았다.

노하리 고분군은 지금까지 알려진 장수지역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시기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노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장수지역 가야 세력의 진출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장수지역의 주요 가야 고분군은 발굴조사 확인된 유적과 유물은 장수의 역사성을 밝히는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노하리 고분군은 봉분이 모두 유실되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밭 경작이 이루어진 상태로 향후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보존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사진 5〉 호남지방 최초 가야 홍보관

그나마 호남지방 최초라는 타이틀 건립된 장수 가야 홍보관은 예산 규모에 비해 알찬 기획으로 전라북도와 장수지역의 가야문화를 알리는데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야 역사관 또한 호남지방 최초라는 타이틀로 지역의 가야사 재정립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술력과 연출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껏 살펴본 장수지역 주요 가야 고분군은 대부분 유적의 훼손이 심각하며 일제강점기부터 근래까지도 도굴이 성행되었다. 도 기념물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가야 고분군 외의 비지정 가야 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부담하기에 지자체의 현실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재 안내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장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작은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할 듯하다. 작은 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화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장수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작은 박물관은 지역 문화유산의 안내판을 대체할 용도로 컨테이너 등 이동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해 해당 유적지에 대하여 패널과 영상장치를 구축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매장된 문화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유산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6〉 장수형 이동식 작은박물관 조감도

고대사회 백두대간의 서쪽 산악지대인 장수지역에 어떠한 매력이 넘쳐흐르기에 이렇게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점이 유발된다. 물물교환 시대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물이 장수로 모인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최근 장수지역에서 확인되는 철 생산유적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금의 정보통신기술의 원조이자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결된 통신망인 봉화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특화시켜 차별화된 전략으로 보존 활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Ⅲ. 국내 주요 가야고분군의 진흥 사례

2017년 대통령 인수위 회의에 뜬금없는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하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 “호남과 영남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계기를 가야 역사문화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가야사에 대한 조사 정비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가야 문화유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야 고분군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가야사 연구에 있어 가야 고분군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의 유적에 대한 조사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언급된 6가야 지역인 영남지방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굴을 빙자한 도굴이 선행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꾸준한 학술연구를 통해 성과가 축적하였다.

국정과제 포함 이후 가야문화권⁶⁾에 포함된 전국의 지자체들은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 가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북 가야사 조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⁷⁾이 제정되었고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집권화가 이룩된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문화 학술연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 4국이라는 용어로 바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를 학계에 입증하기에는 진정성 있는 학술적 연구성과가 더욱더 축적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 주도하에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보고서⁸⁾가 발간되었다. 이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가야 문화권에 대한 여건 분석 및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잠시 살펴보면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문화를 활용한 보존과 활용정책의 한계성을 느끼고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가야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화가 아닌 국가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등 지역적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광역적 연계 협력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4국 시대를 표방하며 소외된 가야사를 국가적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야문화권의 기본계획을 실현 2035년까지 하기 위해 20개 사업(88개 세부사

6) 보고서 : 가야문화권은 전국 45개 지자체로 확인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초광역권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경상남도, 2020년)).

7)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단독으로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8) 국토연구원,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경상남도, 2020년).

업)에 1조 4,0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록 총예산에서 전라북도 특히 장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다 하더라도 1조를 넘는 단위가 말해주듯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장수군 가야문화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기대와 희망을 꿈꿔보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정협의체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⁹⁾”에는 가야 문화권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통해 호남과 영남의 상생화를 모색하고 역사문화를 재정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야사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국회 입법 활동과 국립중앙박물관이 26년만에 다시 기획된 가야 특별전인 “가야본성”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임나일본부설과 접목되어 비판은 있지만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 7〉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모습

이러한 현실을 잘 접목하여 장수지역의 가야고분군 특히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¹⁰⁾를 앞두고 있는 대표 시·군의 보존과 활용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9) 2005년 발족하여 현재 5개광역시도와 26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10) 2022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두고 있다.

활용 가능한 사례를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우선 가야 문화권의 선두주자로 꼽힐 수 있는 “김해시”는 가야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야사에서 초기 가야의 맹주로 자리했던 금관가야가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진 김해시는 그동안 독자적 행보를 거듭하다가 2017년에 앞서 언급한 행정협의회에 가입했지만 2021년 행정협의회 의장국의 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군을 포함해 가야 관련 많은 유적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김수로왕 설화 등 많은 이야기를 잘 보존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가 운영하는 대성동 박물관과 국립 김해박물관¹¹⁾이 자리하고 있어 찾는이로 하여금 가야사를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가야 테마파크를 조성해 공연, 체험 등을 통한 가야사 알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의 관광해설사는 웬만한 역사 전문가도 울고 갈 정도의 가야



〈사진 8〉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박물관 전경

관련 역사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내방객에게 금관가야를 알리는 일등 공신이다. 김수로왕릉 앞에서의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잠시 인용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씨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수를 자랑하는 김해 김 씨들 중 출세한 사람들이 김수로왕 제례 봉행에 삼헌관에 들고 싶어 김수로왕릉 지기에 많은 로비를 한다고 들었다.” 전직 대통령 등을 비롯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력가들이 삼헌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11) 국내유일의 가야사 전문 국립박물관.

자연스레 주눅이 들었고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이야기 또한 김해시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스토리와 전략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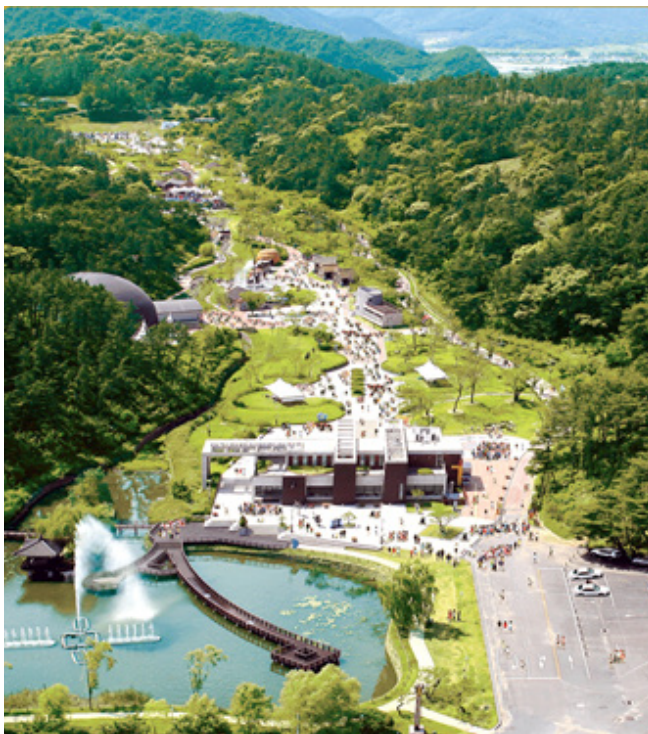
최근에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까지 유치가 확정되었다. 총사업비 296억원(전액국비)이 투입되어 가야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고령군을 살펴보면 고령군에는 잘 알다시피 후기가야를 주름잡던 대가야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지역이다.

2005년 앞서 언급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주도한 지자체로 2021년 김해시가 의장국이 되기 전까지 16년간 행정협의회 의장국을 도맡아 하며 가야문화권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현장답사를 위해 고령군을 몇 차례 방문하였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인프라가 장수군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가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은 남달랐다. 물론 배후도시로 대구광역시가 자리하고 있겠지만 연중 고령지역 가야문화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내방객이 50만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부러움을 자아냈다.

몇 해전 고령군을 찾았을 때 방문한 우륵박물관 앞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키 크고 잘생긴 노신사가 마치 유명인처럼 방문객과 사진을 찍어주길래 물었더니 고령을 가야의 도시로 만든 핵심인물인 전임 군수라 했다.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물으니 3선을 하면서 고령의 토대인 대가야를 육성하는데 기초를 다졌으며 그것을 현 군수까지 연결한 장본인이라 들었다. 현 군수도 3선을 하며 정책적으로 대가야 육성에 모든 열정



〈사진 9〉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전경



〈사진 10〉 함안박물관 (불꽃모양 토기 상징)

을 쏟아붓고 있다. 대략 개산 해봐도 24년간 지속된 정책을 통해 지금의 대가야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두 명의 전·현직 군수가 고령의 대가야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과 지자체 장의 의지가 투합되어 이뤄진 성과라 생각된다.

고령군은 지역민의 대가야 사랑은 탁월하다. 지역의 군청 소재지를 대가야읍으로 바꾸고 지역의 모든 브랜드에 가야를 접목시켰다.

김해와 더불어 쌍두마차로 불리는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세계유산 등재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으며 2022년 좋은 성과를 앞두고 있다.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해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등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 보존과 활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불꽃 모양 토기로 유명해진 함안군이다. 이곳은 아라가야가 자리했던 곳으로 가야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 지역도 지역민의 가야 사랑이 대단하다 행정명 변경은 물론이고 가야고분군 중 유일하게 말이산고분군이 원형 보존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말이산고분군에 인접하여 함안박물관 운영을 통해 아라가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특히 말의 갑옷이 발견된 스토리를 통해 지역민의 가야 문화사랑을 알리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축제인 아라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과 가장 인접해 있는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20개소의 지정문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남원시민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유별나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남원의 가야문화도 꽃피웠을 꺼라 생각된다.



〈사진 11〉 남원 두락리유곡리 고분군 전경

운봉고원 일원에 자리한 가야고분군은 1982년 88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확인된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09년부터 시작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건설공사에 포함된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청자계수호, 철제초두 등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중요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진행된 두락리 유곡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청동거울과 금동신발편이 말뼉와 함께 출토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2018년 호남지방 최초로 가야 고분군이 국가사적이 되었고 이를 통해 기문국으로 비정되어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후 경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굴체험관 건립을 준비 중이며 유적지일원의 토지매입, 유적정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타 지역 가야 고분군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행정조직 구성과 지역적 관심과 학술성고가 결합 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결과들은 가야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가야 고분군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장수지역의 가야 문화유산은 이제 막 태동한 신생아에 비유해도 될만하다.

IV.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 방안

앞선 발표들과 삼고리 고분군의 연구성과를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이렇게 좋을 수 없다.”이다. 무덤의 규모나 축조 형태를 보았을 때 지역 최고의 수장층의 무덤도 아니고 지금 말하는 중간관리자급의 무덤에서 전국 각지의 토기들이 출현하고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오색옥이 확인되는 등 그 출토유물이 장수지역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그동안의 학술연구를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정문화재를 추진해야 한다. 문화재 지정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함을 물론이고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부족한 보존·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유적과 학술성과를 축적하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필요한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삼고리 고분군을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나아가 국가사적 지정추진을 가장 앞서서 준비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는 어려워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과 보편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 특히 학문이라는 이름 하에 학자들의 전유물처럼 된 역사는 그 단어 자체가 일반인과의 벽을 이루고 있다.

얼마 전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지역 교과 개설프로정에 참여한 바 있다. 여기서 교육전문가들과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역사하면 무겁고 따분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교육은 이해도를 높이기보다는 연대표나 역사적 사건 사고의 날짜를 외우는 등 암기과목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유산이 확인되는 이유와 배경 그 근거를 찾아가는 하나의 놀이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감이 필요하다. 유적의 규모 형태, 출토유물의 편년과 같은 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발굴조사 보고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화유산이 알려지게 된 계기 이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축조과정을 삽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삼고리 고분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를 동화작가나 만화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스토리화 할 필요성이 높다.

삼고리 고분군도 그 조성 시기와 유적의 규모 성격을 먼저 알리기 전에 삼고리 고분군을 찾게 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레 접근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한층 더 다가서고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장수군의 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된 지표조사팀이 장수로 떠나는 여정과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삼고리 故한홍석 님과의 인연을 통해 시작된 장수지역의 가야문화 이야기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공연으로 재탄생된 장수 가야 무용극은 이를 모티브로 연출된 것으로 공연을 관람한 관객의 뇌리에 장수지역의 가야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되어야 한다.

또한 삼고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오색옥, 배부병, 고사리모양 손잡이 토기 등을 홍보상품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장수지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지금의 홍보물품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중요 출토품이다.

얼마 전 개최된 가야본성에서 장수군의 오색옥 팔찌체험이 방문객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배부병은 흔히 컵과 물병이 합쳐진 것으로 장수군을 대표하는 홍보상품화 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 정비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이동식 작은 박물관을 설치하고 해당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고리 고분군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땅속에 덮여있는 문화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문화재 안내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식 작은 박물관 설치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편안하고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높다. 주기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삼고리 고분군에 대한 인식, 바라는 점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장수지역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토기들이 출토된 삼고리 고분군의 역사성을 통해 단순한 무덤의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지역의 역사성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를 위해 고고학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학, 건축학, 토목학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당시 시대상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삼고리 고분군 진흥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할 수 있겠지만 문화재라는 딱딱한 인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스레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내방객을 위한 공원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삼고리 고분군을 찾는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 실패한 진흥 사례가 될 수 있다.

문화재라는 인식보다는 탐방코스 등을 개발하여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삼고리 고분군을 찾아 산책하고 꽃내음도 맡으며 우연히 산 동물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방문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문화재를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정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장수군 지리적 특성상 그동안 백제문화권으로 인식된 곳으로 앞서 확인된 삼고리 고분군을 통해 지역 특색을 간직한 가야문화가 자리했던 곳으로 확인되는 복합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곳이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금강과 섬진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4세기를 전후에 5세기 후반까지 가야의 문화를 꽃피운 지역이다. 가야의 역사문화는 그 문헌기록이 희박하여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밝혀질 만큼 많은 과제를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술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고고학적 접근과 더불어 경제학, 건축학, 토목학, 관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삼고리 고분군 인근에 자리한 침령산성, 남양리 유적 등 주변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여러 여건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 가야 문화유산인 동촌리 고분군, 삼봉리 고분군, 노하리 고분군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고대사회 동서를 나누는 자연 경계인 백두대간을 넘어 가야가 진출한 이유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담은 스토리를 통해 지금껏 밝혀진 철과 봉화 왕국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의 가장 큰 방법은 사람들의 관심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역사성이 확인됐다고 치더라도 이후 방치되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진 많은 유적지들을 우리는 흔히 접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진흥 방법을 모색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화(名品化)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한 지역의 가야문화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테마 관광지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삼고리 고분군 조성시기의 역사성 확인을 바탕으로 시도되는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이야 말로 당시를 살아가던 선조들의 염원일지 모르며 후손에게 향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방법일지 모른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지속적인 진흥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곽장근, 『장수군의 고분문화』(장수문화원, 200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2018).

윤덕향, 『남양리』(장수군 ·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0).

전상학, 「장수삼고리 · 삼봉리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노하리고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장수군, 2016).

조명일, 「호남동부지역 제철 및 봉수 최신조사성과」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지건길,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 · 철기 일괄유물』(199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반도의 제철유적』(2012).

이주현,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의 보존과 활용』(진안문화원, 2016).

김낙중,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방안』(2018).

국토연구원,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경상남도, 2020).

(재)한울문화재연구원, 『함안 말이산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경남 함안군, 2013).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경북 고령군, 2015).

홈페이지

고령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대성동 고분 박물관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홈페이지

함안 박물관 홈페이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振興) 토론문

김재홍(국민대학교)

이 논문은 가야 고분군이 폭 넓게 분포하고 있는 장수군의 삼고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흥 방안을 탐구한 글입니다. 발표자는 가야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활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장수군 문화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적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가진 논문입니다. 기존 조사와 연구를 학술적으로 추구한 논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통해 진흥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 전개하는 내용은 먼저 장수지역 가야 고분을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타지역 가야 고분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삼고리 고분군의 진흥 방안을 서술하여 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1995년 군산대박물관(곽장근)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유철)의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금강 상류지역에 조영된 대가야문화권의 대표적인 고분군으로 장수 지역의 토착세력이 5~6세기 전반에 가야문화를 수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릉 정상부와 사면을 따라 10m가 넘는 봉분을 가진 고분이 열지어 들어서 있어 광경은 가야고분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덧널을 축조하는 방식(여러 덧널형식=多槨式)과 봉분 조성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삼고리 고분군의 축조 세력은 지역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대가야의 고분 문화를 받아들여 한 단계 발전하였던 세력이자 국가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이 이 지역 왕(당시 용어로 한기=旱岐)과 왕족의 고분이었다면 삼고리 고분군은 이를 뒷받침하는 계층이나 주민의 무덤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계층의 무덤이 아님에도 10m 이상의 봉분을 가진 고분을 조성하였다는 면에서 장수지역 고분의 위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분에서는 가야계유물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접경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백제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 국제성, 역동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부각하고 활용하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성장하였으나 개방적인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기념물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 대해 조사, 연구에서 나아가 복원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본 논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본적으로 논지에 동의하지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삼고리 고분군이 가진 문화적인 가치의 활용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제시하여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위주로 세계유산을 지정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 삼고리고분군의 가치에 잘 맞는 의도이자 발표자가 주장하는 논지에 잘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고리 고분군이 처한 외부적인 위협 요소인 장기간의 봉분 훼손이 장애가 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고분과 주변 환경을 잘 점검하여 발전적으로 보존과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성, 법적인 제도와 정책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삼고리 고분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추진한 장수군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고리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한 장수군과 군민의 노력이 있다면 고분군의 진정성이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가야 고분군 소재 지방자치체와 협력 관계망의 형성

현재 가야 고분군이 소재한 시군은 행정협의체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호남과 영남의 상생화를 모색하고 역사문화를 재정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군이 군내 가야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실질적인 가야문화권 시군과의 협력사항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질의드립니다. 협력사항을 관련기관과 주민단체로 나누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수군 내 주민자치체의 활약은 이미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의 주민과의 협력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3. 삼고리 고분군의 구체적인 활용

발표자는 삼고리 고분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발견 경위의 만화나 동화 등 스토리화, 무용 공연 등 예술, 문화상품의 개발, 빅데이터 분석 자료의 활용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제시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분군의 탐방코스 개발 등 정비 방안과 체계의 효율적인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 삼고리 고분군의 정비 및 그 체계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고리 고분군에 직접 가서 한 눈에 가야 고분군을 인식하여야 보존과 활용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며, 산이나 구릉의 정상과 사면에 봉분을 조영한 독특한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살려 복원의 묘미를 보여주는 유적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터널을 통하여 고령에 진입하면 눈

앞에 펼쳐진 가야 고분군의 환경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삼고리 고분군도 가야 고분군의 입지로 탁월한 환경을 보여 줍니다. 이를 주변 마을, 논과 밭, 도로 등 현재의 마을 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보존 활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작은 박물관 운동의 가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 한다.” 간단하지만 장수군의 가야문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장수군에는 호남 지역 최초의 가야 홍보관이 있지만 아직 장수에는 가야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백두대간 동쪽의 질양적으로 우수한 가야 박물관을 떠올리면 의아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발표자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 이동 가능한 “작은 박물관”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등 광역시에서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박물관”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참고가 됩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작은 박물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인 쇄 | 2021년 05월 11일

발 행 | 2021년 05월 13일

발행처 | 후백제학회

제 작 | K2디자인 T.063)229-8510